

# vol. 7 하늘나라

우리는 모두 빛나는 별이다



## 커버스토리

올해 교지의 주제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천하늘고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그대로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빛나는 별입니다. 하늘고의 아고라 광장 뒤로 넓게  
펼쳐진 은하수에서 자신만의 빛나는 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

하늘나라 vol.4 이후로 모습을 감췄던 ‘하늘나라’ 글자 돌림,  
올해 이를 다시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사계절 그리고 별을 주제로 한  
속표지에서 ‘래’를 활용한 재치있는 문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 ‘래’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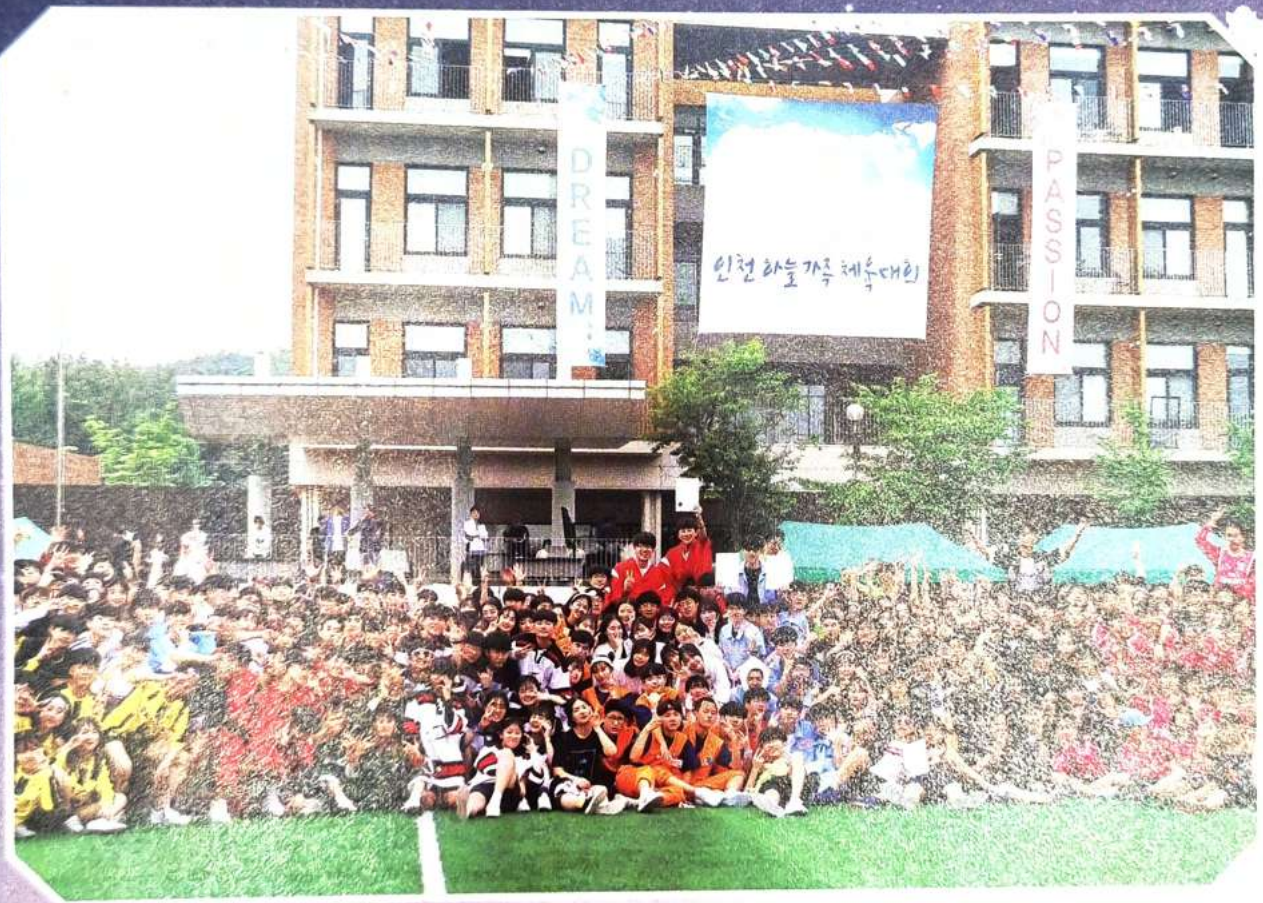
vol. 7

# 하늘나라

우리는 모두 빛나는 별이다



# 꾸 그리고 모 열정



꾸  
모를 향한 비상  
세상을 움직이는 열정  
도전을 즐기는 배움터



# Contents

- 06 / 교장선생님 인사말
- 07 / 감사글
- 08 / 통일교육
- 09 / 항공교육
- 10 / 연구방법론
- 11 / 세계시민교육
- 12 /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 13 / 논리학
- 14 / 무한상상과정
- 16 /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
- 18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탐구 프로젝트
- 20 / 8대 학생회의  
소중한 그림일기
- 30 / 광고
- 31 / 봄 도비라
- 32 / 2019 하늘고등학교  
동아리 영화제
- 46 / 렌즈로 본 세상
- 54 / 교사컨텐츠
- 66 / 광고
- 67 / 여름 도비라
- 68 / 체육대회
- 72 / 忙中閑
- 76 / 광고
- 77 / 당신의 \_\_은  
안녕하십니까?
- 80 / 개인사진
- 82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 88 / 광고
- 89 / 가을 도비라
- 90 / 고민의 숲

96 / 개인사진

98 / 편지할게요

101 / 개인사진

102 / 수학여행

106 / 꽃동네

110 / 광고

111 / 겨울도비라

112 / 선배는 졸업해서  
전설을 남긴다

124 / 개인사진

126 / 학술제

130 / 하늘어워드

136 / 하늘빅이슈

138 / THIS IS HANEUL  
CONNECTOR

142 / 광고

143 / 별 도비라

144 / 우리반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해주신 말

148 / 1학년 학급별 콘텐츠

164 / 2학년 학급별 콘텐츠

200 / 3학년 학급별 콘텐츠

216 / INKling

218 / 파이널 매거진

228 / 레전드 학교 급식

230 / 영종도 프로젝트

234 / 하늘고 겨울 패션왕

238 / 하늘고 4대 핫플



# 하늘나라 발간을 축하하며

「교장 김일형 박사님」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중

## NO PAINS, NO GAINS!

결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를 위해 묵묵히 걸어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겹겹이 쌓이며 우리의 열매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의 선배의 선배가 걸어 간 길은 실크로드가 되었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교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은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느덧 우리 학교는 개교 1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음 문구를 함께 되뇌고 싶습니다.

"Together First!"

일생 동안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고, 행운입니다. 하물며 그 사람과 같이 삶의 신념과 가치를 논하고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를 위해 힘써 주시는 수많은 분들과 '모두 그리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하늘나라가 남겨 갈 앞으로의 자취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회장 한 마디 / 노희찬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등학교 8대 학생회장 노희찬입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갔던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늘고등학교라는 환경에 점차 적응해가면서 조금 더 좋게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은 곧 제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이 된 후에도 혼자서는 해내지 못했을 일들을 친구들과 후배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해냈고, 이에 2019년은 저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로 기억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에 나오기도 전에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과연 내가 학생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학생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내가 맡아도 될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8대 학생회를 비롯한 친구들,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한 해의 추억이 가득 담긴 하늘나래 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하늘고등학교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선생님 한마디 / 최상규

모두가 기다리는 재미있는 교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늘고 학생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 소망을 모두 이루어준 유리, 정은, 정환, 푸른, 예빈, 한나, 승환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지편집부장 한 마디 / 장유리

오롯이 학생 7명과 교사 1명만으로 하늘고의 1년을 담기엔 시간도, 페이지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며 큰 웃음을 얻기도 했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또 그 고민에 진심 어린 답변을 써준 학생들, 교사, 학부모의 글을 읽으며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학급별 콘텐츠에 각 학급만의 특색과 추억이 담긴 이야기를 담아 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해보았습니다. 하늘나래 vol.7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작하는 순간마다 부족한 부장이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함께해준 푸른이, 예빈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2019년의 모든 순간을 담기 위해 수고한 정환이, 정은이, 한나, 승환이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항상 저희를 챙겨주신 최상규 선생님께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래 vol.7의 부제, '우리들의 이야기'에 맞는 기사를 작성해준 기자들, 학급별 콘텐츠를 제작해 준 모든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지편집부 모두 하늘커넥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늘고 학생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이 담긴 교지 한 권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책 한 권보다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래를 읽는 모두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2019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 통일교육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체제와 문화까지 남북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의 갈등 관계에 대해 인지한 후 각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동물을 선정하여 이해를 돕는 참여형 수업과 더불어 남북 관계 변화의 양상과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적 배경지식까지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매주 수업마다 다른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 소주제의 전문가 선생님과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막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를 강요하는 수업이 아닌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되어 통일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는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글 · 권현영







## 항공교육

하늘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한 학교라는 명성답게 다른 학교에는 없는 항공교육을 1학년 2학기에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학교에 비해 항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항공교육을 신청하였다. 수업은 항공기 일반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석항공고등학교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기종, 기체, 엔진, 구조 등 다양한 분야를 강의해 주셨다. 순수학문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궁금해하자 베르누이의 원리를 비롯한 다양한 물리법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 어려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한 선생님 덕분에 수업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마도 항공교육이 선택 교육 중에서 가장 활기차지 않았나 싶다. 항공교육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정비공구와 다양한 정비작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실제 항공기용 케이블을 자르고 꼬는 작업과 항공기에 쓰이는 합금과 파이프를 직접 구부리는 작업 등을 직접 해 보았다. 또한 수업 중간중간 선생님의 현실적인 조언과 항공에 대한 각종 썰은 일주일의 시작을 맞이한 이들에게 줄임감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항공교육은 항공 분야로 나아가고 싶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학·과학 분야의 응용을 탐구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장하기에 다른 학생들도 항공교육을 선택해서 1학년의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글 · 김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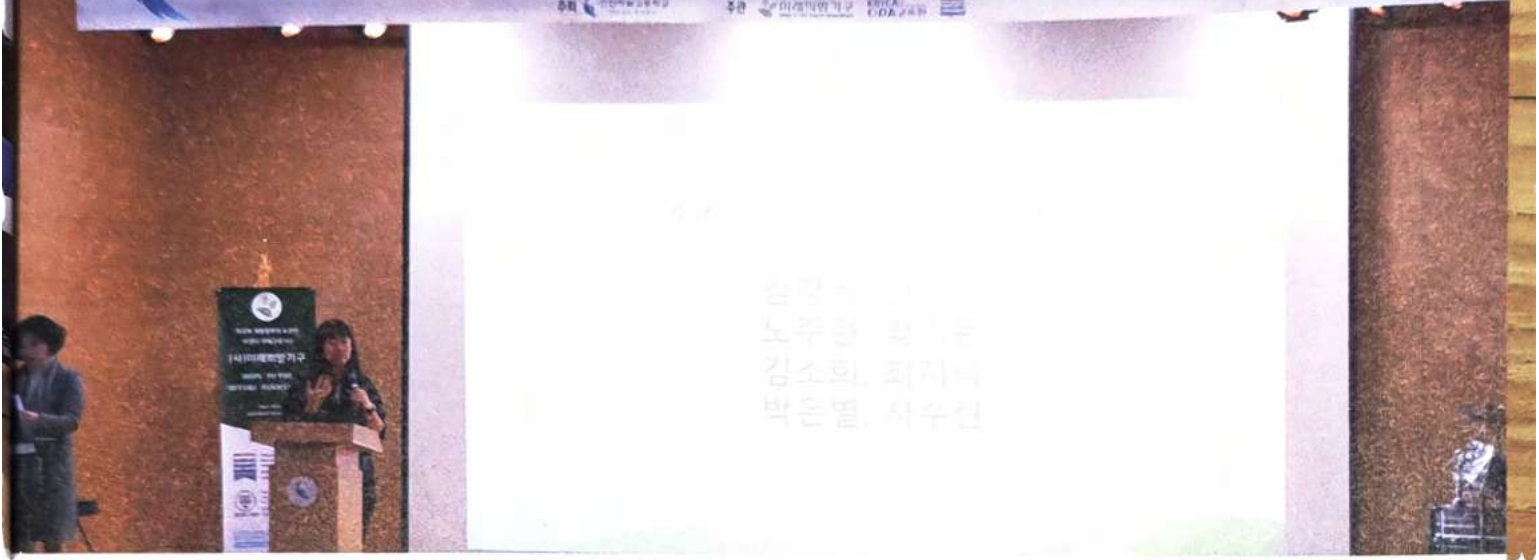
## 연구방법론

처음으로 마주했던 ‘연구방법론’은 저에게 생소하면서도 호기심을 가득 불어넣어 준 수업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10기 학생들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방법론 수업은 개인 별로 자신만의 연구 주제를 정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하나의 소논문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배운 후 자신의 가설과 알맞은 분석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며 자신이 성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하나의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은 뜻깊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첫 시작을 연구방법론과 함께한다면 헤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헤매기도 했지만, 열정이 넘치시는 선생님들의 수업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소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0기 학생들도 하늘고등학교에서 연구방법론을 통해 귀하고 뜻깊은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글 · 박지영





## 세계시민교육

우리는 어느 도시의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그러나 자신이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은 못 해 봤을 것이다. 세계 시민이란, '지구'라는 하나의 마을 속 사는 시민들을 말한다. 즉, 인종, 언어, 환경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같은 시민이자 이웃이라는 뜻이다. 세계 시민 교육은 이러한 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계 시민 교육은 A, B반으로 나누어져 총 10차시의 수업을 듣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운동화에 예쁜 그림을 그려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아프리카 빈곤 국가 어린이를 위한 희망나눔 운동화 그리기' 수업이다. 운동화에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운동화가 블랙마켓(암시장)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절대 몰랐을 뒷이야기였다. 또, 매 차시 여러 강사님과 함께 'MDGs'나 'SDGs', '현대판 노예', '빈곤의 원인' 등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영원히 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글 · 김규리







##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는 학생의 선택으로 수강하게 되는 교양 교과목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각’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면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수업을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대략적인 내용과 그 방식에 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에서는 실제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논증 에세이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지, 논증문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는지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사회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수사학, 토론 등 ‘사고’하고 ‘말’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와 표현하기’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하나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에세이를 쓰는 과제가 많은데, 교수님의 메일로 직접 제출하거나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카페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매주 한 편의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기와 표현하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엔 그 양이 너무 많아 전부 담지는 못하였지만,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구진모







## 논리학

글과 말을 통해 나의 의견을 표현할 때 논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말이 논리적이어야 누군가가 들어주기 마련이니 말이다. 논리학 수업은 이름 그대로 말과 글 속의 논리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소설, 강연, 기사 등 다양한 정보, 자료 속에서 타당성을 판단해보고 논리를 분석해보았다. 김승우 선생님께서 매 논리학 시간마다 새로운 주제를 던져주셔서 친구들과 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토론과 발표를 진행해보았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수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샤이 아가시의 TED 강연을 보고 그가 주장하는 전기자동차의 대중화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추리의 타당성을 확인하며 논증을 해보았다. 많은 기사와 과학적인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수소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를 주장한 그의 강연을 확인해 보았다. 그 중, 그가 주장한 수소 충전소 확대에 대하여 현재 과학기술을 고려하며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예측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논리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탐구도 가능하다. 논리학에서 배운 논증 방법, 논리 원칙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어필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고 타당한 주장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년 동안 여러 분야를 주제로 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논리학을 배웠다. 논리학을 통해 논리적으로 말하기, 글쓰기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접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글 · 이희영





# 무한상상과정

## Infinite Image Program



### 자율주행반

무한상상과정 중 자율주행반은 교내 교외 가리지 않고 많은 주목을 받는 인천하늘고등학교의 대표 공학리더 활동입니다. 자율주행반은 주어진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조립과 코딩을 진행합니다. 긴 연습 기간 후 팀별 경쟁을 통해 학교 대표 팀을 선정해 여러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대회에 출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선배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기계, 컴퓨터, 자동차공학 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태양열로 움직이는 솔라카와 장애물 앞에서 멈추는 세이프 카를 제작하는 등 여러 봉사활동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그만큼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공학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매우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글 · 윤동건



## 드론반

드론이 더욱 활성화되어가는 시대의 변화에 발을 맞추어 지난 1학기 동안 공학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직접 드론을 조립 및 조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론반에서는 드론의 원리부터 쿼드콥터를 중심으로 쓰이는 장비들, 프로그램, 통신 프로토콜까지 분야별로 자세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드론의 작동원리에 대해 배우면서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립하고 비행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된 오늘날, 여전히 급변하는 미래의 변화에 맞추어 점차 활용 분야가 넓어지며 발달해가는 비행 수단인 드론. 미래 항공에 관심이 많고, 나의 손을 거쳐 높이 나는 멋진 드론의 세계에 빠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드론반을 추천합니다!

글 · 홍지수

## 전자의수반

전자의수반은 3D모델링 및 프린팅, 코딩을 이용해 장애인을 위한 전자 의수를 제작합니다. 학생들의 실습이 주를 이루는 이 과정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는 가져보기 어려운 기회로써,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한상상 과정에서 제작한 전자의수를 장애인들에게 전해드려 신문기사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가 퇴색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한상상과정은 그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 그 역량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맞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도 실현할 수 있는 무한상상과정,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글 · 안홍상



#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R&E)



올해 연구의 주제는 '임진왜란 당시 임진강에 가설된 조교의 복원'이었다. 우리는 임진강 조교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임진강 조교를 발표했다. 발표는 PPT가 아닌 전지에 손수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발표 방식이 낯설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이후 군산을 답사하며 군산의 부잔교, 그리고 군산에서 이뤄졌던 수탈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다. 우리 팀은 군산 부잔교가 주된 연구 주제라서 부잔교를 실측만 하다 보니 날이 저물었던 기억이 남는다. 저녁에도 세미나를 열어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고 팀원 간 앞으로의 연구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된 만큼 팀원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답사를 마치고 팀별로 연구를 구체화하고 이를 포스터로 제작하는 작업을 한 뒤, 포스터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는 군산에 가서 느낀 점을 수필로 작성했으며 연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다.







내가 해왔던 연구들은 대부분 컴퓨터 앞에서 자료 조사를 끝내고 '논문'이라는 결과물을 창출하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R&E는 달랐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높은 수준의 모형을 제작하고, 계획에 따라 연구가 순항할 수 있었다. 하늘고에서 진정한 연구를 해 보고 싶다면 교과기반 심화탐구 프로젝트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 박주훈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탐구 프로젝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탐구 프로젝트는 이전부터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실시된 프로젝트로 올해는 '외화 더빙 법률화'에 관련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탐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원서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되었는데 각자 최대 3개의 분야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에 관한 탐구는 팀을 이루어 진행되었는데 각 팀에는 정치, 경제, 문학, 수학, 생명과학 등의 대주제와 관련한 소주제를 제시하였다. 분야가 세분되어 있었기에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하여 탐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영화 시청 후 그에 대한 질문에 관련하여 조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각 팀의 주제에 관련하여 개별적 탐구를 수행하고 발표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조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하는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었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구진모

다른 부하를 그 지위로 승진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으며 추후 전사 작업을 거쳤기에 이는 탐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발표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외화 더빙 법률화'를 위한 절차와 위험 사례들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팀별 탐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경제팀의 경우 성우 등급에 따른 출연료 조건표를 기준으로 더빙 비용을 추정하였고 시각, 청각에 따른 정보량의 손실을 추정 및 비교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2020년에도 활동을 진행하며 외화 더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을 법률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글 · 유소희






8대 학생회의  
소중한 그림일기!



2019. 12. 16



날자: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날씨: 



제목: 재영, 희찬, 지민이는 멋진 학생 회장단!

한글날을 공휴일처럼 보냈고, 시험 기간에 교실  
면학을 했다. 테라스에 테이블을 설치했고,  
생활관 모든 층에 그린비를 설치했다. 공약을  
하나씩 이뤄가는 게 정말 재밌고 뿌듯하다.

앞으로 뭘 하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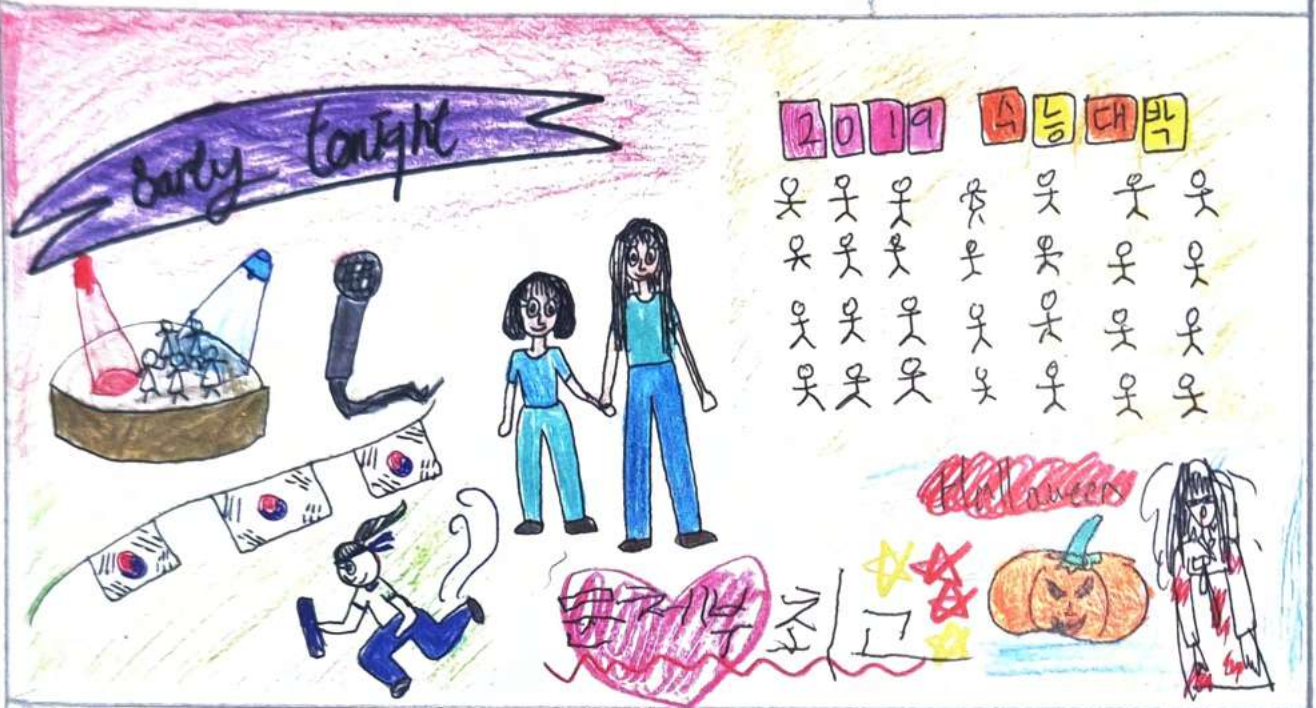
정말 뿌듯하겠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회장단이 되길 바래요!





날짜: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날씨: 



### 제목: 진효와 강희의 문화체육부 이야기♡

할로윈데이 때 학생들을 상대로 뽑기, 사진 찍어 주기, 페이스 페인팅 등을 했다. 수능응원 플래시몹을 준비해 7기 선배님들의 수능을 응원하였다.

(강희가 곧 내년에 체육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학술제 때 전국하늘 자랑 무대 구성과 하늘

살롱을 운영하고 반별 코스프레 행사를 진행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군요!


문화부 덕분에 행사가 더

재미있어졌군요! 수고했어요.





날자: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날씨: 



제목: 희준이와 수빈이는 학생활동지원부예요!

드디어 내일이다. 우리가 준비해온 행사들이 펼쳐지는 축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축제가 펼쳐지는 복도를

흐뭇하게 바라볼 내일을 기다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 많았어요.

학생활동지원부가 있기에 학생들이 행복하겠어요!



날짜: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날씨: 



제목: 세현이와 은지의 일기~

우리는 학교홍보부이다. 학교홍보부는 학생회에 소속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학교를 홍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를 주도하여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네요~!

학교홍보부는 하는 일이 참 많군요~~~~!! 힘들겠어요.





날자: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날씨: 



제목: 진이랑 윤서가 학교의 안전을 책임질게!

곧 시험기간이 다가오는 하늘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안전부는 오늘도 하브루타실을 정리하였다. 시험기간이 되면 하브루타실을 찾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회장으로부터 화재대피 매뉴얼을 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회장의 졸병

학교안전부... 힘들다.TT

회장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고 생각해보세요.  
인기짱 학교안전부~



학교안전부 덕에 하브루타실이

매번 깨끗한거군요! 최고예요.

날자: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날씨: 



제목: 한나랑 재욱이의 학습봉사부 일상~ 와~ 올 한해 정말  
하브루타실이 잘  
사용되고있더라고요.

학교안전부와 하브루타실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수능 후 3학년 선배들의 새 책들을 받았습니다.

이후 1,2학년들의 책도 받아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술제에서 논문 발표를 총괄하였습니다. 학습봉사부는 좀 쫓긴합니다 ^^

수고 많았어요. 학습봉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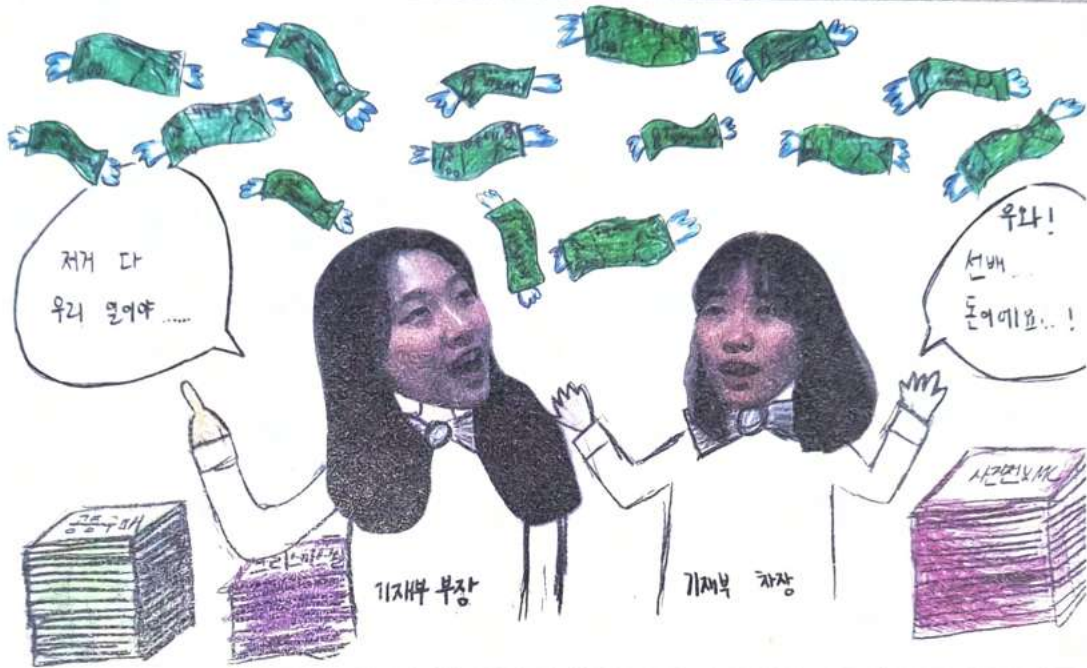
하지만 자만하면 안 되는거 알죠?





날자: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날씨: 



제목: 지민이와 유리의 우당탕탕 기획재정부 이야기

돈만 보면 아찔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의  
두뇌 회전과 98%의 노가다를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 사백육십오만삼천원의 하늘머니를 관리  
하고 사백오개의 공동구매 제품을 구매하고 백칠  
십장의 큐시트를 만들고 백육십장의 사진을 오리고  
나면 면학실에 앉아서 공부가 하고 싶어진다  
그런 전설이... 있다 계산 실수한 적은 없나??

많이 힘들었겠네... 공부가 하고 싶을 정도라니... ㅎㅎ



날자: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날씨: 




제목: 성윤, 채영, 채은, 현아, 영이, 경진이는 오늘도 열심히

"동아리연합회에서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움직이는 건 파워레인저 같은 거야?  
 오늘도 우리는 하늘고 동아리의 평화를 위해 움직  
인다. 24개의 정규동아리와 28개의 자율동아리,  
 모든 동아리가 항상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이끌자.


동아리연합회 친구들은 항상 열심히 하는군요!







# 일기쓰기 딱 좋은 어느 12월 16일, 8대 학생회의 일기!!!



## 회장단

희찬, 재영, 지민이가 꾸려나가는 회장단은 학생회의 모든 부분을 총괄한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선생님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는 재밌는 진효와 강희가 담당하는 부서이다.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 있는 만큼, 하늘고 친구들이 에너지를 분출하는 체육대회나 학술제와 같은 축제부문을 담당한다.

## 학생활동지원부

희준이와 수빈이는 학생활동지원부에서 하늘고 친구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만약 하고싶은 행사가 있다면 이 친구들에게 말해보자.

## 학교홍보부

학교홍보부에는 제현이와 은지가 있다. 하늘고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는 학교홍보부에서 담당하고있으므로 페이스북 페이지에 질문할 일이 생긴다면 답변은 이 두 친구가 모두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 학교안전부

학교안전부에 소속되어 있는 진이와 윤서는 학교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의 청결도 필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브루타실도 청소했다.

## 학습봉사부


올 한해 우리는 학습봉사부의 한나와 재욱이 덕분에 올해 교실면학을 할 수 있었다. 연말에는 아나바다 책 나눔 행사도 진행하니 문제집이 필요하다면 아나바다 책 나눔에 참여하자!

## 기획재정부

지민이와 유리가 속한 기획재정부는 매년 돈을 만진다. 공동구매, 학술제, 스페셜데이에서 동전부터 하늘머니까지 갖가지 돈을 만지기 때문에 돈 관리 정신이 투철한 그들이다.

## 동아리연합부

성윤이, 채영이, 채은이, 현아, 영이, 경진이가 있는 동아리연합부는 동아리 선발, 일정, 부스 등 동아리와 관련된 모든일을 맡고 있다. 이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동아리 활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개인 광고 면입니다.

1588-82824 전국꽃배달

# 배성규

## 82824 꽃배달

주문시  
다육이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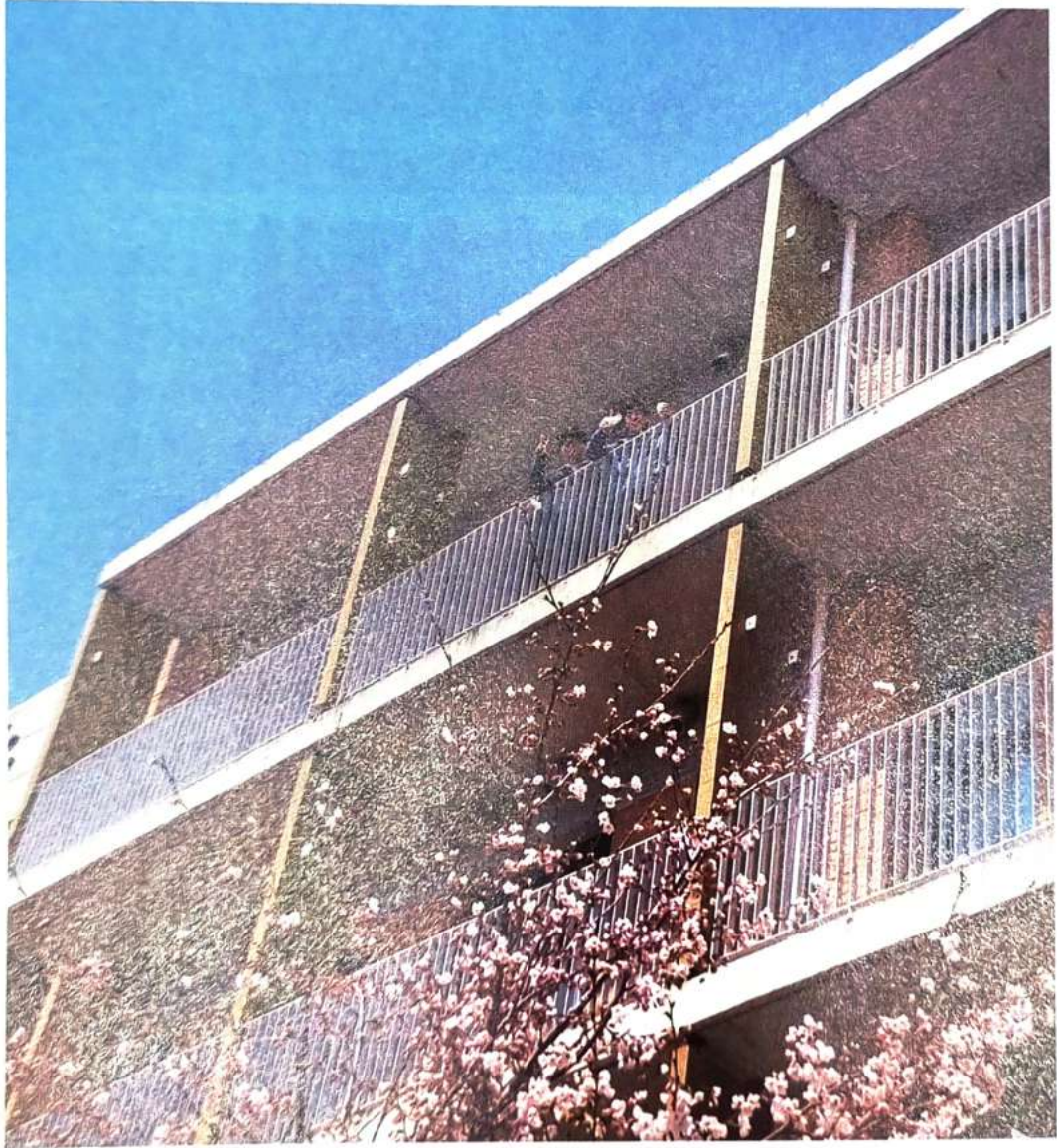


82824 꽃배달

검색



# 春



벚꽃 보러 갈래?






2019

하늘고등학교

동아리 **영화제**

**참여명단**

Air, Alchemist, Archi, Bio-Farm, Cielo, CipiE,  
GLON, HAM, HIM, I-COM, INKling, ISHA,  
Lawgics, On Air, P.I.P, PRo.Passional, Scholar,  
S.O.C, UNESCO, VANK, Volunteacher, 너비,  
루미난트, 카리타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하늘인의 축제,  
**하늘고 동아리 영화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여하신 동아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별점: ★★★★★ 열정 부문 94.3%



**캐치프레이즈** : 서로 다른 목표를 가졌지만 열정 하나로 함께 모인 우리

**줄거리** : 2011년 어느 날 하늘고에 엄청난 동아리가 세워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잇고 있는 그들은 바로 AIR이다. 파일럿, 정비사, 관제사 등 수많은 주인공들이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비상한다. 한층 진화된 그들의 열정은 어디까지 일까. 하늘 높게 올라가는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능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별점: ★★★★★ 스펙 부문 6.02 X 10<sup>23</sup> %



**캐치프레이즈** : New vision of chemistry, Alchemist

**줄거리** : 하늘고 최강의 자연계 동아리 Alchemist. 그들이 여태껏 해왔던 실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실험을 찾아내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새로운 실험을 찾기 위해 부원들은 생화학, 유기화학, 전기화학 등 화학의 세계 곳곳으로 파견되는데, 그곳에서의 오랜 탐사 후 돌아온 그들이 알아낸 것은 무엇이 있을까...





## ARCHI

별점: ★★★★★ 업동 부문 3,000%



**캐치프레이즈** : 3000만큼 생각해도, 결론은 아키!

**줄거리** : 화목한 흥동 아키는 어벤져스의 새로운 본부를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타노스의 등장으로 아키는 각각 9기 '아'와 8기 '키', 반으로 쪼개지는 비극을 맞는다. 8기 '키'가 사라지고 '아'만 남은 9기 에게는 남은 건축을 함께 할 10기의 '키'가 필요하다. 2020년, 아키의 'Key'가 될 10기 스톤들을 모집한다!



## 바이오팜 (Bio-farm)

별점: ★★★★★ 생명력 98.7%



**캐치프레이즈** : 생명력 가득한 실험실에서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일들은..?

**줄거리** : 하늘고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바이오팜. 생명의 작고도 무한한 진리부터 우리 주위에 밀접해 있는 생명현상까지 탐구한다. 명실상부 하늘고 최강 동아리! 과연 그들의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



# Cielo

별점: ★★★★★ 음악적 감수성 분야 99%



**캐치프레이즈** : 매주 들려오는 음악 소리...그 범인은 과연..?

**줄거리** : 하늘고의 대표 오케스트라 Cielo. 하늘 오케스트라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인원을 섭렵하고 있다. 악기 실력뿐만 아니라 진로와 연계된 활동까지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예전의 Cielo가 아니라는데...? 로비음악회부터 정기 연주회, 각종 행사, 교외 활동까지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이곳에 납치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다.

# Cipie

별점: ★★★★★ 자신감 98.9%



**캐치프레이즈** : 아시다시피 씨피는 하늘 고등학교 문과 최강 동아리입니다.

**줄거리** :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제를 다루는 동아리이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경제경영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다양한 플랫폼과 같은 분야들로도 뻗어나가고 있다. 경제경영이 문과 최고봉인 만큼 경제경영의 흥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과의 뛰어난 인재라면 한 번쯤 들어오는 동아리





별점: ★★★★★ 전부분 10π<sup>2</sup>%



**캐치프레이즈** : Great Language of Nature

**줄거리** : 수학에 대한 지성뿐만 아니라 외모와 인성까지 겸비한 GLON. 그들은 수학의 세계, 좌표 평면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별점: ★★★★★ 전문성 부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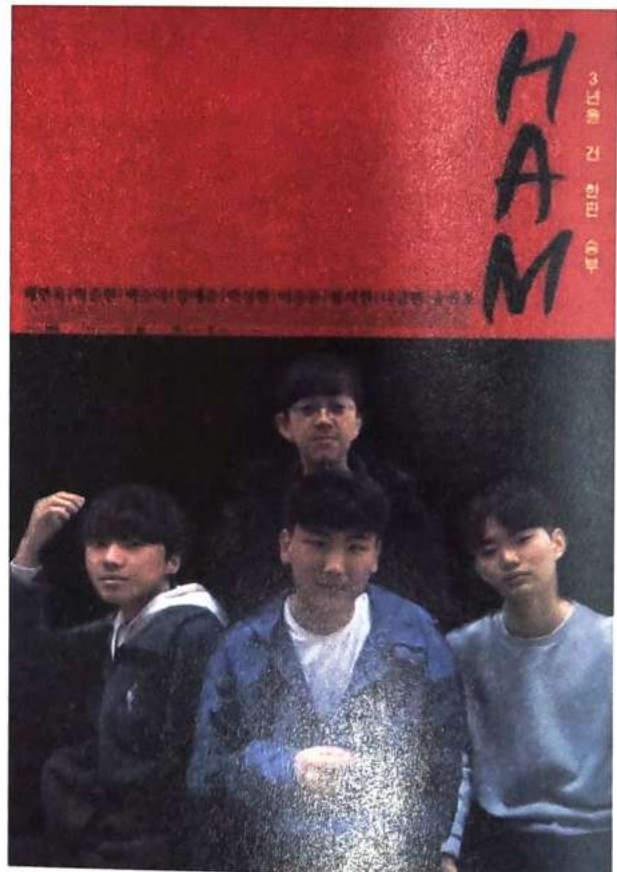


**캐치프레이즈**

걱정하지 마라. HAM이 있으니까.

**줄거리**

2동아리 한 번에 인생은 수시가 된다!  
수능에 자신 없다면, 수시에 집중해라!  
3년을 건 한판 승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걱정은 없다. HAM이 있으  
니까. 올해는 앱 개발, 아두이노 코딩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내가  
필요할 것이다. 하늘고에 온 이상, 뭐라도 얻어  
가야지. 인생은 수시니까.





별점: ★★★★★ 연기 부분 99.9%



### 캐치프레이즈

“우린 물리로 세상을 본다.”

### 줄거리

하늘고를 물리로 장악한 HIM. 그들은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ami쌤의 지원으로 기세는 더 막강해졌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는 끝났다. 그들은 과연 세상을 물리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별점: ★★★★★ 다양성 98.5%



### 캐치프레이즈

저는 아직 미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데 동아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 줄거리

들어오자마자 할 것 투성이인 하늘고에서 동아리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다가온다. 하지만 하늘고에 갓 들어온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든다. 여러 분야의 활동을 원하는 그대여 I-COM으로 오라!



# INKling

별점: ★★★★★ 재미, 열정 부분 98.9%



**캐치프레이즈:** 아무도 모르는 정보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종달새 역할 출연

**줄거리:** 기사를 쓰는 그들, 내일까지 써야 하는 기사를 아직 쓰지 못했다. 그때 존 카워 tr 가 지나가 면서 귓속말을 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돌아가서 과부하가 온 그들의 운명은...

# ISHA

별점: ★★★★★  
대외교류 부분 99%, 학술연구 부분 99%, 인간미 부분 111%



**캐치프레이즈:** "Invaluable, Sociable, Honorable, Adorable"

**줄거리:** "이제 우리도 감당이 안 돼!" 자타공인 하늘고 최강 동아리 아이샤. 수년간 '갓동'의 칭호를 유지해오며 높아진 위상에 아이샤를 향한 주위의 기대감은 커져만 간다. 다른 동아리와의 경쟁을 넘어 이제는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데... 정상을 넘어 전설의 반열에 도전하는 아이샤 동아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 **LAWGICS**

## 캐치프레이즈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 줄거리

정의로 무장한 로직스, 법의 틀 안에서 모든 걸 평정하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는데...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로직스는 과연 정의를 펼칠 수 있을까?

별점: ★★★★★ 열정 99.9%



# **On air**

**캐치프레이즈**: 최대의 웃음, 최상의 재미, 최초의 시도, 최고의 일꾼 온에어만으로 가득 찬, 웃음과 감동의 물결!

**줄거리**: 무려 수만 대 일의 확률을 뚫고 방송실 문턱까지 도착했지만, 완전한 온에어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통과해야만 하는 주인공, 그에게 포기란 없다! 알면 알수록 더 튀고, 더 뛰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온에어의 길. 이내 고도의 실력이나 능력보다 관중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방송실 문을 여는데 그 안에는 더 큰 산이 기다렸다고?...

별점: ★★★★★ 명맛 99.99999%







별점: ★★★★★ 잠재력 99.9%



**캐치프레이즈**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줄거리** : 각자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친구들. 어느 날, 인천하늘고등학교에서 만났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을 합쳐 하나의 동아리, PIP를 만들었다. 각자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별점: ★★★★★ 전문성 부분 99.9%



**캐치프레이즈** : 하늘고 어딘가의 로봇이 가득한 동아리실... 그들의 전설이 시작되었다...

**줄거리** : 하늘고에는 PPro들이 존재한다. 농구로봇으로 전국을 재패한 PPro.Passional. 과연 그들은 갈고뒸운 실력으로 또 다시 어떤 전설을 보여줄 것인가...





# SCHOLAR

별점: ★★★★★ 졸업 99%



**캐치프레이즈:** 실력자들만 모였다! SCHOLAR!

**즐거리:** 문·이과를 막론하고 여러 분야의 실력자들이 뭉친 융합학술동아리, SCHOLAR!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롭고 알찬 활동으로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최고의 9기 선배들과 함께 멋진 2020년을 보내고 싶다면 고민없이 SCHOLAR로!



# S.O.C

별점: ★★★★★ 가족력 100%



**캐치프레이즈:** 한 번 쏙 빠지면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곳..

**즐거리:** 전략적 홍보와 신의 마케팅으로 마주치는 순간 단숨에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S.O.C. 하늘고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세상과의 네트워크를 책임지기 위해 창의력의 원천(Source of Creativity)을 찾아 나서는데 과연 그들은 불의에 맞서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UNESCO**

별점 : ★★★★★ 외곽 99.9%



**캐치프레이즈** : I can show you the world...

**줄거리** : 머나먼 하늘고에 살던 윤애숙은 마법의 우물에 들어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만나게 된다. 지니의 도움으로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된 윤애숙은 첫 번째 소원으로 자신을 가장 멋진 하늘인으로 만들어달라는 소원을 빌고... 지니는 가장 먼저 윤애숙을 유네스코에 가입시키는데...윤애숙에게는 어떤 파란만장한 하늘고 인생이 펼쳐질까?



**VANK**

별점 : ★★★★★ 도라이 부분 100%



**캐치프레이즈** : 반크는 크롱이다. (컨셉 : 뽀로로의 대모험)

**줄거리** : 뽀롱 뽀롱 뽀로롱 마을에 갓동 반크, 늘 친구 같은 분위기로 동아리에 임하는데 어느 날 그들의 동아리에 범접 불가 9기가 들어왔다. 8&9기 조합에 반크 동아리는 더욱 성장한다. 이젠 친구 같은 분위기와 동아리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는데 최강 분위기 동아리의 앞으로의 모습은...? 또한 9&10기의 새로운 조합의 운명은?





# Volunteacher

별점: ★★★★★ 완벽 100%



**캐치프레이즈** : 교봉왕국 9, 이번에도 어김없이 흥행?!

**즐거리** : 내 자부심은 어디서 왔을까? 나를 부르는 저 동아리는 어디지? 어느 날 부턴가 의문의 동아리가 10기를 부르고, 두드림학교에 오라며 잔잔한 하늘고를 하나 둘 씩 변화시킨다. 교지는 모든 것은 교봉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며 10기의 꿈과 열정을 찾아 교봉으로 떠나야한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동아리를 고민했던 10기는 이제 하늘고의 3년을 헤쳐나가기에 교봉이 적합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데...



# 너비

별점: ★★★★★

활력 100.1%, 몰입도 4.8%, 조직력 78.3%



**캐치프레이즈** : 너비가 키우고 인문학을 담는다.

**즐거리** : "신설이 처음이지 깡이 없냐?"로 시작해 말년 병장 태세로 전환된 너비의 일원들. 그들이 키운 동아리가 과연 인문학을 모두 담을 수 있을까?





## 캐치프레이즈

달만큼 찬란했던 그들의 스펙타클한 이야기

## 줄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겁다던데 ...비밀스러운 공간, 언뜻 언뜻 들리는 피아노 소리, 이번에 그들이 준비한 계획은 무엇일까 ...







### 캐치프레이즈

사랑? 너네도 할 수 있어

### 줄거리

사랑하는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태어난 카리타스. 학교에서부터 학교 밖까지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들의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 전파될 것인가...





# 하늘고 학생들이 렌즈로 본 세상



## 장유리

친한 선배가 찍은 사진을 보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선배의 추천으로 후지카메라를 잡게되었다. 카메라를 잡은지는 6개월도 안되서 '찍사' 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바다와 삼다도 횃집,  
완벽한 제주도

공항철도 속  
하교하는 하늘고



완벽한 조명과 시험 하루전날





동인천의 8호 감방

장유리 피셜  
아늘고 포토 스팟



사심 담은 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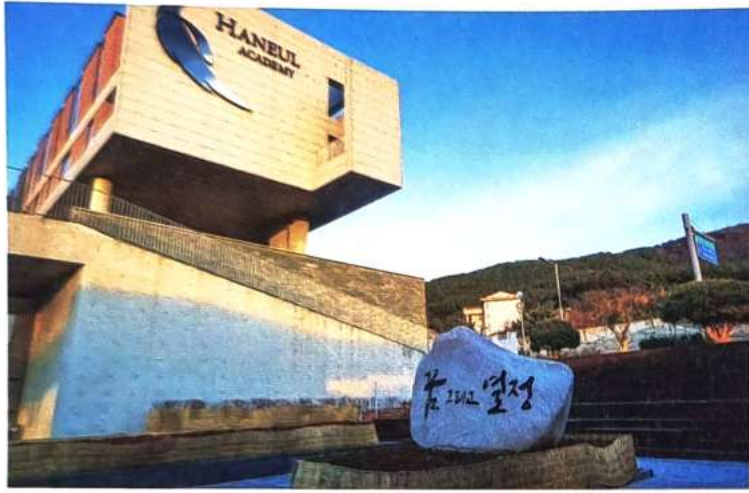






## 정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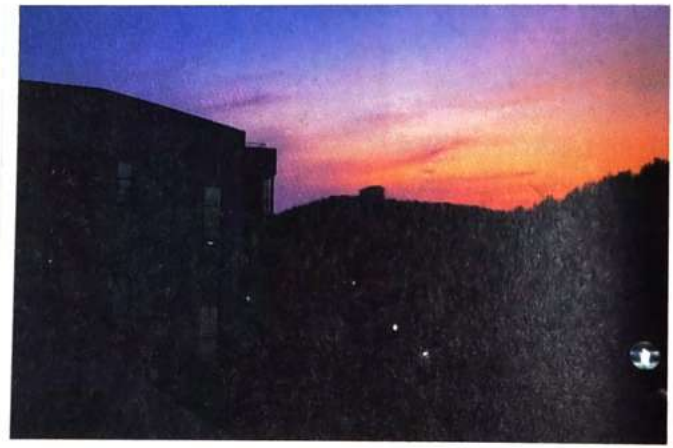
어렸을 때부터 여행다니며 사진찍다가 흥미가 생겨서 계속 하게 되었어요!! 처음 입문을 여행다니며 하다보니 접사보다는 풍경, 인물 위주로 했었는데 찍다보니 인물사진 찍으면서 대화하는게 더 재밌어서 최근에는 인물 위주로 찍고 있습니다!!



하늘고의 풍경,  
예쁜 색감



노을,  
여러 번 담은 색감



외돌개와 바다





## 원식 포토 전속 모델들

그리고 다른 두 인물사진은 가끔 시간이 날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 인물 사진을 좋아해서 아웃 포커싱을 연습하다가 얻게 된 사진들이에요!!



노을, 여러 번 담은 색깔





## 윤은지

카메라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진을 봤을 때 '아, 이뻐 이랬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예쁨과 기억을 담은 사진을 좋아합니다.



## 교탁을 지키는 종이학



## 기말고사가 끝났다는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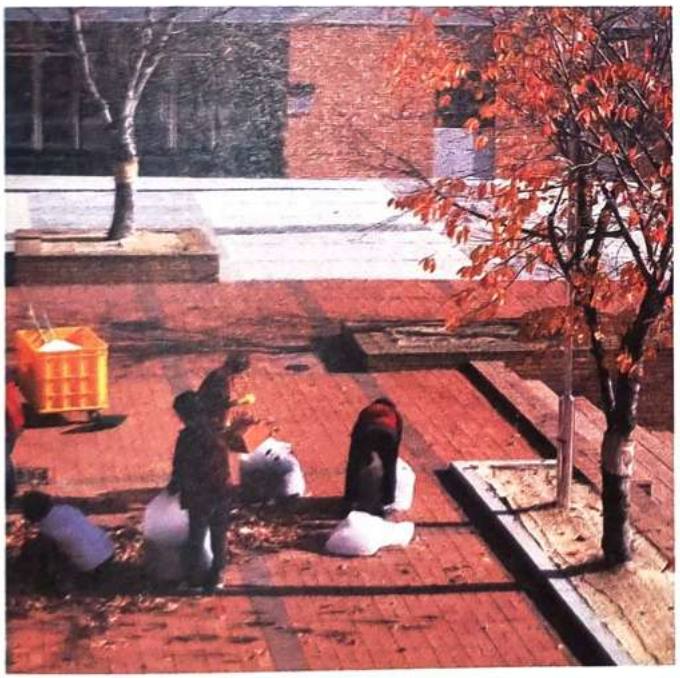


## 나무를 상징하는 케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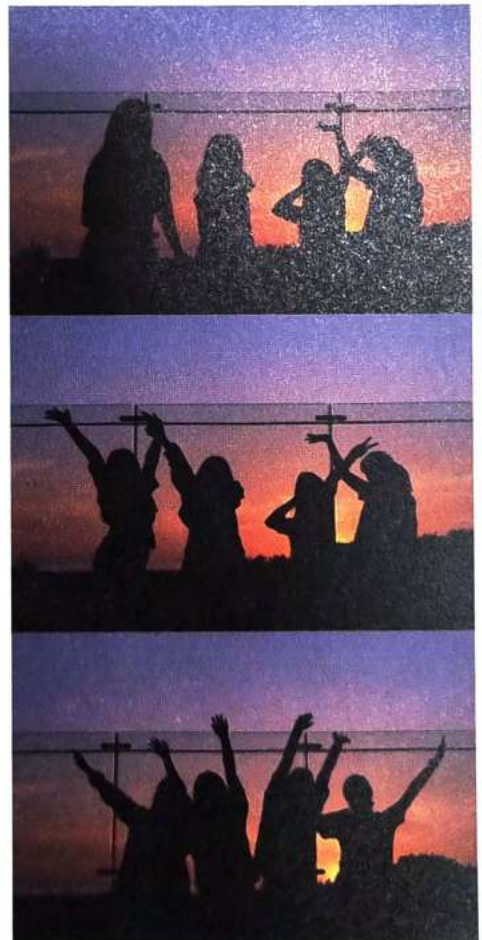




딸기우유 전속모델 권도경



가을과 낙엽, 그리고 청소여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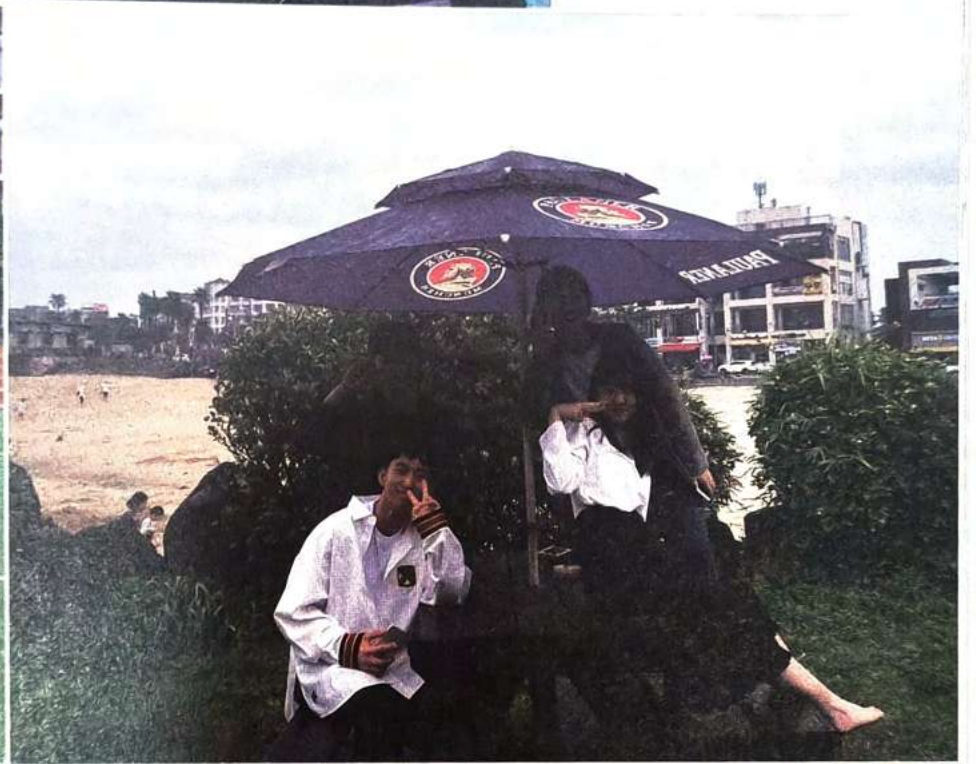


자연의 그라데이션











# 교사컨텐츠 연관검색어1



**송남영** 선생님



#워크맨  
#학교소식통  
#학습지\_만드는\_여자



**김승호** 선생님



#프로록(feat.매너손)  
#명성황후  
#라이언



**최정우** 선생님



#라따뚜이  
#힙하고\_쿨하게\_갈게열  
#리빙코랄





## 한재홍 선생님



#응애니아~  
#첫사랑조끼  
#ㅂㅅ(=복습)



## 이주호 선생님



#갤럭시폴드  
#해골공룡  
#곰표



## 김지연 선생님



#5G  
#재빠르게  
#그래...



## 박수민 선생님



#보드게임  
#지현쌤\_제자  
#카리스마



# 교사컨텐츠 [연관검색어2] 🔍



## 황혜경 선생님



#한국어도\_영어처럼  
#강렬한\_눈빛  
#이거\_하나\_갈까yo?



## 김일형 선생님



#해피바이러스  
#No\_pain\_No\_gain  
#사과씨\_안의\_사과



## 김승우 선생님



#신생아(머리 짧게 잘랐을 때)  
#그건\_다른\_차원의\_문제입니다  
#지금↗방송한↗학생은↗





## 배성규 선생님



#호빵맨  
#마우스  
#브라운박사님



## 정창희 선생님



#예술지문  
#액체괴물\_마블링 문제적남자애청자



## 최상규 선생님



#선생님\_얼마전에\_허리\_다치셨잖아요\_근데\_또\_야구\_하셨더라고요 #드럼채\_따닥따그닥다다락다닥  
#들어봐라\_좀\_이\_새끼들아~



## 이지혜 선생님



#뽀로롱  
#거지들  
#꽃반지파



# 교사컨텐츠 연관검색어3



**임현아** 선생님



#아닌뫼아니누데  
#아핻핻하핻핻하  
#페북\_?\_오



**전민호** 선생님



#내년에다시오세요  
#식스팩!  
#응~같은세대



**고현정** 선생님



#부티  
#아들  
#어우야그게모\니↑





## 이상미 선생님



#천상미  
#부장님~  
#어어00씨~



## 이중언 선생님



#절레절레  
#비중언  
#절권도사범



## 최승주 선생님



#(구)금사빠  
 #빛나는미모\_직접인정  
 #그중~



## 이지현 선생님



#지만\_들어가면\_다\_내\_팬클럽이야  
#풍당풍당  
#패셔니스타\_but\_힌티가 없음(힌티가 없는데?!)



# 교사컨텐츠 연관검색어4



## 천도현 선생님



#댄스남(댄디&스윗남)  
#난\_나쁜놈\_아니야\_하지만\_시험보면\_나쁜놈이\_되겠지  
#거보세효\_대타쵸쵸?



## 정율이 선생님



#므면학해\_므~면학  
#눈\_크게\_뜨고\_짜려봐  
#시험지\_잘\_봤니?\_인쇄가\_아주\_잘\_됐지?



## 심주석 선생님



#화났니?  
#관중분필  
#후레쉬맨\_레드





## 김창재 선생님



#완벽한 수업과 깔끔한 판서

#야\_이\_짱구들아!!!

#하늘고\_곰\_feat.헬스로\_다져진\_몸



## 김경훈 선생님



#햇살속의\_너\_졸업하는날\_스밍\_부탁

#유행어\_제조기

#애니웨이



## 김원석 선생님



#비더미라클

#종례\_후\_후문

#음\_깨워주자



## 김민희 선생님



#인생상담소

#삶의\_활력\_주유소

#오키~?의\_요정



# 첫인상 교사컨텐츠 E인상



## 이현영 선생님

토끼와 거북이 ◯ 아버지  
약당 ◯ 영웅  
전인부 경력 15년 ◯ 귀엽다♥

## 이현주 선생님

꼼꼼 깔끔 ◯ 가끔 덤벼 감빱 그래도 귀엽다♥  
상냥한 선생님 ◯ 친구인 듯 친구아닌 친구같은 선생님  
말로만 듣던 전치사의 마녀?! ◯ 어느 고3 교실에서도 볼 수 없을  
신개념 영어 수업



## 임혜연 선생님



냉미녀 ◯ 야구를 사랑하는 온미녀  
엘사 ◯ 안나 (쌤 세상 귀여워요!!)  
죽면 그대로 죽는다 ◯ 죽면 그대로 죽는다

## 서연희 선생님

소통 요정♥긍정 에너지 뽀뽀! ◯ 꽃보다 아름다우신 4반 여신님!!  
레드가 잘 어울리시는 Sexy Woman♥ ◯ 레드가 잘 어울리시는 큐티  
러블리 선생님♥  
후다닥 끝나는 종례와 빨리 끝나는 조회 ◯ 우리 반 화목한 에너지 담당  
선생님





# 첫인상 끝인상

교사컨텐츠



## 이형주 선생님

진지하고 무서움 ◦ 포근하고 착하시고 소중한 건 빼앗아감  
진지하고 무서움 ◦ 한지민 프로 덕질러  
진지하고 무서움 ◦ 주리를 틀어라

## 김민철 선생님

오재원 ◦ 오재원  
훈남 ◦ 형  
청소년체조 강사 ◦ 점프밴드강사



## 배준범 선생님

fm ◦ 드립장인  
순박한 시골남 ◦ 도시남  
트레이닝복 애용가 ◦ 패피

## 김민수 선생님

과묵한사람 ◦ TooMuchTalker  
무뚝뚝 ◦ 화낼 때도 미소를 잃지 않음  
다 귀찮아 ◦ 촌데레





# 첫인상 끝인상

교사컨텐츠



## 김경희 선생님

본교무실 선생님 ◦ 경량패딩 모델  
 경희라는 이름과 찰떡 ◦ 경희보다 영희가... 더 잘 어울림  
 어디선가 본 사람 ◦ 의외의 유머감각

## 조기성 선생님

엄근진 ◦ 푸근함  
 교사 ◦ 하늘고 공식 DJ(교내 방송 ㅎㅎ)  
 강력계형사 ◦ 사랑꾼



## 이재현 선생님



엄격 ◦ 천사라 말로 표현할수없을정도  
 서울남자 ◦ 전라도남자  
 생활관 공식 DJ ◦ 프로열정맨

## 최성태 선생님

화 많은 사람 ◦ 목소리만 큰 사람  
 고구마 패션 ◦ 요정  
 여러분 다들 즐리시죠? ◦ 수업거부? 대화거부?





### 김지훈 선생님

젠틀한 성악가 ◯ 젠틀한 첼로리스트  
 Manner maketh man ◯ 첼로 연주가 멋진 동네 아저씨  
 유명 레스토랑 셰프 ◯ 간지폭풍

### 정주원 선생님

조폭 두목 갱단 ◯ 음식 도둑  
 정부장(BJ) ◯ 푸근한 아저씨  
 강한남자 ◯ 허당美



### 류대곤 선생님



야생곰 ◯ 애완곰  
 문작토...? ◯ 하리보  
 진지 무서움 ◯ 큰고니

### 이강봉 선생님

강봉 ◯ 강봉♡  
 키 크시당... ◯ 마음이 무거우시면 청소를 하시는 선생님  
 안녕하심까. 이강봉임되~! ◯ 알겠지, 그지? 대우자동차하면 안 돼~



### 김유진 선생님



진짜 일본인 같았음 ◯ 왕 인자하심  
 포켓몬 캐릭터 닮았음 ◯ 309 청소 좋아하심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 ◯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



개인 광고 면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이 가

# HBS 주말 드라마 하늘과 푸른4

이유없이  
마음이 끌려



매주 토, 일 밤 9시, 2020년 3월 2일 첫 방영



# 夏



비 맞으러 갈래?





찬란했던 그 순간,

# 우리 모두의 체육대회



##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그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 하루!

어느덧 봄이 끝나가는 5월의 어느 날, 하늘고에는 우리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1년에 한 번뿐인,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학창 시절의 마지막 체육대회인 만큼 설렘과 기대감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形形色색의 반티로 가득 찬 체육관, 교장 선생님의 개회선언과 함께 본격적으로 2019 하늘 체육 한마당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기다리던 여자 피구와 남자 농구 결승전은 학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남학생들의 멋진 플레이는 경기에 긴장감과 재미를 더했고, 피구 경기에서는 숨겨져 있던 여학생들의 매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경기를 보는 모두가 단합해 힘차게 응원하던 하늘인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끼와 뜨거운 열정과 함께 우리는 남은 기운을 모두 쏟아내기 위하여 운동장으로 이동했다.

글 · 경성윤





으랏차차!!







운동장에서 진행된 오후 일정은 응원전으로 시작되어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 주었다. 응원전은 체육대회의 열기를 한껏 더 달아오르게 했다. 씨름경기는 선수들의 열정과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힘으로 우리들을 열광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계주가 시작되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시작으로 선수들의 한 발짝, 한 발짝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마치 육상선수 뺨치는 실력의 선수들을 보며 우리들 또한 선수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응원했다. 계주를 마친 후 모두가 숨죽여 긴장하고 있던 순간, 우승은 'Passion팀'이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체육대회는 막을 내렸다.

글 · 고유진









# 忙中閑

[망중한] ; 바쁜 가운데 잠깐 얻어 낸 틈

## 박기태

1.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문 부수기 전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기 때문에 몸이 흥분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로 B동 안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B동에서 뭘 가져와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B동 문을 오른손으로 딱 당겼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했는데 안 당겨져서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래서 라크로스 채를 던지고 두 손으로 딱 당겼는데 문이 쑥 빠지고 문이 깨지게 된 겁니다.

2. 문을 부숴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딱 쑥 뽑았잖아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면 꿈같거든요. 문고리를 들고서는 고무실로 달려갔고 필터링이 안 돼서 선생님께 엄청 당당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였어요. 여하튼 강봉샘이 너 빨리 행정실로 내려가서 말하라고 하셔서 행정실로 달려갔죠. 근데 이게 제가 값을 내래요. 생각해보니까 좀 비싼 거죠.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다. 그리고 엄마랑 바로 전화해서 약속합니다. 장학금 타겠다고. 근데 그거는 졸업할 때까지 못 드릴 거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B동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B동 친구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B동을 이용하는 선생님께도 죄송합니다. 사건이 있는 후에 사과를 했고, 지금은 매우 심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문을 부수지 않겠습니다.





## ④ 챔피언스리그

### 1.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정세민 : 한 여름밤 새벽 4시에 챔스 4강전, 토트넘 대 아약스의 경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박건우, 정세민, 이한결 이렇게 셋이 보기로 했어요. 근데 중욱이가 오겠다고 하더니 건우까지 와서 결국에는 다 한결이 방으로 모였죠. 전반전 끝날 때까지는 토트넘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골이 들어갔어요. 뭐지? 했는데 이번엔 두 골이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추가시간 95분 24초에! 누가 해트트릭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눈빛만 교환하다가 다 같이 부둥켜안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중욱 : 창문을 열었어요.

박건우 : 그때가 새벽 6시였고요. 이 소리를 듣고 3층에 주무시던 생활관 선생님이 깨신 거죠.

신중욱 : 하필이면 한결이 방이 선생님과 가장 가까웠거든요.

정세민 :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윤진쌤을 호출하셨고 윤진쌤이 방에 들어오시자마자 "쌤 이겼어요!!"하고 환호했는데, 이걸 들으신 선생님들께서 결국 생활관 사무실로 모두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엄청나게 혼났죠.

### 2. 그 때 저지렸던 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신중욱 : 호실 이동, 휴대폰, 노트북, 예그 그리고 고성방가가 있죠.

### 3.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건우 : 중욱이랑 채영이가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고 다른 애들은 다 같이 어깨동무를 했더니 흥분되니까 북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북으로 문을 사용했다~





## 🌈 목이송김 (목소연, 이다영, 송다울, 김예린)

1.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

목소연 : 평소처럼(?) 라면을 먹기로 해서 다 같이 테라스에 나가고 쭈그려 앉아서 라면을 휘적휘적하고 있었는데 가희쌤이 2층 쪽으로 건너오시면서 “거기 3층 라면 먹는 남자애들 다 내려와!!” 이러시는 거야. ‘아 망했다,’ 하고 숨어있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좋다,’ ‘아랫집 남자애들 아니었으면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쌤이 문을 쿵 열고 들어오시면서 그릇 빨리 내놓으라고 하셨어. 라면 그릇을 다 합쳐서 들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숨기려 했다가 냄새 때문에... ㅋㅋ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오셔서 김예린 책상 위 고데기까지 걸리고 ㅋㅋ 분명히 남자애들 내려오라고 그러셔서 안 내려간 건데... 왜 우리 방에 찾아오셨는지... 우리 여잔데...

2. 그럼 이렇게 하기인데 왜 간식을 드시지 않는 거죠?

송다울 : 간식시간에는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고 연장 끝나고 나서는... 연장의 폐해.

3. 호실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일은?

송다울 : 우리 매년 컨퍼 마지막 날에 각자 사오는 걸로 해서 그걸 한꺼번에 같이 먹거든. 크리스피 도넛, 샌드위치, 닭똥집, 과자, 오렌지, 노란통닭 등... 10분? 15분만에 다 먹었을 걸...? ㅋㅋ 안 걸려서 성공적이었지.





## 이카희 선생님

### 1. 천리안이시신가요?

나는 그냥 쓰윽- 한 번 둘러봤을 뿐인데 ㅎㅎ... 내가 시력이 좋지 않아. 근데 그 어두운 상황 중에 그림자가 딱! 비치니까 "어?! 너 내려와!!" 이랬는데 갑자기 여자애들이 후다닥 숨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 나와!" 이랬는데 안 나오고 도망가길래 쫓아갔지. 천리안은 아니야. 그냥 너희가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그래.



### 2. 기분이 어땠었나요? 잔하지 않았었나요?

전혀 잔하지 않았어. 아니 지킬 걸 지키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잔한 거야. 물론 규칙을 어겨 가면서까지 추억을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잔하지는 않았어. 방에 들어갔는데 파스는 무슨... 노력은 가상했다만 불쌍해보이지는 않았어. 음식 냄새는 절대 못 숨겨. 먹은 사람은 몰라. 안 먹은 사람들한테는 냄새가 확 느껴져.

### 3.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나는 공평하게 별점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걸 통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 음,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눈 감아 주시는 거야. 너네도 한창 놀고 싶을 나이인데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으니까... 배려해주시는 거지.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생활관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희한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모든 학생한테 끝까지 잘해주지 못한 거 같아서 미안하고 그냥... 고마워.





# 지현'S STREET

BEST NEW 10% | OUTER TOP SHIRT PANTS SHOES BAG ACC | Q&A REVIEW

## Ji Hyun COLLECTION

편안함을 주는 디자인, 브라운 색상과 체크의 고급스러운 조화.

\*특별 행사 - 블랙 색상 이너 증정 (화이트는 없습니다.)

### NEW SEASON - 30% OFF



★BEST★  
김민중시그니처코트



★BEST★  
미노미노가디건



★BEST★  
최고구마패딩



★BEST★  
큰고니자켓



★NEW★  
규패딩



★NEW★  
남영패딩조끼(화이트)



★NEW★  
성규패딩조끼



김경희가디건(화이트)



김승호보라정장



김창재기하하학



댄스남패딩



성규패딩조끼



심주석레드



연희레드코트



연희슬



이형주시그니처패딩



존카위미룩스타일



프리티지혜조끼



프리티지혜컬렉션



프리티지혜패딩



하늘고바람막이



하늘고체육복



하늘고패딩



하늘고후리스



당신의 ○○은



안녕하십니까..



## 첫번째 이야기... 민중이는 보릿고개...

입학 후 전인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꾸준히 관리해 온 제 텃밭에 관해 씁니다. 고구마를 시작으로 당근, 수박, 참외, 가지, 땅콩, 감자, 고추, 방울토마토, 배추, 무 등의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고 고구마와 감자는 급식실에 조리를 부탁드려 학생들과 선배님들을 위한 나눔도 실천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관리해 온 제 텃밭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제17호 타자였는데요, 이 친구는 제 가을맞이 작물인 무와 배추를 모두 날려 없었습니다. 멀칭(mulching)은 말할 것도 없고 두둑과 고랑은 그 형태를 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훔날리는 배추와 무의 모종은 탈주한 토끼들의 먹이가 되었고요... 학교의 소작농인 저는 현재 보릿고개입니다.

- 김민중 -

## 두번째 이야기... 왜 넌 턱받이 안해?

2학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 내 앞에 경성윤이 앉았다. 경성윤은 비행기를 많이 타 보지 않았다고 긴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하자 만세+박수를 하기 시작한 친구들 때문에 처음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외면했다. 갑자기 장난기가 생긴 나는 의도치 않게 등받이에 떴었다 붙었다 할 수 있는 커버를 보고 턱받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그가 재현이의 등 앞 친구들이 맞다고 하자 “그러고 보니 이거 턱받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건 한 번도 못 들어 봤어”라며 믿는 눈치였다. 그 뒤 음료수가 오자 경씨의 목에는 커버가 달려 있었고 뒤돌아서 하는 “왜 넌 턱받이 안해?”

- 박경민 -





### 세번째 이야기... 다들 보라... 기억하시나요...?

한참 '보라' 얘기로 떠들썩한 시절, 제가 살던 101호는 신발장도 없고, 경사인데다가 화장실 2개에 변기는 1개인 특이한 방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기숙사로 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이 자동으로 잠기는 게 불편해서 수동으로 지내는데 열어 뒀던 옷장이 갑자기 '드르륵 삐-' 소리를 내며 잠겼습니다. 우연인줄 알았기에 저는 개의치않고 다시 문을 열고 옷을 겹습니다. 그런데 옷장 문이 '드르륵 삐-' 소리를 내며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상했죠. 게다가 방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하늘고 괴담이 떠오르더라고요, 성민이가 방에 들어온 후 안도하며 성민이한테 있었던 일을 말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죠. 그런데 그때 다시 '드르륵 삐-' 소리를 내며 다시 잠겼고, 제 얘기를 들었던 성민이는 103호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따라갔어요. 취침 시간이 돼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 어쩔 수 없이 불을 끄고 누워 자려는데 화장실에서 야기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갑자기 닫혀있던 화장실 문도 열리고, 샤워기에서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 뒤로 문이 다시 닫히더니 고요해지더니 여자 웃음 소리 같은 게 들려 저는 겁을 먹은 채로 잠에들었죠. 다행히 그 뒤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 황보은 -

### 네번째 이야기... 런닝머신의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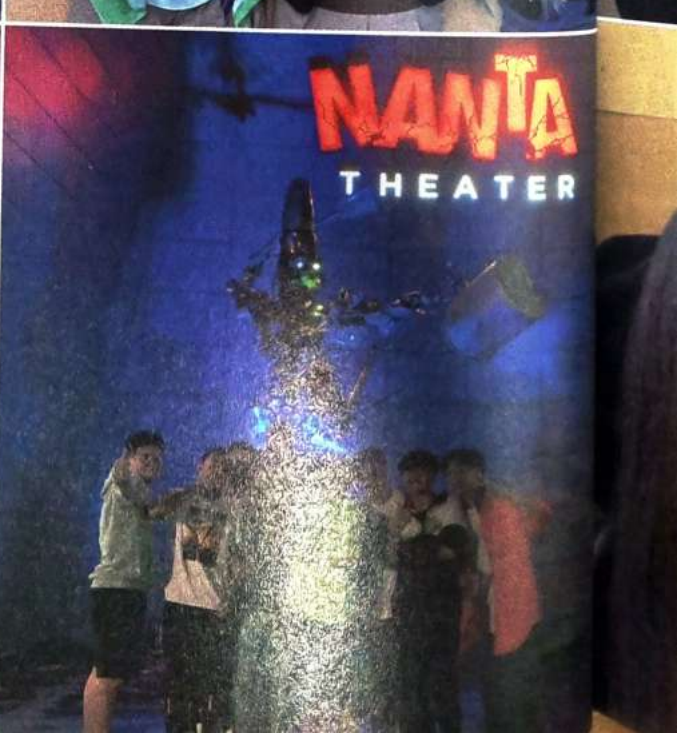
겨울방학 때, 면2에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필통이 없는 거야. 낮에 대회 준비하느라 동아리실에 두고 온 것 같아서 가지러 가려는데 불이 다 꺼져있더라고. 혼자선 무리다 싶어서 생활관 쌤이랑 같이 체육관을 통해서 갔다 오는데 무용실 앞을 지날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 잔뜩 긴장한 채로 체육관을 나갔는데, 헬스장 안 끝에서 2번째 러닝머신 TV가 켜져 있었어. 근데 좀 이상해. 갈 땐 분명 꺼져있었는데.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해주면서 들은 건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그 끝에서 2번째 러닝머신 TV, 고장 나서 안 나오던 거였대.

- 신서연 -



당신의 OO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 아 @ 이 가  
달라졌어요





INTERVIEW

1. 인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우선, 제가 중학교 땐 별로 말도 없고 낯도 많이 가려서 살짝 말을 못 거는 스타일이었는데, 품격교육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냥 처음 보는 룸메한테도 막 반갑다고 만나자마자 소리 지르고 ㅎㅎ 반 친구들이랑도 사실 별로 안 친한데 먼저 인사 걸고 반가우면 막 끌어안고 그랬던 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미스 8기로 선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뽑았던 그때가 면학실 자리 바꾸는 날? 그날 효진쌤께서 공지하셨는데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전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공지가 저희 반 앞자리에 붙었었나 봐요. 저희 반 애들이 그걸 보고는 '이건 현희A 시켜야 한다.' 해서 단합을 했던 말이 조금 돌았는데, 아마도 그거 때문에 된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3. 바뀐 인기에 대해 실감하시나요?

사실 크게 바뀐 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뭔가 지나갈 때 친구들이랑 반갑게 인사하니 기분도 좋고 반가울 때 더 격하게 감정 표현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4.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한마디!

너희도 될 수 있다!

BEFORE

AFTER



오늘의 주인공

정현희

전: 영종중 쭉구리



오늘의 주인공

정현희

후: 하늘고 미스 8기(18)(女)



INTERVIEW

1. 예전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학기 초에는 공부에 관심도 없고 애들이랑 놀기만 했는데 중간고사를 딱 보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 성적에. 그래서 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화장도 안 하고 노는 것도 싹 끊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2. 예전처럼 다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을 붙잡게 했던 일이 있나요?

당연히 놀고 싶단 생각이 들지. 시험 끝나는 날만 기다려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수학 수업 중에 민연쌤께서 나를 가리키시면서 지나를 보라고, 핀 꽃은 걸 보라고, 공부할 거면 저렇게

하는 거라고, 지나는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원래도 민연쌤을 되게 존경하고, 멋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칭찬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칭찬을 듣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기말고사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

3. 김민연 선생님께 한마디!

민연쌤ㅠㅠ 제가 중3으로 돌아가더라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고 원서접수를 할 거예요. 쌤 선생님 덕분에 수학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 선생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 행복하세요. ♥

BEFORE



AFTER





INTERVIEW

1. 2학년 여자 선배들에게 인기가 많으신데 자

신의 치솟는 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뇨 전혀... 앵? 그짓말 같아. 살짝 부담...(?) 모르겠다. ㅎㅎ 낮을 가리지만 마음이 열리면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다가와만 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2. 무대에서 어떤 기분이 드나요? 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선배들,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해서 하는 무대인데 실수를 하면 크던 작던 어쨌든 실수니까. 그리고 체육대회가 제일 큰 무대이기도 했고 우여곡절이 많은(?) 무대였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모든 일을 항상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친구들과 선생님과 선배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댄스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4. 춤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7살 때 집 앞 문화센터에서 방송 댄스를 몇 년간 했었고 그전에도 아빠 핸드폰에 손담비 토요일 밤에 춘 영상이 있더라고요. 중학생 댄 남중이어서 댄스부라고 하기에 뭐한... 그런데 그때 트와이스에 미쳐있을 때라서 집에서 혼자 미친 듯이 했어. 그러다가 노래방 가면 땀 터뜨려주면서 살았지. 지금은 너무 좋아. 춤출 곳이 많거든.

(외전) 인터뷰가...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입에서 나오는 건지... 살짝 코딱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재홍 쌤 사랑해요.

BEFORE



오늘의 주인공★  
**채문철**

전: 모범생 소년

AFTER



오늘의 주인공★  
**채문철**

후: Muzik is My liFe~♪  
소년(17)(男)



INTERVIEW

1. 잦은 일탈로 추락한(?) 이미지에 대해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처음엔 컨셉을 잡았거든. 그래서 조용하고 엘리트한. 주위 친구들도 그런 애가 했대.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아닌 거지. 무단 외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내 이미지는 바뀌었어. 후회하진 않아. 조용하게 살았으면 내가 중학교 때랑 확 다르게 산 거잖아. 그럼 답답했을 거 같아서 차라리 지금 이 이미지로 사는 게 원래 내 이미지에 딱 맞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

2. 중학교 때에도 일탈을 하셨나요?

하늘고 뽕히고 나서 막 놀았어. 다들 예술제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안 했거든. 근데 예술제 준비를 하면 학교 수업을 빠져도 된단

거야. 그래서 친구랑 그거 핑계 대고 나가서 노래방 가고 PC방 갔다가 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어, 안 들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랬었어,

3. 이미지 관리 안 하실 거예요? 이대로 가실 건가요?

퇴사했을 때, 집이 서울이라 공항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새벽 4시 반에 준비해야 했어. 일주일 일을 그렇게 등교하다가 몸도 힘들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서 주변 호텔에서 20일 정도 묵었어. 여기가 돈이 조금 더 들긴 했는데 몸이라도 편해지고 싶었거든. 그때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 더는 부모님을 고생 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일탈하지 않으려 해.

BEFORE



AFTER





# 목지빠

## INTERVIEW

### 1. 목지빠가 결성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다빈: 처음에 옷을 잘 입으셔서 반했고 애들을 포섭해서 팬클럽을 만들었어.

### 2. 시험이 끝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와 변천사는?

이다빈: 1학기 말에 회원 수가 2자리를 돌파했어. 베이비 붐처럼^^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를 대부분이 망치고 회원 수가 반 토막 났어. 남은 회원들도 화난 상태였는데 기말고사에 정점을 찍었지. 그래서 목지빠가 암살단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묵묵히 지현쌤 빠이빠이로 이름이 바뀔 뻔했는데 다시 마음이... ㅋㅎ

### 3. 올해의 덕질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리고 내년의 발전 계획은?

사수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아쉬웠어. 내년엔 프사 같이 찍고 싶어.

이다빈: 세계지리 1등은 내 거. (박준성: 그거 제 건데요)

### 4. 자신만의 덕질 성공 썰 좀 풀어주세요.

박준성: 같이 농구 한 거.

사수현: 동아리를 찾아오셔서 “수현이 있니?” 하시곤 상담해주셨어.

배민경: 마지막 수업 때 울지 말라고 해주신 거.

이다빈: 생일 때 장문 편지 받은 거. 쌤목보 나간 거. 선폐 받은 거. 뭐, 내가 제일 친하지 않나? (훗)

### 5. (앞에 선생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지현 선생님께 한마디!

박준성: 1년 동안 너무 재밌었고 내년에도 수업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다빈: 지리 싫어했는데 덕분에 새로운 과목의 길이 열렸어요.

## BEFORE



## AFTER





개인 광고 면입니다.

# 하늘고의 소문난 작명인 “한재홍”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며  
별명이 튀어나와  
소름끼친다고  
소문난 작명소



☎ 작명상담안내 ☎

★방문 시 예약필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대로277번길 117

TEL : 010-8888-8888

E-mail : zzaihongnamejia@haneul.narae



# 春



남이 밤을 갈래?  
밤을 갈래?





하늘고등학교

# 고민의 숲

## 고민의 숲 이야기

고민의 숲에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오리, 너구리, 개, 돼지 외 4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만큼 고민도 많고,  
고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다.  
동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 최고의  
상담대원들이 찾아간다. 과연 이들은 동물  
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숲의 평화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 오리를 혐오하는 익명의 오리

오리라고 놀리지 말아요~

친구들이 자꾸 저를 놀려요. 일단 사람 생긴거보고 자꾸 오리닭았다고 놀리고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질않고 항상 오리라고 불러요.ㅠㅠ 근데 요즘은 차라리 오리라고 불렀을 때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세상 이상한 별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평소엔 괴상한 짓 한다고 '괴리'라고하고요. 밥먹을 땐 '똥리'고요, 세상 리로 끝나는 모든 말로 저를 놀립니다. 제가 기리보이를 좋아하는데요, 귀리보이라고 부르며 기리보이를 잡곡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리리리자로 끝나는말은?' 하는 노래 아세요? 그 노래 만든 사람이 원망스러운 요즘입니다.



### 상담대원 임현아

그게 고민이나 ㅋㅋㅋ 일단...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느낌...? 내 존재가 어느 정도 임팩트 있다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물론 그거에 대한 속상함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친구들이 그냥 너를 00라고 다시 불러준다면 너도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거알지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아저씨가 별명 겁나 많았던 거, 그거 보면서 '아, 박명수가 사람들한테 엄청 큰 존재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았니...? 김오리야! 그냥 별명을 불러 줄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길 바랄게^^







## 조선에서 온 익명의 유교걸

걸걸 헤이 유교걸~ 삼강오륜 봉우유신 댓걸!

고등학교에서 남녀 합반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어색해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자 친구들하고는 친하지만 남자 친구들과 너무 안 친하다보니 반에서도 약간 위축되어 있고 짝이라도 같이 하면 정말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해요. 어느 정도로 안 친하냐면 저희 반 친구 중에 인사하는 친구가 1명도 없고, 말도 안 해본 친구도 되게 많고, 대화를 해도 두 마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어색한 사이가 많답니다. ㅏㅏ 그 아이들과 짝친을 먹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라도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상담대원 박서현

남녀합반이 처음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너의 주변에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남학생들하고 잘 지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야. 억지로 “친해져야지.” 하고 스트레스받지 말고 조금 가볍게 생각해봐. 그리고 어색한 대인관계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잘 알고 있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수록 친해지기 더 힘들다고 생각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부터 줄여야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 익명의 소크라테스

요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나도 날 알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 상담대원 어무니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나도 너와 같은 나이 쯤 이었던 고등학교때 고민하며 나를 다시 돌아볼 때가 있었고 지금도 고민하게 되고 갈등한다. 아줌마는 잠시 바쁨의 일과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우선 순위의 일들을 적고 그 일들을 위하여 인내하며 후회하지 않을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긍정의 지혜로움으로 삶의 목적을 향해서 한걸음씩 걸어간다면 설령 실패하더라도 나를 위한 삶이 남을 위한 삶이 되기도 하고 나를 위한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 나를 위한 삶이 욕망과 욕심이 아닌 선한 열정이 되고 꿈이 되어 작은 한걸음부터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며 바라며 기다릴게. 그 일을 위하여, 그 날을 위하여 빠샤~~♥





## 살이 찌서 슬픈 익명의 지방이

떨레야 떨 수 없는 살...

자꾸 살이 찌는데 어떡하죠?



### 상담대원 박서연

학교에서 이동 거리가 아주 짧고 하루에 절반은 앉아 있다 보니까 살이 쉽게 찰 수밖에 없어. πππ 일단 매점 가는 횟수부터 줄여보자. 생각보다 매점에서 쓰는 돈이 꽤 커. 군것질만 안 해도 살 쉽게 안 찰 거야. 더는 살이 안 찌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매점 안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만약 살을 빼고 싶다면 쉽진 않겠지만 틈틈이 운동하는 걸 추천해. 아침 운동이나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



## 당신만을 바라보는 익명의 해바라기

사랑인가요~ 맘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분명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이런 고민을 올려 봅니다. ㅎㅎ 좋아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지금 2학년 입니다. 우연히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 룸메, 친구...그 누구도 모르는 혼자만의 짝사랑 중입니다. 그 선배는 아마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실텐데, 멀리서 바라만 보는 짝사랑이 좋기는 하지만 심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 감정, 어쩌면 좋을까요?



### 상담대원 천도현

샘이 말해주고 싶은 포인트 첫 번째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야. 이게 지금 순간의 감정일 수도 있어. 당장 내일 또 다른 선배가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만큼 나를 가꾸자!' 나에게 10만원의 돈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는데 쓰고 싶다면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 샘이 제안하고 싶은 방법은 그 5만원으로 나의 가치를 올리자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그 사람의 눈이나 귀에 들도록 행동을 하면서 나의 존재를 알려가는 거지. 이 방법은 그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거지만 단순히 짝사랑에 마음 답답해하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높이면서 짝사랑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기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 했던 방향으로



흘러서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갖고 가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정리하자면, 지금의 감정이 순간적인 것인지 진짜 감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해하지 말고 기다려보면서 그 시간 동안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면서 그 사람 주변에 내 향기를 퍼트려봐. 시나브로.. 혼자 끄꿍 앓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도전하는 거지. 오케이?



### 의사가 짜증나는 익명의 맹구

콧물이 주르륵 주르륵 빛물이 주르륵 주르륵~

밥 먹을 때마다 콧물이 줄줄 나와서 밥에 집중을 못하겠고 너무 없어 보여요. 어떡해요,,,??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는데 진짜 이상한 건 의사인 것 같아요.



### 상담대원 임다소

안녕! 우선 콧물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겠다. πππ 내가 인터넷으로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콧물은 비염 때문일 수도 있대! 시간이 된다면 병원이나 약국에 들려서 비염 약을 사보는 건 어때? 그리고 멈추지 않는 콧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자신이 짱구의 '맹구'가 되었다고 생각 해봐 실제로 인터넷에 '맨날 콧물이나 찢찢 흘리는 맹구가 알고 보면 진짜 매력남 이라는 증거 4가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매력적인 캐릭터인 맹구처럼 당당하게 콧물을 흘리신다면! 분명 그것마저도 너의 매력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 ^\_\_^



### 혼란스러운 익명의 고슴도치

내가 날 모르는 것처럼...

친구가 너무 싫어졌어요 딱히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는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몇 달 전까지도 잘 지내고 재밌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싫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같은 하늘고 학생이라 앞으로도 보면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담대원 우아한

음, 친구가 갑자기 싫어졌다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 번 차근차근 생각해봐.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싫어지지는 않을 거야. 서운한 일이 쌓였거나 원래부터 성격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 가뜰이나 우리 학교는 하루 종일 붙어있을 수 밖에 없을텐데 정말 힘들 것 같다. ㅏㅏ 하지만 내가 사소한 이유로 그 친구를 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고민해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가끔 정말 예민해질 때가 있어. 나도 그렇거든. 더욱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이 좋게 지냈던 친구라면! 학창 시절 소중한 친구를 잃지 않기를 바랄게 :)



### 분홍신 신은 익명의 고3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중학교 때부터 약 3년 동안 희망한 진로가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는 지금 알게 되었어요. 이후 다른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는데 이미 과목 선택은 끝나 있고, 수시를 버리자니 지금까지 쌓아 온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지금 생각하는 진로도 과연 적성에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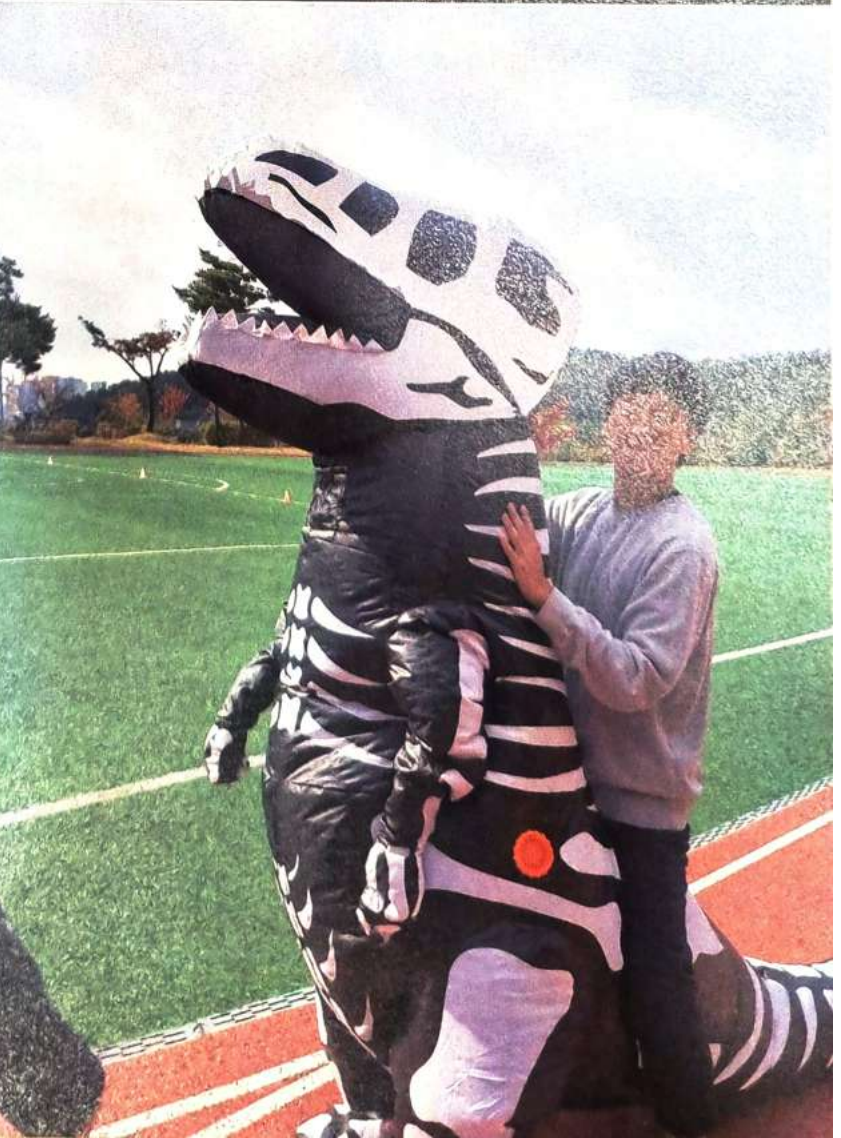
### 상담대원 최상규

고등학교 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사실 선생님도 내가 뭘 잘하는지, 진짜 하고 싶은 건 뭔지, 40년이 넘게 고민하고 있어. 분명 앞으로 수십번이 넘게 너의 진로와 희망은 바뀔거야. 그 때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늦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야. 우리는 고3만 되어도, 대학생만 되어도, 진로를 변경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 그리고 과목변경은 이지현쌤과 상의하길 바란다.











편	지	할	게	요
---	---	---	---	---

띵-동!

하늘고 학생 여러분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교원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답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애정 가득한 팬레터부터 조금은 따끔한 일침이 담긴 말들까지  
 모든 교원평가에 대한 답장이 담겨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편지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편지할게요~♪

① 선생님께 바라는 점

무섭.

RE :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자주 하는 학생일수록 나를 어려워하던데. 요노음.

② 선생님께 바라는 점

근대 썰 좀 더 풀어주세요

RE : 근대 갔다 온 지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정말이지 이전 더 이상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③ 선생님께 바라는 점

너무 까다로워요.

RE : 살면서 내가 까다롭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일깨워줘서 고맙습니다.  
 실험실에서 머리 묶고, 얇이 막힌 신발을 신어야 하며 실험기구 다룰 때 장갑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제 안전이 아니라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잔소리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했을 때 잘 지키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다치고 열폭하게 하지마시고요. ^^ 어찌 보면 저는 무감각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까다로운 성격을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 ④ 선생님께 바라는 점

가끔 덤벼거리신다.

RE : 그것은 1반부터 8반까지의 모든 반에서 이루어지는 치밀하게 짜인 연기.

#### ⑤ 선생님께 바라는 점

당신이 내는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RE : 응디 아... 예...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말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은 항상 안내해왔고, 그래서 까다롭게 낸다고는 내는데 여러분들이 평균 70 이상은 그냥 찍어버리니 저도 모르게 '이거 내 문제가 너무 쉬운 건 아닌가'하고 고민할 때가 가끔 있긴 해요. 그래서 더욱 난이도 파이팅하는거고... 결론적으로 니들이 공부할 너무 많이 하는 거다...

#### ⑥ 선생님께 바라는 점

현실적으로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

RE :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대의 지금을 보면서 어찌 현실의 이야기만 해야 하는가 싶어, 그대가 당연히 마주하게 될 미래를 칭찬하고자 축복하는 말들로 그것을 대신하는바,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므로 그대의 미래를 이상적으로 그리는 나의 말에 그대가 마주할 모든 현실을 맞추어 나갔으면 하여, 그대의 현실을 내 입으로 뚫고 싶지는 않은 마음에 '현실'이라는 것은 나의 말에서 잠시 빠져 있노라.

#### ⑦ 선생님께 바라는 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감정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RE : 공감 능력이 좋은 어린 양이로구나. 옆에 아홉은 그대들 덕분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인데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니 나로서는 다행인가 하노라.



### ① 선생님의 좋은 점

선생님... 교육 활동 소개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쓰시면 어떡합니까... 만족도 조사하다  
는 불운을 뵈냈잖아요... 참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그 주먹왕 랄프에 수리공 닮으셨어요.  
다 고쳐 펄릭스 거기 나오는... 한 번 찾아봐주세요.

RE : 주먹왕 랄프 못 봤는데 방금 찾아봤어요. 약간 슈퍼마리오 닮았네요. 이따가  
따져 보고 올게요.

### ② 선생님의 좋은 점

항상 분위기를 잘 풀어주시고 수업을 들을 때 뭔가 수업과 관련이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선생님의 비피처라는 것이 선생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으로서도 좋지만 한 사람으로서도 정이 많은 좋은 분 같습니다.

RE :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하느라 매일, 아니 지난  
몇 년간 피나는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누군지 꼭 나타났나 줄래?

### ③ 선생님의 좋은 점

쌤 진심진심 웃긴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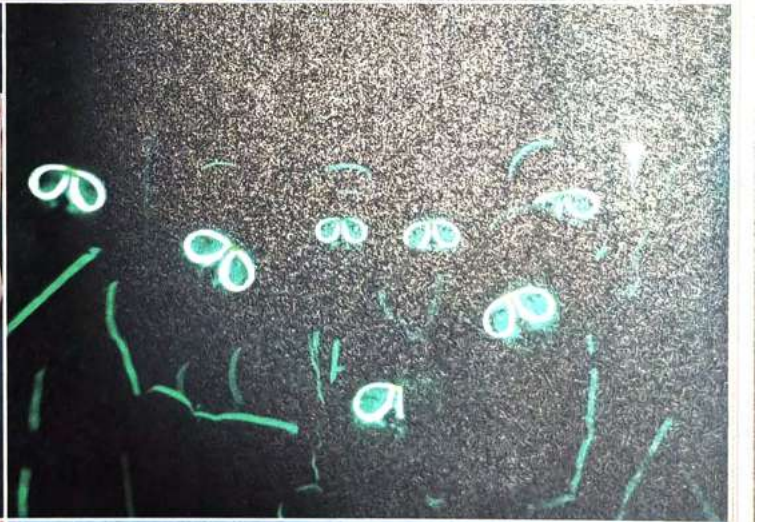
RE : 오해야~ 나는 수업으로 승부하는 사람이거든. 웃음기 싹~뻗.

### ④ 선생님의 좋은 점

쌤 3년 동안 수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궂이 학습 자료 항상 큰 도움 받고  
있어요. 함축의미 파악 파트 약했는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귀여우시고 웃 센스가  
1000000점이신 쌤 최고.

RE : 함축의미는 사실 상업용 문제집에도 없더라구요. 자료는 은밀하게. 공부도 은밀  
하게. 웃 입는 건 요즘 대세 귀안꾸를 지향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과하지 않고  
심플한 비이멀리즘 스타일)







# 제주의 향기는,

당신이 공항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발목에 은은히 감기는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여 부지런히 제주에 날아온 하늘고 학생들은 제주 원주민들의 마중을 받으며 발을 디뎠다. 맑은 하늘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맑고 충분히 좋았다. 부스스 묻어나는 그 웃음들과 붕 뜬 공기가 사랑스러웠고 어느 곳에서나 카메라를 들며 해사하게 미소짓는 그 얼굴들이 가장 아름다웠다. 제주란 그런 곳이고, 우리의 수학여행은 그런 여행이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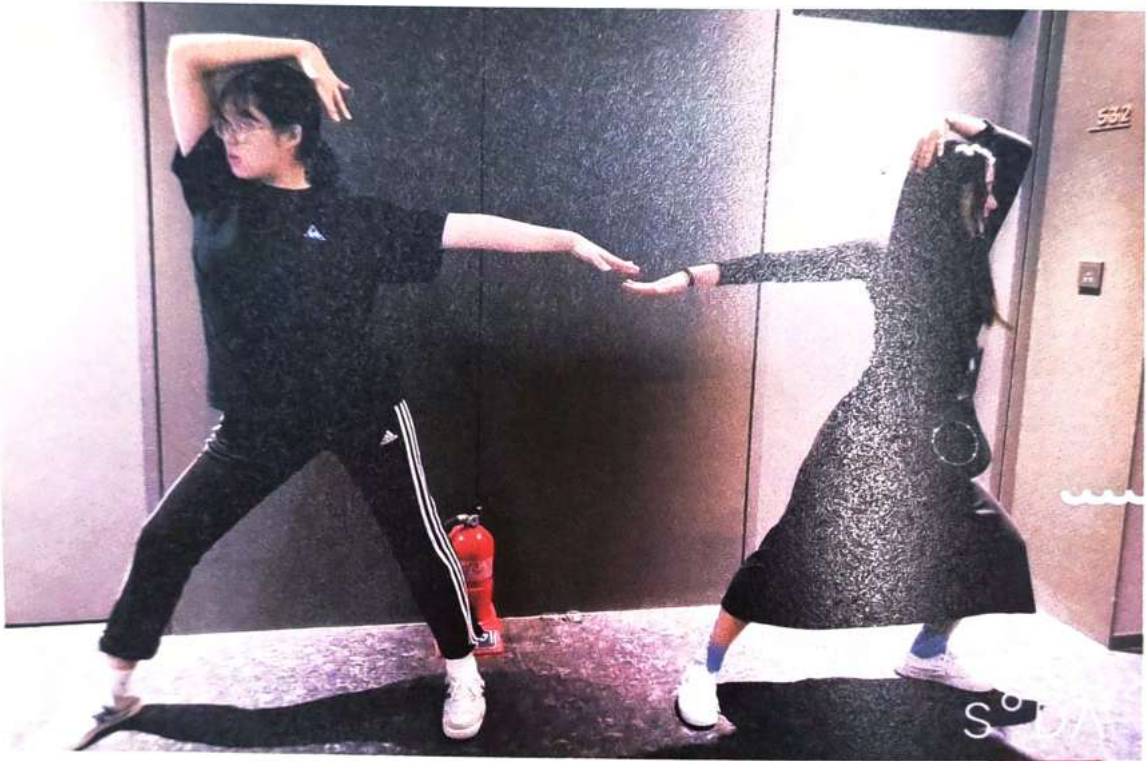


카트를 통해 유명하다는 이곳의 바람을 느끼고, 자신의 질주본능과 운전에 대한 소질을 깨달았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함덕 해변에서 우리들은 셔터를 눌렀다. 희뿌연 하늘에 희미해진 지평선 앞에서 조금 아쉬웠을지는 모르나 그래도 괜찮았다. 우리는 아직 제주의 문턱에 발을 걸친 셈이었고, 우리에게겐 시간이 많았으니까.

지금까지의 수학여행 역사 중 유일무이했다던 레크레이션 역시 특별했다. 아름다운 노래, 웃음을 멈출 수 없는 연극, 인상적인 공연들로 채워진 반별 장기자랑의 우승은 그 아이디어부터 독특했던 2학년 8반 수중발레팀이 가져가게 되었다. 마음 가는 대로 춤을 춰가며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고, 친구를 바라보며 소근거리고 무대를 향해 이름을 소리쳐 불렀던 첫째 날의 밤은 그렇게, 즐거웠던 만큼 잡히지 않을 정도로 아득히 저물었다.











마냥 기쁨만을 즐겼던 우리가 잠시 숙연해져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 바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했을 때이다. 오랜 기간 잊고 저편에서 오랫동안 삭혀져야 했던 고통과 알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이야기했으며 침통한 마음으로 이미 가버린 이들에 대해 묵념을 했다. 결국 일찍 복상하는 태풍에 조금은 일찍 비행기를 타버렸지만, 아쉽지 않다면 그것 역시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괜찮다. 우리는 적어도 제주에서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었고, 그 한순간은 제주를 채우고 우리의 뼈와 살을 이룰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니까.

글 - 김설지



# 우리 마음속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시간



고등학교에서 처음 가는 봉사활동으로, 걱정과 설렘을 가득 안은 채 꽃동네에 갔다. 첫날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게임을 했다. 재밌는 시간을 보낸 후, 의미 있던 수녀님의 강연도 들었다. 그 후 '장애체험'을 했다.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입을 닫은 채 오로지 벽을 짚을 손만 이용하여 앞으로 걸어갔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니 두려웠다. 내가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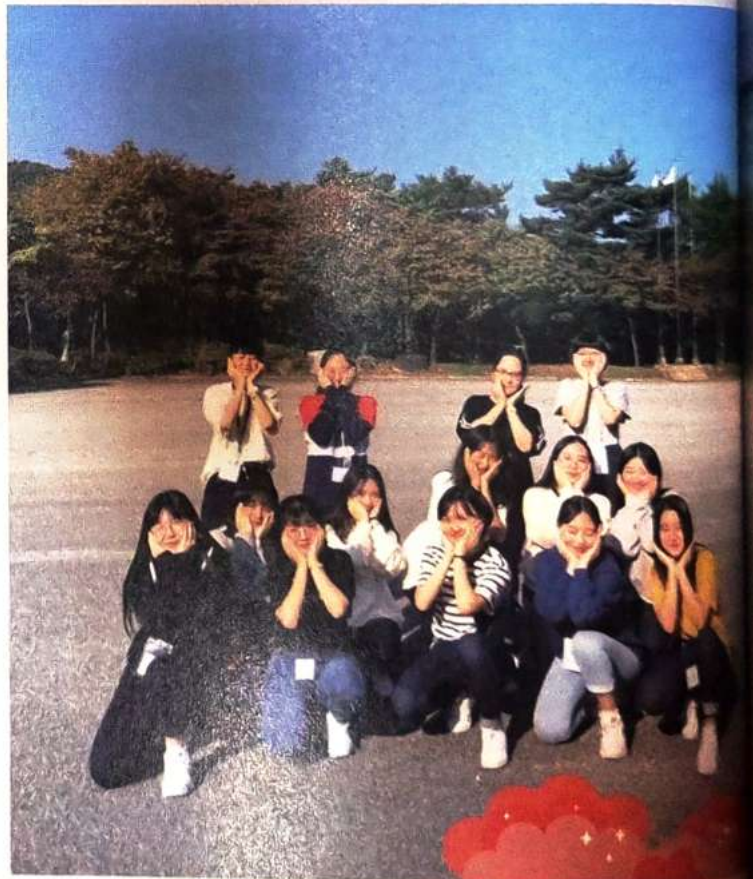




둘째 날엔 꽃동네의 하이라이트인 봉사 활동을 하러 갔다. 나는 '인곡 자애 병원'으로 봉사를 하러 갔다. 그곳엔 몸이 안 좋아 병실에 누워 계시던 분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분들을 위해 청소를 하고 밥을 먹여 드렸다. 비록 소통은 하진 못했지만, 밥을 먹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이런 봉사를 통해 도움을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른 곳에서의 봉사 활동은 어땠는지 궁금해 같은 반 친구인 '하지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저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 ‘애덕의 집’으로 봉사 활동을 갔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 한 할머니께서 지나가시길래 인사를 했습니다. 꽃동네 인사말이 ‘사랑합니다’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어차피 오늘 하루만 있다 갈 건데 왜 사랑하냐고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했어요.”

이렇게 꽃동네에서 2박 3일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져 꽃동네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

글 - 정채윤 ✨



개인 광고 면입니다.

2019 연말정산

# HANEUL AWARDS



2019년의 주인공을 130페이지  
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라!

1부 - 올해의 하늘 / 2부 - 하늘 빅이슈

( 감탄의 ) ( 감동과 ) ( 2019년을 ) 하늘고를  
연속 재미 연시 빛낸 기요



冬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래?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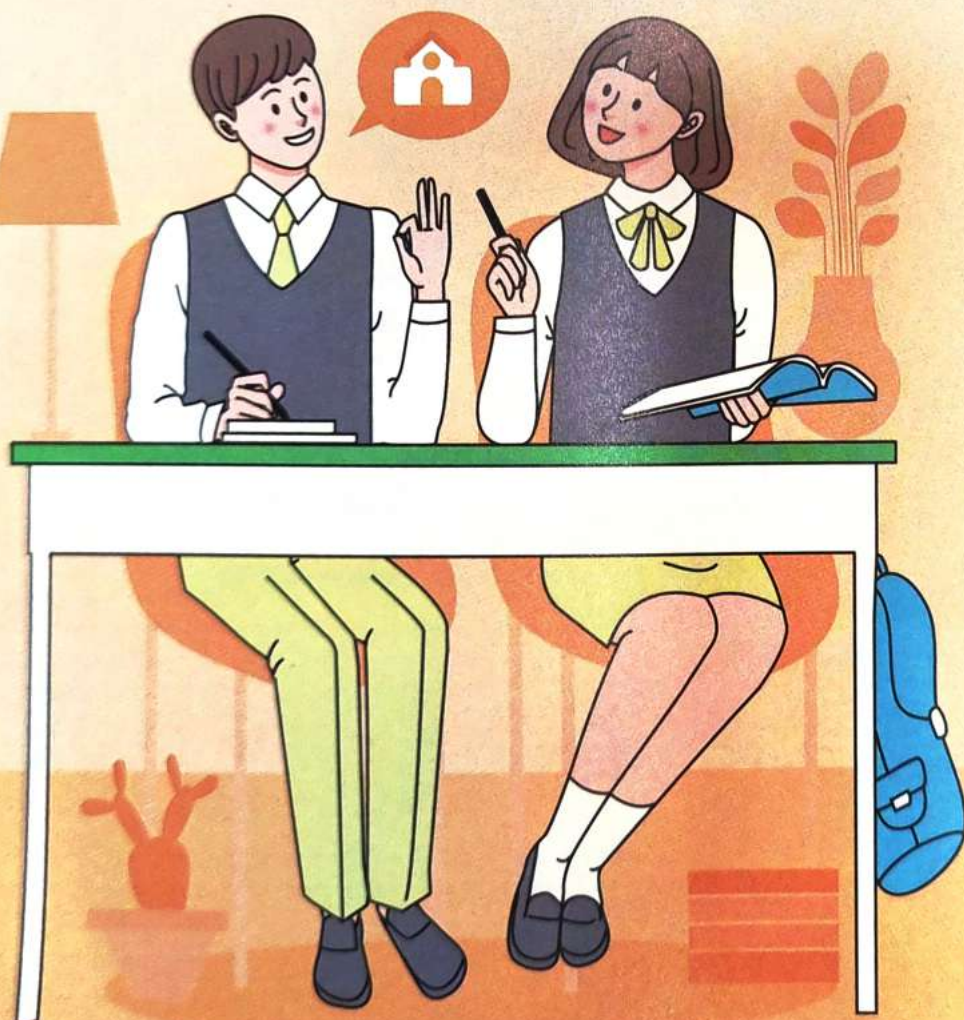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선배는 죽어서  
전설을 남긴다.**

-선배...선배???선배!!!-

-선배의 족적-





## Q1. 솔직하게 서로의 능력을 평가해주세요

한동엽 : 순호는 팀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의견 조율이나 역할 분배, 의사소통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김순호 : 동엽이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까지,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 아는 게 정말 많아요! 또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금방 인터넷으로 찾아 배우고 활동에 적용하곤 했는데, 이것이 동엽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 Q2. 공학 분야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

동엽 : 자신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인지,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인지 되물어 본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길 바라요. 이것저것 손발 담그다 보면 나중에 견잡을 수 없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되거든요 ㅎㅎ. 진로목표가 확실하면 더 좋아요.

순호 : 저는 작은 목표라도 하나를 정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랑 동엽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 출입이 제한되는 교무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교무실 통신기' 제작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IIP와 같은 학교 특성화 활동에서 단지 수업만 듣고 그치는 거 보다, 이렇게 혼자 고민하고 시도해보는 경험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 변외 -----

1. HAM 기장을 정할 때 가위바위보로 정했다고 들었는데 김순호 후회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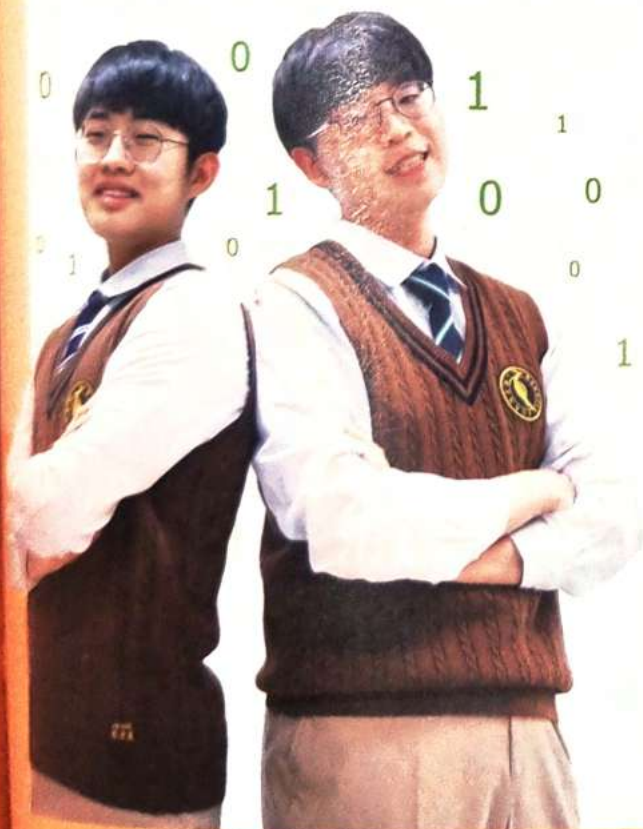
\*참고: HAM 기장 한동엽, 부기장 김순호

순호 :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때론 기장의 권력이 탐나긴 했지만, 이리저리 바쁘게 불러 다니는 기장보단 동아리의 실세이자 부기장으로 사는 게 더 편하더라구요. ㅎㅎ

2. 작년에 교지편집부 외장하드 못 고쳤을 때 자존심 상했나요?

\*참고: 2018년, 교지 마감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모든 파일을 담고 있던 외장하드가 고장이 나서 일단 뭔가 방법을 알 것만 같은 사람들(김순호, 한동엽, 최진혁)을 급하게 데려왔다. 그러나 외장하드를 고치지는 못했다...

동엽 : 사실 아무한테도 안 말했는데, 이날 좀 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던 것 같기도...ㅋㅋ 하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진로에 대한 열정을 키웠던 거 같아요!





## 수학에 美친 어린왕자, 김준희

선배...선배???선배!!!

### Q1. 수학에 빠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애매한 개념이나 어휘, 선지로 저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고, 노력한 만큼 점점 더 풀이 과정이 정확해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보며 뿌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어 느낀 수학의 진짜 매력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이 고3이 되어서도 면학실에서 툼툼이 Calculus를 비롯한 전공 서적을 보게 한 원동력인 것 같아요ㅋㅋ.

### Q2. '수학 천재' 라는 수식어는 재능 or 노력?

80~90%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수학에 흥미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낯선 문제를 접하더라도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계산 속도가 향상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저에게 타고난 것이 있다면 아마 수학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능력(?) 정도인 것 같아요.

### Q3. 선배의 길을 따라갈 후배들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학을 딱딱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수학을 문제 풀이 이외에도 재미있는 생활 속 수학이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접해보는 것도 수학과 친해지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친해지는건 조금 어렵지만, 막상 친해지면 개념을 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 풀이까지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 Q1. 어떤 패턴으로 학교생활을 하셨나요?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저의 패턴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그저 공부하는 시간에 딴 짓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었어요. 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생활 패턴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신 시험기간에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연장을 하고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을 시험 전 2주 동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활한 이유는, 도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로 하늘고등학교에서 높은 등수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도전해 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지킬 수 있는 저의 패턴을 만들고, 그것을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정말 꾸준히 한 저는 로봇이라는 별명도 얻고 성적 상승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Q2. 생활패턴에 영향을 줬던, 큰 위기였던 유혹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활패턴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순간은 고3 수험생활이었어요. 수능 2주 전에 반 친구들이 민희쌤과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했고 너무나도 지쳐있고 힘들었던 저는 6반 친구들과 함께

명륜 진사 갈비에 갔다왔답니다. 근데 저는 갈비집을

갔다온 것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그만큼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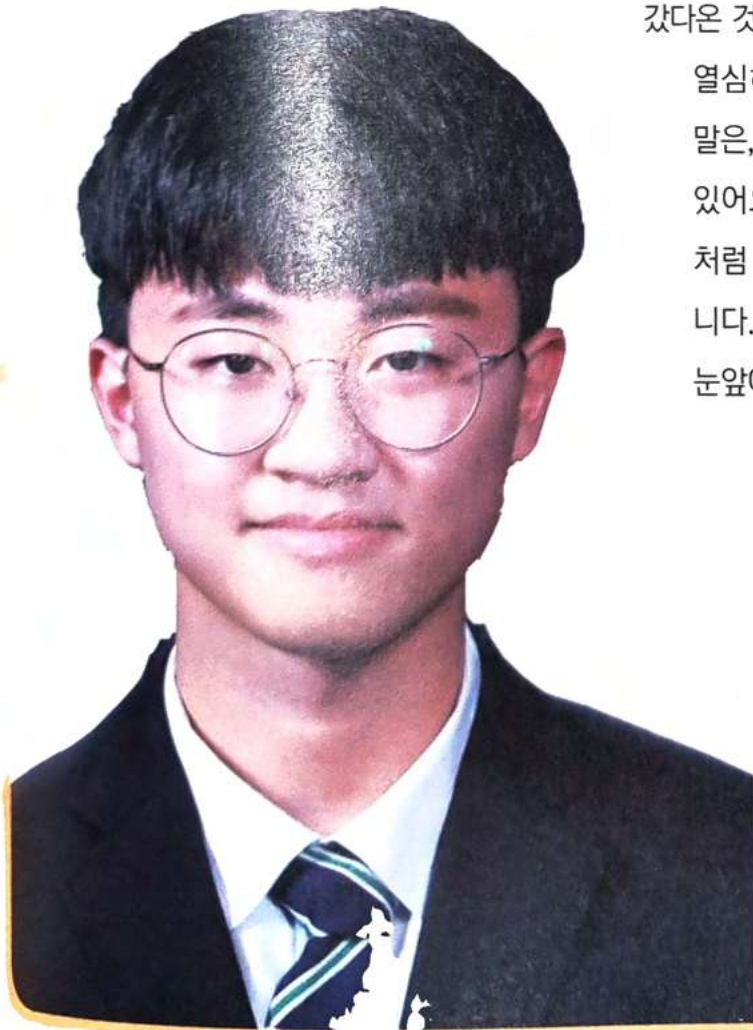
말은, 저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저

처럼 열심히 그 일에 도전해 보라는 것입

니다.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일에 열심히 도전해보세요!





## 바른 생활 김잡이, 신혜원

### Q1. 어떻게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되셨나요?

저를 바른 이미지로 봐주셔서 감사해요ㅎㅎ. 그렇게 인식된 이유 중에 인사를 열심히 한 게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제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크게 속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꼭 상대방에게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제가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인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저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를 잘해야겠다는 다짐은 제 안에서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 Q2. 평소의 이미지 때문에 오해나 편견이 있었나요?

친구들이 “모든 사람에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 부러워...”라는 말을 저에게 자주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한테 다가가야 할 때나 인사할 때 너무 떨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인사해주는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 Q3 바른 생활을 위해 했던 노력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 단계가 인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 저와 인사했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밝게 인사하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 나의 꿈을 찾아서, 오승연

### Q1. 많고 많은 예체능 중에 춤이 가장 끌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춤을 선택했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좋아하고 실제로 미술을 하기도 했었지만 자연계열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춤이 특별해진 계기는 수많은 공연 경험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 따라 춤을 시작했는데 대회를 많이 준비했었고 학교 축제도 항상 나갔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고, 무대에 섰을 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최고였거든요. 아마 제가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지금은 존경하는 댄서분들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거워요.

### Q2. 주변의 목소리나 걱정애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춤에 대해 저 자신에게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실력이 떨어질지라도 연습하면 목표한 바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요. 연습하면 하는 데로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며칠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게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자신감을 주었어요. 춤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같이 활동하게 된 댄서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각자만의 프라이드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그 모습을 본받게 된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 Q1. 지금까지 썼던 글중 가장 의미있었던 글은 무엇인가요?

KOICA 청소년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세상을 바꾸는 작은 날갯짓'이 여러모로 가장 의미 있었던 글입니다. 제가 학교생활을 하며 세계시민으로서 노력했던 것들을 모아 하나로 엮음과 동시에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저의 포부를 담은 글이었는데,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하며 저를 돌아볼 수 있었고, 부상으로 주어진 스리랑카 현장견학의 기회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던 소중한 경험(이자 도현쌤과의 추억)이었기에 이 글을 가장 의미 있었던 글이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Q2. '건물녀'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뭐든 다 건드려보는 스타일이신데 뭐가 가장 즐거웠나요?

저는 모든 학교생활이 다 즐거웠어요. 제가 이처럼 많은 활동들을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저의 입시를 위한 '스펙'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고, 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좋고 재미있어서 참여했던 다양한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변외: 도현쌤 빠순이... 은퇴하실건가요?

사실 빠순이는 은퇴한지 꽤 되었고, 작년부터 도현쌤 매니저로 이직해 현재 2년째 열일중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렇게 관계가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4년 뒤에는 아마 교생과 지도교사로 만나게 되겠죠? 앞으로도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 Q1. 뮤지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답은 꽤나 간단해요. 1학년 3월, 컨퍼런스데이 때 우연찮은 기회로 뮤지컬 '영웅'을 관람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관람한 뮤지컬이었죠. 저는 이 뮤지컬에서 넓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배우들의 성량과 뮤지컬 넘버의 웅장함에 매료되었고 이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 Q2. 하늘고에서 뮤지컬 실력을 키우기 어려웠을텐데 계속 뮤지컬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기상 → 수업 → 면학 → 수면'으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루틴에 저는 지루함을 느꼈어요. 뮤지컬은 이에 대한 저만의 돌파구였죠. 뮤지컬 넘버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었고, 남들이 발라드를 부를 때 저 혼자 뮤지컬 넘버를 불렀어요. (시끄러운 저를 받아줬던 제 기숙사 룸메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ㅎㅎ)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미 생활은 하늘고에서의 3년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고 더불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저는 뮤지컬 덕분에 EBS 장학퀴즈에도 나가 보고, 학교 축제 무대에서 보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취미 생활을 해야겠죠? 이제 3학년이 되는 8기 친구들, 막내에서 벗어난 9기 친구들, 그리고 하늘고 학생이 되는 10기 친구들까지.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기 바라요!





## Q1. 역사 싫어하는 학생이 많은데, 역사에 왜 그렇게 미쳐있나요?

역사의 매력을 물어보는 거죠? ㅎㅎ 역사는 거미줄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교과목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역사를 연결 지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학과 수학에서도 각각 문학사와 수학사가 존재하고,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단일 교과목으로서의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도 재미있지만,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다른 교과목 속에서도 역사를 공부할 수 있어서 좋죠! 역사를 좋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유기성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늘고등학교에서 역사 탐구를 꾸준히 할 수 있던 원동력은 다양한 과목들과의 관련성을 찾았던 활동들이네요.

## Q2. 세계사와 한국사 둘 중 하나 고르자면?

전 개인적으로 세계사가 좋아요 ㅎㅎ 한국사가 싫다는 게 아니라(매국노 아닙니다) 각 과목마다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사는 역사를 밀도 있게 다뤄서 정치사부터 사회·경제·문화사까지 자세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있어요. 동아시아사는 여기에 더해서 관계사를 중심으로 배우죠. 반면 세계사는 각 나라의 정치사와 전쟁사를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양과 서아시아의 전쟁사, 19세기 이후 펼쳐지는 유럽의 각축전은 한 편의 영화 같고, 전쟁사에 대한 관심이 사회·경제·문화사를 학습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세계사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도 모두 빠져보세요 \*^.\*^\*





엄유선,  
쏘아올리지  
않아도 괜찮아.



평범한 강릉소녀에게서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감탄을 내뿜었다...

- 하늘대학교 최상규 교수 -

## 작가 소개

8 2001년 8월 22일 출생

· 어린 시절 친구들과 다단계 작업을 통해 작은 이글루를 제작하는 효율성 추구 정신을 보임.

8 2017년

· 중학교 시절, 새벽 5시부터 영상을 제작하며 끈기와 열정을 기름.

8 2018년

· 로직스가 뿌직스라는 별칭을 얻으며 최악의 동아리로 선정되자 이를 갈면서 이를 만회하고자 함.

8 2020년

· 로직스의 기장 그리고 교지편집부의 부장으로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최고의 결과를 얻어냄

· 하늘고에서 작은 공을 쏘아 올리며 TEDxHaneul 연사로 선정되어 하늘고의 엄쏘공으로 인정받음.

## 작가 인터뷰

Q. 앞으로 또 어떤 공을 쏘아 올리실 건가요?

A. 앞으로 또 무엇을 쏘아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은 '쏘아 올리지 않는다' 다. 쏘아 올린 공은 언젠가 떨어진다. 달나라에 직접 가는 편이 낫다. 하늘고 3년을 생활하면서 다져진 근성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달나라에 도착해있지 않을까.



이여원,  
노래부르면서  
쉬어가도 괜찮아.



읽기만해도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치유를 원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이여원의 이야기. (부록으로 CD 증정)

-음악평론가 김지훈-

## 작가 소개

### ○ 2001년 7월23일 출생

- 초등학교 시절, 이家的 연예인으로 데뷔
- 작은오빠를 매니저로 채용해 직접 공연을 기획함
- 가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피겨공연을 하는 등 꿈과 열정을 키워나감
- 사춘기가 오며 노래방족순이가 됨
- 하늘고에 입학한 후 진로에 대한 좌절
- 이에 대한 돌파구로 주작대로 가요제 참가
- 주작대로 가요제에서 1등을 하며 하늘고의 연예인으로 데뷔
- 연예인으로써 린나이 오케스트라 공연

### ○ 2020년

## 작가 인터뷰

**Q.** 노래 실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노력한 건가요?

**A.** 아직 많이 부족한 실력임에도 이런 질문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쑥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노래 실력이라는 게 선천적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천재가 아닌 이상 꼬마애가 바이브레이션을 넣으며 잔뜩 기교 섞인 재즈를 부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노래를 그럴듯하게 부르게 된 것 같다. 원래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커가면서 많은 미디어들을 접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악기들보다 보컬이 귀에 익게 되면서 노래방도 다니며 기교를 만들어가다가 특정 창법을 갖게 된 것 같다.



이민수,  
바뀌야 할 일은  
매일있어.



혁신을 원하는가? 그를 보아라.  
2020년, 개혁을 원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하늘나래 출판사 편집장-

## 작가 소개

### ○ 2001년 5월 30일 출생

- 초등학교에서 반장, 전교회장 등 다양한 자치활동
- 중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자치활동을 했으나 2%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음
- 하늘고에 입학해서 학생회의 활동에 매력을 느낌
- 학생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체육복 등교 허용을 함
- 학생들의 더 편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였고 동시에 학생회의 중요성, 본질에 다시 생각해보게

### ○ 2020년

## 작가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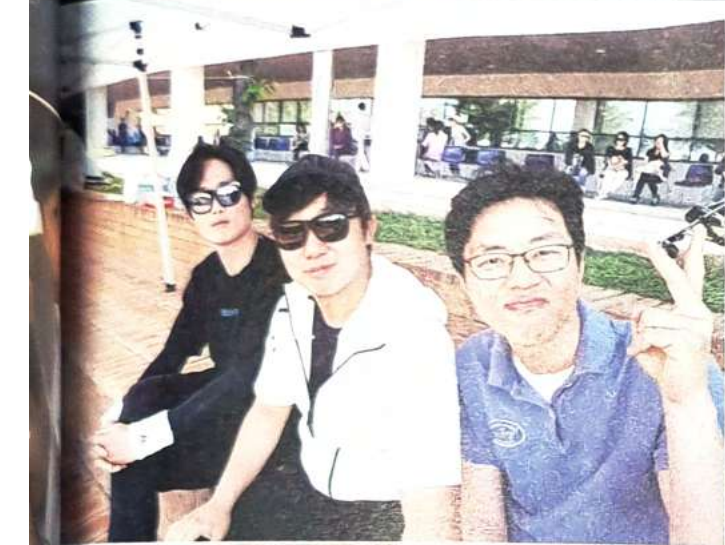
Q. 사회에서도 개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저는 언젠가는 잠깐 멈춰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 둘 이뤄놓은 것들이 모여 커다란 개혁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회에서 개혁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매 순간 충실하다면 이는 분명히 자연스럽게 커다란 영향,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술제

# 8arty Toni9ht!











학술제 첫날은 정상 수업으로 발단되었다. 4교시까지의 정상 수업 이후, 동아리별로 부스를 꾸밀 시간을 가지고, 강당으로 이동하며 '진짜'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강당 입구에서 학생들은 Haneul x TED의 입장권을 끊고 당근 볼펜을 받아 학술제를 즐기러 입장했다. 학생들은 뽕망뽕망한 눈망울로 논문 대상 수상작 발표를 열심히 들었다. 이후에 진행된 Haneul x TED 강연의 주제는 '색'으로, 학생들은 연사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심금을 울리는 명대사를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강연 중간 중간에 추첨을 통한 연사들의 애장품 전달식이 있어 긴장감이 넘쳤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급식실로 질주했다. 급식실에서는 유리문에 하얗게 김이 서릴 정도로 핫한 삼겹살 파티가 열렸다. 학생들은 반별로 모여 볶음밥, 채소, 고기 등을 접시째로 담아와 음료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먹어 치웠으며, 쓰레기도 치웠다. 저녁을 먹은 이후, 학생들은 정규동아리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권도경







즐거운 학술제의 두 번째 날은 논문 발표로 시작되었다.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학술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던 발표들이 계속되었다. 오후에 운영된 개인부스 덕분에 점심 식사를 한 것도 잊고 흥린 듯 먹기 시작했다. 복도를 가득 채운 맛있는 냄새와 귀를 호강시킨 노래들, 내 짝을 찾는 암실카페 등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무대 공연은 친구들의 숨겨진 재능과 끼를 발견할 수 있는 '전국, 하늘 자랑'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감미로운 노래를 듣고 댄스부 못지않은 춤을 보면서 관객들은 환호를 지르며 열광했다. 중간 중간에 있던 선생님들의 애장품 추첨 때는 모두 자신이 뽑히길 두 손 모아 기도했다. 이어서 진행된 '쌤의 목소리가 보여'에서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선생님들의 반전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었다.



'접속! 하늘 월드'는 시험 전부터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흥잡을 데 없는 무대들의 연속이었다. 명탐정 코난, 알라딘, 위대한 쇼맨, 상속자들, 응답하라 1998 등의 영화와 드라마를 패러디해 각 반들의 찰떡 호흡을 자랑했다.

댄스부, 힙합동아리, 밴드부 공연으로 학생들은 하나가 되었다. 댄스부의 공연은 연예인 뺨치는 수준이었고 힙합동아리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관객들은 무대 앞까지 달려나가 힙동의 흥에 심취했다. 마지막 순서는 올해 정규동아리로서 마지막 공연을 펼친 루미난트였다. 계획된 공연 후에도 계속된 앵콜로 학생들은 떼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이승연





2019 연말정산

# HANEUL AWARDS





# 웃김상

신진

위 학생은 엄청난 자신감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매사 유쾌한  
모습을 보여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움을  
빠지게 만들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 자신의 매력포인트

일단 준수한 외모에 멋있는 목소리...? 그리고 비울 좋다. 어 아 운동신경이 좋다. 춤 출 때 애들 반응이 제일 좋고 자고 일어났을 때, 노래 부를 때... 애들 반응이 제일 좋아요.

더 하고 싶은 말 어...



# 웃김상

서연우

위 학생은 매일 다른 TMI를  
학생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다른 이들로 하여금  
지식을 추구하는 열망을  
고취하였으며,  
동시에 학생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 오늘의 TMI

전민호 선생님 본명은 전진호



# 인기상

경성운, 여주쌀

위 학생은 무한한 매력으로  
모든 학생의 마음을 훔쳤으며,  
존재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에  
즐거움과 설렘을 주고,  
하루의 힘들이가 모두 씻겨  
내려가게 만들어주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달짝지근 사이에서 홀로  
고소함을 곳곳이 유지하며,  
인절미와 우유의 조화를  
살려낸 맛과 끊을 수 없는  
찰쌀떡의 쫄깃함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 솔직히 즐기시나요?

날 놀리는 건가 싶... 아니 놀리는 건 아니고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대충 즐긴다는 소리)  
그냥 요즘은... 아니 (대충 요즘이라는 소리) 어... (상당히 긴 고민 중) 재밌네요.

## 자신의 팬들에게 한마디

아직도 저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 이제 고3이지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 효도상

박진우, 문형민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소홀함과 익숙함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여 타 학생에게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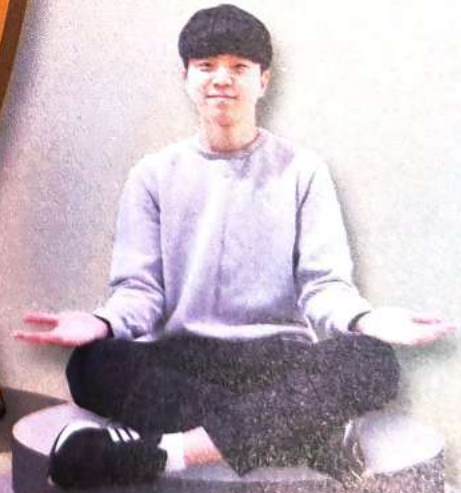




# 무념무상

이도윤, 양창효

무아(無我)의 경지에  
도달하여 사심이 없고  
사물에 얽매이지 않으며,  
일체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비워 놓아  
마음이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인생을 유유하게 사는 것이  
21세기 바쁜 현대인의  
본보기가 되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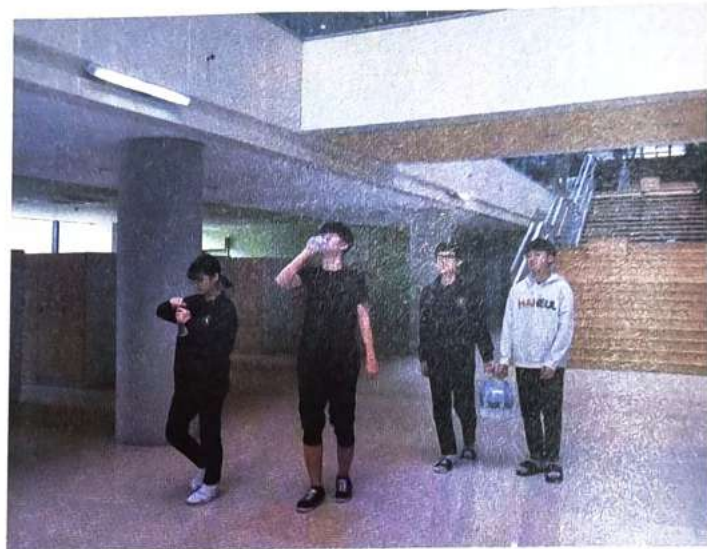


# 하늘고 빅 이슈

## 올해 하늘고를 뒤흔들어버린 4가지의 대란, 지금 짧은 사진과 글로 한번 만나보시죠.

### 하늘고, 하필 여름에 생수대란 겪어...

공촌 하수도장에서 적수가 시작되어 하늘고 학생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학교에서 하루에 학생 1인 당 1L의 물을 지급했고, 하필 덥디 더운 여름내내 학생들은 생수2병을 가지고 생활했다.



### 비성규, 태풍이라는 재앙을 결국 불러일으켜...



8기 수학여행 2박3일 중 2박3일 모두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몰려와 결국 학생들이 셋째날의 일정을 모두 캔슬하고 돌아왔다. 8기 내에서는 중요한 날 비를 부르는 성규쌤, 비성규라는 이름이 돌기 시작했다.



## 하늘고를 위한 깜짝 선물, 응답하라 이투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시간이 시작되자 이투스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푸드 트럭에서 간식을 받은 학생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이지영 선생님의 등장에 뜨겁게 열광했고 다양한 이벤트(feat.에어팟)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1일 n마리 쥐, 과연 자연친화적인 하늘고

1학년 2반에서 4마리를 시작으로 교무실, 201에서 쥐가출몰. CESCO의 쥐덫을 이용하거나 직접 잡아버리는 등으로 해결하였다. 학생들은 쥐가 햄스터 같아 귀엽다며 쥐덫의 쥐와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의외의 이상 행동을 보였다.





THIS IS



H A N E U L  
C O N N E C T O R



# 똑딱똑딱 하늘나래 공작소, \*하늘커넥터\*

## 1. 아이디어 회의

일 년에 한 번 나오는 교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이지만 흔하지 않고, 뻔하지 않으면서 낯설지 않고 익숙하지만 신선한 소재를 얻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갖습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

아이디어를 짜내던 중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던 하늘커넥터, '영감...'을 중얼거리던 중 어떤 한 명이 '영화 감상과 비평??'을 외쳤고 또 다른 한 명이 '영화???'를 외치면서 이번 교지의 동아리 콘텐츠 컨셉이 정해졌습니다. 온전히 의식의 흐름에 의존해서...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정말 사소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에 길면 네 시간을 훌쩍넘는 시간이 소요 되기도 합니다. ㅠㅠ

## 2. 콘텐츠 진행

아이디어가 정해지면 해당 콘텐츠의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터뷰가 필요한 콘텐츠에는 해당 학생, 선생님, 교직원분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

하늘나래 VOL.6에서는 하늘고와 비밀의 방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위해 제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하늘고 개교 후 학생 최초로 제어실에 방문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 3. 콘텐츠 정리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은 후에는 콘텐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인터뷰 녹음 파일을 문서화하고 사진을 고르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문서화하는 작업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타이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하다보면 귓가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미소가 지어지지는커녕 입가에 싸늘한 냉기만이 감도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진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정말 냉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맘에 드는 사진이 있더라도 교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cool하게 패스. 모든 콘텐츠 정리는 네2버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

작년에는 클라우드를 할 수 없었고 하드디스크를 이용하다가 마감 하루 전 하드디스크가 맛이 가면서... 대참사를 겪었고 이번에는 같은 상황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4. 교지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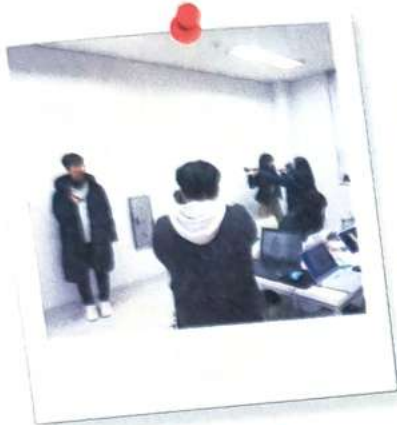
콘텐츠를 하나하나 완성해가다보면 교지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가 가장 바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맞춤법 검사, 글자수 세기 등의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디자인 작업입니다. 인쇄를 의뢰하기 전 콘텐츠 별로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만큼 힘듭니다. 1년동안 잠들어 있던 아티스트 세포를 깨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 #비하인드 스토리

공동체 디자인한 16개의 학급별 콘텐츠는 일정상의 문제로 2개의 디자인으로 통일되었다는 슬픈 이야기 ... ㅠㅠ



# THIS IS 작업과정!



교지편집부는 사실 사진관  
(멀티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교지의 원동력은 맛있는 간식...?



책상도 없는 교지편집부  
(참고로 도둑질중...)



꽤 교한 하늘고를 상상해보았다.  
(하늘나라 표지 실패작)



교지를 하다보면 가끔씩  
힘들 때가 많다...



초집중 정환이

\*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노트북 2대가 지고)

교지일 끝나고 눈 와서 신남





# 하늘 커넥터 앙케이트!



2019년 12월31일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 종료라는 걸  
2020년 1월1일에 알게 된 이 사참은 어떻게 할까?

김정환 : “라면 끓일게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민망할 정도로 크게 웃는다.

최정은 : 눈이 커지며 한동안 말을 못 잇다가 하는 말 “아냐아냐. 그럴리가 없어. 다시 확인해보자.”

얘들아 아닐거야... 하하하하(허탈하게)

장유리 : 욕이 제일 먼저 나올것 같다. 그리고 네이버 본사에 찾아가서 복구하라고 따지러 가고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구시킬 대단한 사람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폭주한다. 그리고 유선 선배를 힘차게 외친다.

남한나 : 눈 동그래지며 “네? 그럼 저희 학교가야돼요?” 애써 표정을 숨기려하지만 다 티가 난다.“아.....”

아 미리 공지해야하는 거 아녜요? 아 진짜 아 (일하면서도) 아 (그러면서도 곳곳이 포토샵 강좌  
블로그 보면서 일함)

최푸른 : 싸발!!

장유리와 함께 폭주하며 학교를 한 바퀴 달리고 온다.

윤승환 : 아직도 낮가려서 암말 못 하고 꾸그려서 일할 듯

허탈하면서 엄청 웃을 것 같음. 그러면서 슬쩍 탄 짓...?

강예빈 : 당황할 시간도 없이 계속 “아 망했다. 망했다 우리 어떡해요. 저 지금 노트북 없는데 아 괜찮아요.

봄방학 때도 안 쓰면되죠”

장유리와 함께 욕을 하며 장유리를 따라 네이버 본사 입구까지만 따라갈 것 같다.

최상규T : 말없이 ‘담타’를 가진다.

장유리와 강예빈을 본사까지만 태워주시고 뒷일을 맡기실 것 같다.





개인 광고 면입니다.



# The SKY 살롱

— 두피관리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

OPEN EVENTS.

할인해서  
이가격!!

이 시대의 예민한 10대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피로하기에  
이들에게도  
과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피관리에도 명품이 있는  
저희 스카이 살롱에선  
만족스러운 관리 퀄리티를  
자신있게 보장합니다!

삭발 10,000

모히칸 30,000

투블럭 20,000

스킨헤드 15,000

커트 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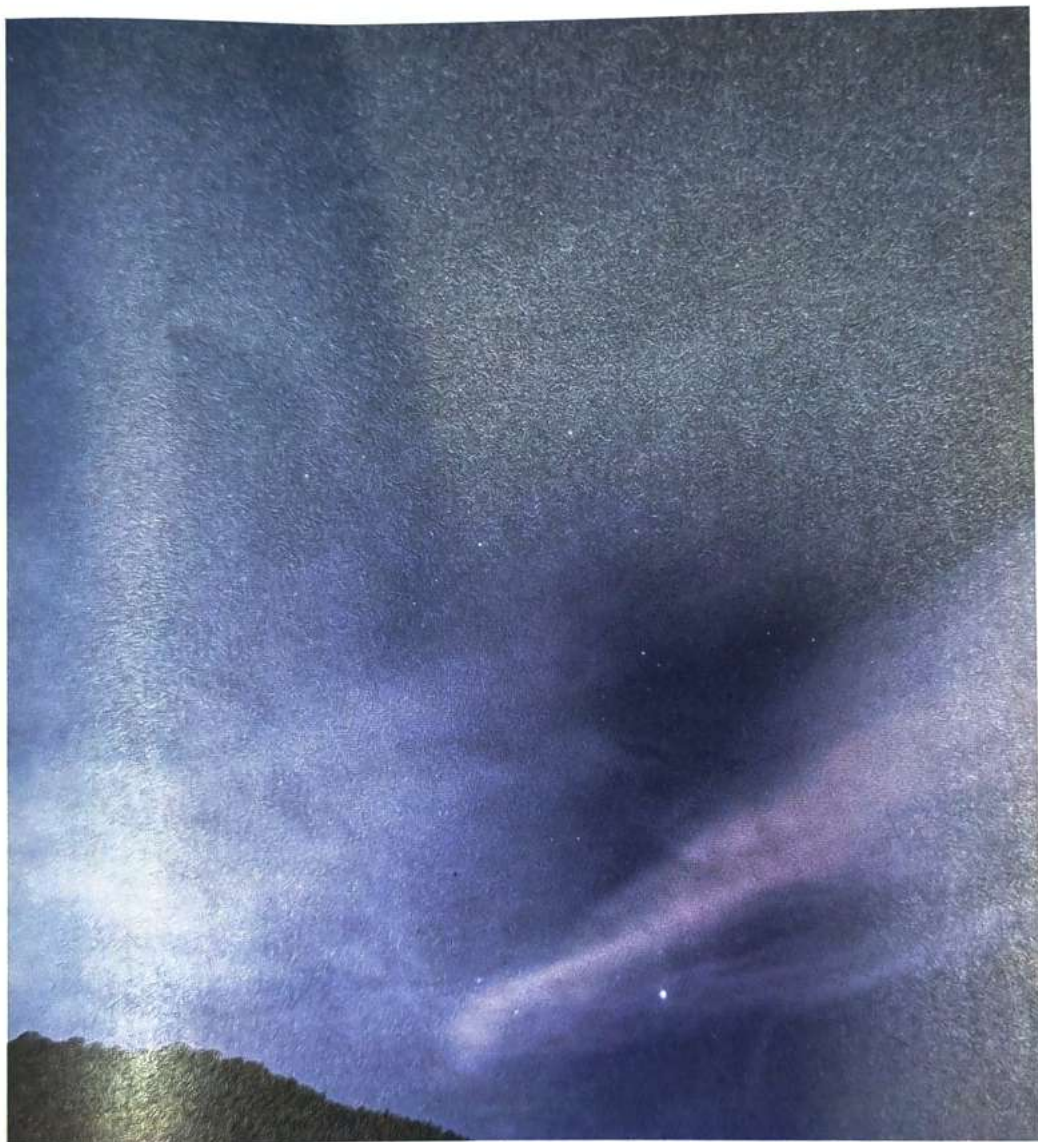


하늘고등학교

예약  
전화/문의  
032.1234.5678



# 星



별 보러 갈래?  
자  
자  
자





# 우.우.우.

우리반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해주신 말





# 1학년



## 1반 오대규 선생님

1.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2. ○○이 자? ○○이 기도해? ○○이 명상해?
3. 너희는 점수로만 판단할 수 없다.

## 2반 이상미 선생님

1. 여러분, 어차피 수능은 아침에 봐요. (아침 자습마다 죽어있는 2반...)
2.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스스로가 하셔야 해요.
3. 열심히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 3반 강선이 선생님

1. 규칙이 진리는 아니지만 지키면 편하다.
2.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망하게 한다.
3. 워라벨이 아니라 라워벨이다. 라이프가 먼저가 되어야한다.

## 4반 이강봉 선생님

1.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
2. 사람과 사람을 더하면 무한이다.
3.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묶지 마라.

## 5반 한재홍 선생님

1. 행복해~
2. 스켄~
3. 수능 한 번만 보자.

## 6반 정율이 선생님

1. 아주 똑똑이들이예요~
2. 오래달리기야. 음..! 시간 싸움이라구. 끝까지 가/야 이기는 거야.
3. 다들 중학교 졸업하셨잖아요/ 그쵸?

## 7반 정아미 선생님

1. 엉망이야 진짜
2.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진짜
3. 인간관계는 3년 동안 힘드니까 신경 쓰지 마

## 8반 김승호 선생님

1. 잊지 말자. 나는 부모님의 자부심이다.
2. 마마,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욱!(나약한 비명 소리) - 명성황후 中
3. 오늘 주전은 3교시 끝나고 바나나 꼭 챙겨 먹으세요. (SH컵 경기를 앞두고)



# 2학년



## 1반 배성규 선생님

1. 지금부터 3분 강의합니다~! (이려고 10분 넘어감)
2. 선생님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머리로 시선 가는 건...)
3. 우리 다같이 알콩달콩 오순도순 잘 지내보자.

## 2반 송남영 선생님

1. 이번 주 워크맨 봤니?
2. 우리 반이 또 꼴찌를 했어.
3. 힘을 내!

## 3반 최성태 선생님

1. 질문? 건의? 대화 거부? 나가? 아 꺼져?
2. 지금 성적 상위 4%가 대한민국 상위 4%가 되는 거였다면 내가 지금 여기 안 있겠지. (참고로 공부 잘하심. ALL 1 맞으시다가 수능 때 탐구만 빼끗~ 학창시절 상위 4%~)
3. '넘버 원' 이 아니라 '온리 원' 이 되세요.

## 4반 서연희 선생님

1.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2. 건강한 게 최고야.
3.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 같아.

## 5반 황혜경 선생님

1. 쌤이 오늘 1등으로 교문 열게 해줄게! (컨퍼날마다 종례때 얘기하시는데 우리반이 항상 꼴지로 나가는 건 비밀~)
2. 가쉽(gosSHIP) 한 번 같까요? (수업 도중에 갑자기 다른 얘기 시작한다는 의미...? ㅋㅋㅋ)
3. 흠,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검지 양옆으로 까딱까딱. 간지 나고 단호한 표정이 포인트)

## 6반 최상규 선생님

1. 아이바보멍충이아픈아이들아
2. 서술형 답지는 반드시 연필로.
3. 열심히 살지마라. 어차피 랜섬웨어가 다 가져간다... 인생무상...

## 7반 김지연 선생님

1. 면학실은 너희 집이다.
2.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치환은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3. 뭐든지 빨리빨리!

## 8반 이지혜 선생님

1. 어차피 지금 보는 거 시험에 안 나온다.
2. 온몸에 있는 털을 족집게로 하나하나 뽑아 버리겠어.
3. 쉼♥



# 3학년



## 1반 김창재 선생님

1. 친구의 성공은 시기, 질투할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할 일이다.
2. 잔소리 끝! 청소하고 올라가자~
3. 야 이 짱구들아~

## 2반 이현주 선생님

1. 내 인생 무대를 남에게 내어주지 말자.
2. (6평 끝난 날) 지금부터가 진짜야. 힘을 내자! 할 수 있어 ♡
3. 너니깐 너만이 쓸 수 있는 실화를 쓰는 거야.

## 3반 김원석 선생님

1. Be to the miracle!
2. 너희 무슨 일 있니? 싸운 건 아니지? 괜찮아 말 해봐. (아무일 없던게 함정)
3. 음 옆 사람 좀 깨웁시다. (너무 많이 들어서 환청 들린다는 사람이 한돌이 아님.)

## 4반 김경훈 선생님

1. 사실 너희들은 입시결과 바꾸려고 힘들게 힘들게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지금으로 온거야(진지)
2. 어떤 처자가 지금 처자고 있나요?
3. 박지호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표정이 박지연?(모든 문장에 최대한 4반 아이들 이름을 꾸겨 넣으시는 저스틴의 사랑...♡)

## 5반 심주석 선생님

1. 저라면/여기서 벡터를 사용하겠습니다.
2. 이걸 때려죽여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3. 오랑우탄이랑 인간이랑 유전차이가 0.2% 밖에 차이가 안 난다더라. 그 0.2%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는 만큼, 너희도 0.2%의 노력을 더 해라.

## 6반 김민희 선생님

1. (교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등짝 소리와 함께...) 으이구! 으이구! 이노무시끼! 그만 좀 자~
2.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풍풍 거러도, 눈을 부라리고 욕박 질러도, 나의 2019년...너희야(수줍)
3. 우리 애기들~ 내년 1학기 종강하고 나면 모두 '애슐리 퀸즈' 로 모여라! 선생님이 쏜다.

## 7반 최승주 선생님

1. 그조옹~?
2. 이씨!
3. "졸업식 끝나고 반 회식은 쌤이 쏜다!"

## 8반 이현영 선생님

1. 힘든 일 있으면 (정적) 혼자 해결하고~
2. 난 귀염둥이 막내다. 너그들이 봐도 그렇지 않다?!
3. 니 내랑 한 따까리 할래~?



놀러오세요

# 1반의 숲



## 소개



어서오세요 이곳은 1반의 숲 속 성입니다. 1반의 성은 지기가 세기 때문에 이 곳을 방문하는 모두가 항상 힘이 빠지는 마법에 걸립니다. 이 곳을 방문한 상규쌤과 지현쌤은 늘 “여기 정말 지기가 안좋아서 그래... 너네는... 괜찮아”, 또는 “이 자리는 교무실 자리였어야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뭔가 힘이 빠져..” 등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 동물의 숲

- ① 1반의 성은 늘 잘 정돈되어있고, 깨끗한 곳입니다. 실제로도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깨끗하고 잘 정돈된 반이라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 ② 1반에 사는 친구들은 모두 매너가 넘칩니다. 단 하나의 캐리어조차 없는 1반의 복도, 그리고 교실안에 신발이 놓여있지 않다는 것은 1반 친구들의 사소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 ③ 탄탄한 조직하에 체계적으로 학급을 운영해왔으며 특색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 ④ 1반은 체육대회 응원전 1등, 피구 1등, 꽃동네 인사상을 받았습니다.





# 놀러오세요

## 2반의 숲

### 소개



안녕하세요 이곳은 2반 친구들이 매일 뛰노는 2반만의 놀이터입니다. 담임쌤인 상미쌤은 2반 친구들이 깨끗하고, 엄청 잘 노는 편입니다. 한시도 조용할 때가 없는 2반 놀이터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가세요~

### 동물의 숲



① 쉬는 시간에는 활동적이다가 수업 시간만 되면 얼음! (요즘은 좋아지고 있음^^)

성태쌤께서 하신 말씀

1반부터 8반까지, 이게 조용한 순서인 거 같아. 5반이 조용해서 좀 예외이긴 한데 다크호스가 있어, 2반.

② 한 남학생의 책상 서랍 속 호울스가 시작이었지,,,

최초 발견) 분명 신문지를 꺼내려고 했는데 검은색 종이가 나옴. 개미종이.

사건 해결) 저녁 시간 집합 : 세스코 상담 의뢰서 작성(사실 제출 X), 약 뿌리기, 분필로 개미 막기(효과 X) -> 빗자루로 사체 모아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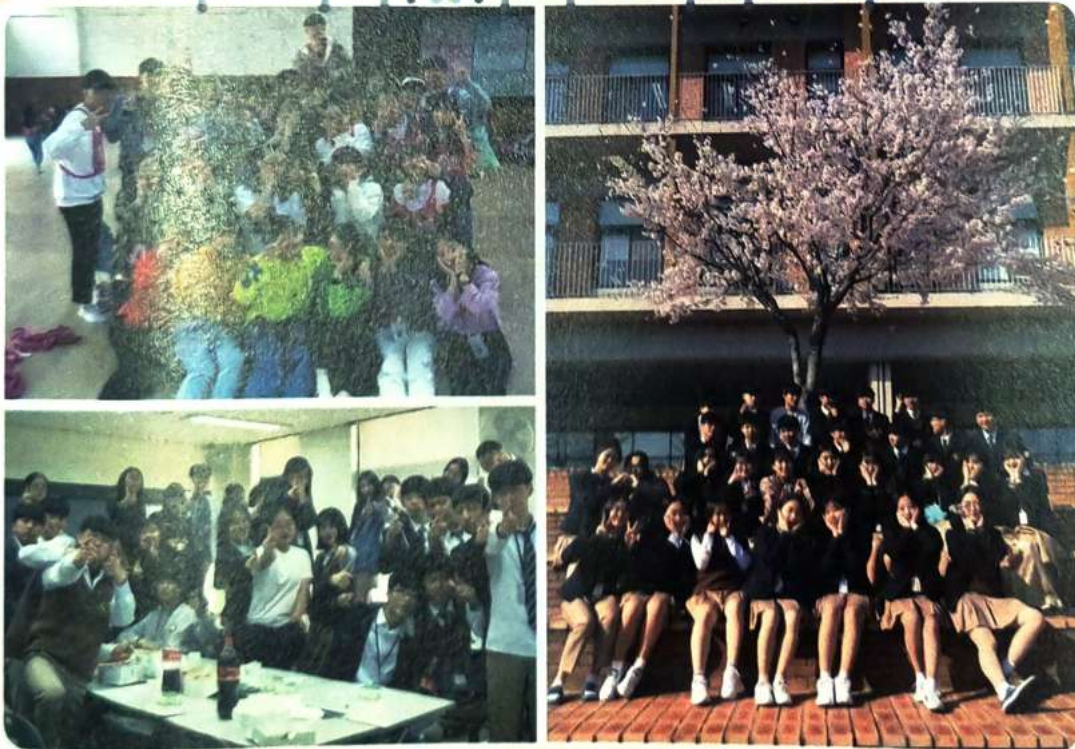
③ 멍멍이와 사료

대규쌤께서 하신 말씀: “언제까지 사료 냄새 풍길 거야?(코쓱, ㅎㅎ;)” “과자에 과자가 섞이고 디퓨저에 페브리즈까지 섞어서 사료 냄새가 나는 거 같아.”  
“2반 냄새가 나. 2반 냄새.” (웅성웅성... 2반 냄새래... 2반 우울...)

④ 다양한 방면으로 이상하고 엉뚱하고 독특하게 재주가 많아 여러 선생님들에게 의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음.



⑤ 단합대회 때 윙크게임 한 이후로 서로 윙크를 해댔다.



OPEN



놀러오세요

# 3반의 숲

## 소개

안녕하십니까! 3반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반 미술관에서는 친구들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잘 그린 그림부터 개성이 넘쳐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림들이 있으니 마음껏 감상하십시오!



공선영



김다민



김서현



김예린



박서진



배정인



이가현



이은서



이정은





장명교



정윤선



정채윤



정혜진



최현진



하지은



한지연



고동범



김도훈



김상훈



박남교



박성주



박성현



박찬휘



손준호



이승준



이태림



전영진



최세현



한태경





# 놀러오세요

## 4반의 숲

### 소개

안녕하심파~ 이강봉임파~ 요즘 토용을 모으는 취미에 빠져있는데 모으다보니 이 큰집이 29개의 토용을 가득 찼습다~ 이 토용들이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모으고 있음다 저의 토용들 한번 보고 가십쇼~



권보경



김세정



김수진



노주현



노혜빈



박가은



배민경



배유리



석채민



안채연



이승연



이하람



장서현



장효리



하수진



홍효진



국예성



김광민



김진섭



나규민



박기태



박준성



안홍상



유승환



이세영



이재욱



최승인



한영운



함수혁



## 학금별 한마디

“이젠 말할 수 있다, 4반 친구들의 첫인상”

- 권보경 : 헐 귀엽다... 고등학생 맞아? 아기 같아 ㅠㅠㅠ 순진 & 조용 & 차분.
- 김세정 : 우와! 머리카락 짱 길다. 단 음식의 광팬. 언제나 먹을 것들 나눠주는 좋은 친구.
- 김수진 : 박학다식한 엘리트. 과묵. 키 크고 언제나 올백머리 친구.
- 노주현 : 낮 가리지 않는 적극적 아이 (feat. 사마귀). 귀여우면서 도도. 애교 많을 듯.
- 노혜빈 : 무섭지만 재미도 있을 듯...? 시끄러움. 친해져 볼까?
- 박가은 :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친구. 근면성실. 친화력 만땅!
- 배민경 : 뱀인경? 뱀씨?! 수줍음 많은 차도녀. 포스 작렬. 하지만 친해지면 개그캐일 듯 ㅎㅎ
- 배유리 : 순수 · 순진한 청심국제중학교. 목소리!? 모기...? 개성 넘치는(?) 글씨ㅋ
- 석채민 : 소심소심 · 싱글벙글 귀여운 다람쥐. 1000% 친절 보장할 수 있을 법한 인상.
- 안채연 : 크고 반짝이는 눈. 우아한 목소리. 그치만 무섭다ㅠ 품격 교육 때 못 본 비밀스러운 친구.
- 이승연 : 무서운 인싸. 찰랑찰랑 머리와 눈웃음 ^\_^ 가득, 하이톤의 소유자. 예쁘다?ㅋ
- 이하람 : 슯컷이 찰떡인 고등 래퍼. 그러나 안전한 밤돌이. 분위기 있는데? (feat. 두꺼운 철학 책)
- 장서현 : 활발하면서도 조용한 사차원. 뉴이스트 덕질에 엄청난 열정. 멋진 불꽃 눈썹^^
- 장효리 : 하얗고 말랑말랑 따뜻한 손을 가진 미니언즈. 귀엽고 친근하지만 무서워... high 텐션.
- 하수진 : 양(Sheep) 같이 순해보이면서도 똑똑하고 야무진 반장 느낌. 요괴워치의 백명이.
- 홍효진 : 많이 웃는 밝고 매사 적극적인 친구. 호탕한 웃음의 소유자. 피구 잘하겠는데?
- 국예성 : 조용하고 차분한 도련님 style. 쓸데없이 진지함. V라인 턱을 가졌지만 훈훈한 척.
- 김광민 : 차분 & 조용 & 과묵. 클래식 로얄의 해골병사 VS 쥐 대장님.
- 김진섭 : 굉장히 조용한 ‘척’ 하는 부천 원미동 사람들 중 하나. 순한 눈망울을 가진 낙타.
- 나규민 : 오직 공부만 마이웨이로! 똑똑할 거 같다...
- 박기태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끄러워!!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
- 박준성 : 만년 포비 or 듀공. 하얗고, 순수하고, 착하게 생겼기 때문. +반달가슴곰 흐릿한 인상 ㅎㅎ
- 안홍상 : 머리스타일 멋진데...? 혼자 흥얼흥얼거리는 흥. 원조 잔나비 팬. 그나마 정상인가? (아니.)
- 윤승환 : 알쌍해서 운동 잘할 거 같은데 진짜 잘함 ㄷㄷ. 까만 미어캣.
- 이세영 : 친목에 의욕 활활. 아이폰의 소유자 허세영 ㅋ. 0.00000001초 기성용.
- 이재욱 : 이목구비 뚜렷하며 이국적 느낌. Too much 활발. 4반 안 오고 5반으로 착각한 친구 ㅋㅋ
- 최승인 : 호두과자 속 하얀 호두(실제론 호두를 많이 먹은 듯한 두뇌). 꼬마, 초딩, 돌돌이.
- 한영운 : 왜 이리 친한 척이지; 활발하고 밝으며 장난기 많지만 매너남.
- 함수혁 : 태어났을 때부터 귀여움 유지 중...! 케로로. 니모를 찾아서의 거북이.

OPEN



# 놀러오세요

## 5반의 슈

### 소개



안녕하세요 5반 반점입니다! 짜장면부터 탕수육까지! 없는게 없는 하늘고 최고의 중국집 5반반점. 중국에서 직접 온 요리사 짜이훙이 요리한 5반의 다양각색 음식들 한번 맛보고 가시죠

### 메뉴판

#### ① 짜장면

5반반점에는 친구들마다 저마다의 별명이 있다.  
벤틀리, 이빨요정, 부레옥잠...



#### ② 짬뽕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다.  
1학기 중간고사 거의 모든 과목 꼴등 →  
1학기 기말고사 거의 모든 과목 1등





③ 탕수육

5반반점에는 촌데레가 살고 있다.

김동욱 : 병원 외출 갔다가 반 애들한테 음료수 뿌림.

구민희 : 하루종일 불평불만을 하다가 특 선물을 내놓는다.

최지니 : 관심 없는 척 하다가 쓰담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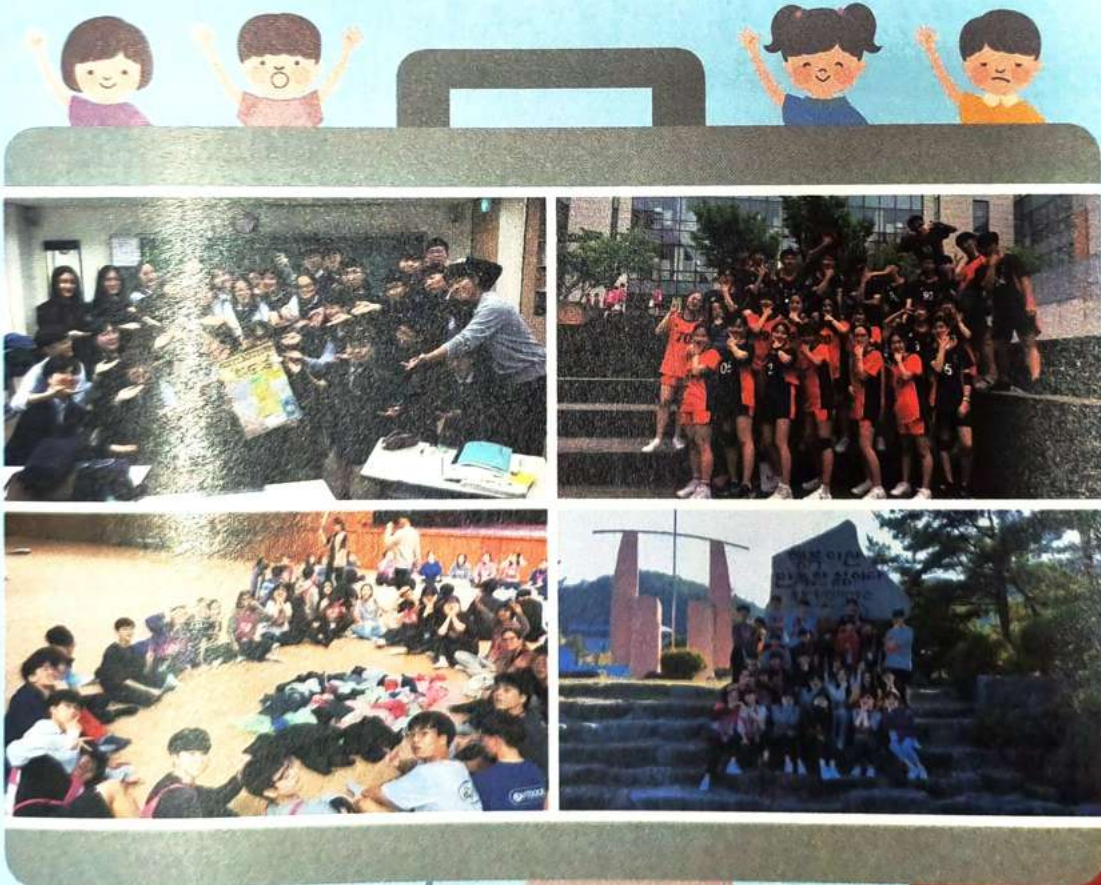
④ 단무지

5반반점의 흥을 돋는 라이브 밴드! <5반 엔터테인먼트>

가수 : 박서연, 이소정

댄서 : 채문철, 최강희

화가 : 황예나, 김희찬





# 놀러오세요

## 6반의 숲



### 소개

하늘고 최고의 강태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안녕하세요 이곳은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6반 나루입니다. 6반 나루에서는 물고기도 낚고, 재밌는 이야기도 낚을 수 있습니다. 6반 나루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6반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 동물의 숲

- ① “안녕하세요!” 수업전 시끌 벅직한 교실을 잠재우는 마법의 한마디. 역시 예의 바른 6반!
- ② 유난히도 스포츠를 즐기는 6반. 라크로스 부원으로 활동 중인 학생이 무려 6명으로 많은 편이다. 간식시간에 헬스장에 다녀오지 않으면 면학2타임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학생 등등... 체육대회에서는 줄넘기 전교1등을 차지했다.
- ③ 쌤들을 좋아하는, 소위 ‘덕후’들의 성지. 수업시간이 끝나고 쌤이 문 밖을 나서시는 순간 교실은 “까악!” 초토화. 유명한 팬클럽이 많다.
  - 자연계 진로를 희망하는 A양, 자신의 진로와 연관성이 높지 않지만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는 탓에 열공한 결과 1등을 해버리는데... “A양은 이과잖아 !!!”
  - 1학기만 들어오시는 D쌤을 좋아한 E양, 1학기 마지막 눈물을 보였다고...
  - 성공한 덕후 F양 평소 좋아하던 G쌤께 수업 피드백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는다.
  - 유일한 생활관 쌤 덕후 H양 젤리조공을 바치기 위해 별점을 무릅쓰고 생활관 음식물 반입X
- ④ 롤링페이퍼를 학급 친구들 모두의 생일에 정성스럽게 써준다. 짝 찬 롤링페이퍼를 보며 28명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생일...☆ 생일자는 생일 당일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6반 친구들이 선물해주는 매점표 미역국은 덤!



## 하늘고 TMI



권시은 : 하늘고 소문은 생각보다 더 파급력이 세다.

김선경 :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인생이 요구하더라도 달콤해진다 ♥

김지유 : 여학생들은 mp3를 살 때 텍스트 파일을 열 수 있는지 꼭 확인해라. 신세계가 펼쳐진다.

박은별 : 간식시간에 운동장을 보아라.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토끼 3마리이다.

사수현 : (목)삶이 힘들 땐 덕질할 선생님 딱 한 명이라도 찾아라. 인생의 소확행 + 그 과목 열심히 공부 가능하다.  
(참고로 나는 이과인데도 지리 전공연구를 1년 동안 수강했다.)

서연우 : 가끔 토끼장을 탈출하는 귀요미 토끼들이 있는데, 잡으면 상점이다.(+윗글에 동의한다. 중국어 100점 맞은 기분 So 짜릿하다. 한재홍쌤 사랑해요.)

신민주 : 가희쌤은 clean-Warm Cotton 향수를 사용하신다.

신현지 : 가희쌤은 오전 12시 45분에서 1시 사이에 호실을 한 번씩 들어오신다.

오수빈 : 우리반 여자 면학실에는 이상한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이다빈 : (지)지리는 "여러모로" 재미있는 과목이다.♥ 목지빠 가입 모든 기수 환영(10기 우대)

이서영 : 하늘고에 야생 부엉이가 축구 골대에 걸린 적이 있다.(+부엉이를 구경하는 가희쌤은 So cute했다. 사랑해요♥)

이현아 : 하늘고 학생들은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티타임을 가진다.(면학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님)

정다빈 : 간식시간에 외부음식을 반에서 먹을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별점 5점)

정예은 : 1-6에는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아이유가 있다.(가끔 면학실에서 단콘도 열린다. 개꿀잼) 주로 면학날에 만나요♪를 부른다.

최지혜 : (빠)3월만 조용히 안 찍히고 넘어가면 그 후에 가희쌤은 문만 열어보고 나가신다.(몰래 먹기, 공부하기, 영화 보기 다 가능)

한다인 : 신발은 꼭 여러 개(슬리퍼!)+MP3는 필수품이다. 제발 미리 사서 노래 받아오길 + 몰래 탄질할 땐 201보다 멀티실... ㅎㅎ

김경민 :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그리워할 날들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열심히 살길 바란다.

박민 : 뒤돌아 봐!!.....구라야^^

양성욱 : 하늘고 9기는

양현서 : Hi-Five가 접수한다.

유현석 : 이거 볼 시간에 공부해.

이승준 : 하늘고에서는 선배님들과 친해지면 좋다.

이승현 : 등받이랑 방석이랑 담요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내 의자가 안락해진다.

조무현 : 정치질을 조심하라.

최장원 : 수업시간에 절대 못 잠.

최정우 : 박민의 생일은 6월 3일이다.

최준원 : 월 하든 미칠 만큼 해라.

한큰별 : 너의 머리를 믿지 마라.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한다.

강소희 : 119호에 여학생들이 살았던 적이 있다.(119호 Forever!! 윤은지X박서연X강소희) 천도현쌤 사랑해요♥



OPEN



# 놀러오세요

## 7반의 슈

### 소개



여기는 ARMY 상점입니다. 2019년 1학년 7반의 추억을 판매하는 곳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

### 7반 이야기



#### ① 7반 피크닉

피크닉을 원하시나요? ARMY상점에서만 볼 수 있는 초저렴 피크닉! 테라스에 모여 피크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요가매트를 하나 구입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② happy birthday class 7



하늘고에서 보내는 1년중 가장 소중한 하루, 바로 생일! 7반에서는 다같이 노래를 부르고 일주일동안 먹을 수 있을 양만큼의 과자를 무려 27명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한입만

간식을 딱 한입 얻어 먹을 수 있는 찬스. 간식시간이 되면 반에 모여 흥이 넘치는 노래를 틀고 덤으로 맛있는 간식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④ 가나다마켓

'여기가 7반인가 신발가게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신발을 보유 하고 있는 army상점입니다. 신발 한 켤레 장만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ARMY 상점이 적격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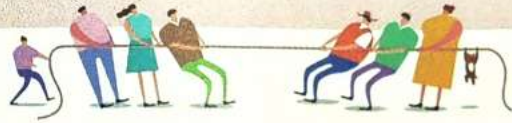




# 놀러오세요

## 8반 의 숲

### 소개



오늘은 8반 마을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농구, 피구, 축구와 같은 다양한 구기종목부터 많은 행사가 진행됩니다. 스포츠로 세계 정복 가능! 8반의 활약상을 확인해보세요. 어깨club의 특별 축하공연까지 열린다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8반 이야기



- ① 농구우승 : 반 대항 농구대회, 수많은 논란들 그리고 우승까지
- ② 피구대회 : 첫 경기의 승리와 에이스의 부상으로 인한 탈락. 하지만 선수간의 단합과 부상투혼이 빛났던 대회
- ③ 응원 전 : 화려한 오프닝과 깜찍(곰찍)했던 정동진의 등장. 그리고 심사위원 마저 웃게 만든 승호쌤의 춤
- ④ 어깨club : 근 1년간 8반에서 유행했던 클럽으로 8반에 난무했던 어깨드립과 포스터까지 생기며 만들어진 최경진의 어깨club-
- ⑤ SH cup : 대진표 추첨부터 교장선생님의 시축과 부상 연이은 승리와 1학년 우승까지 SH cup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기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 2학년 1반 영역

성명	배성규	수험번호	2	0	1	9	0	2	0	1
----	-----	------	---	---	---	---	---	---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래평가원



1. 다음 어휘 중 사전적 의미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캔디머신 : 배성규 선생님의 애정템으로, 1반의 당보총을 책임졌던 활력소
- ② 미미인형 : 한동안 1반에 거주했던 인형으로,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관심을 받았고 특히 **성규쌤**이 큰 관심을 보이시며 수업 때 사용하시기도 했다. 방과후에 인형 이름을 짓자고 제안하셨다가 '빡빡이' 소리 듣고 화내셨다는 후문이...
- ③ 도마뱀 : 2학년 1반 배00군이 잡아와 다 같이 키웠던 동물로, '깜땡이'라는 이름을 얻어 1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하지만 쓰레기통과 함께 버려졌다는 소식이...)
- ✓ **아부지** : 만인의 아버지. 2학년의 아버지. 1반의 아버지. 배규쌤을 지칭함.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바구니로 1반 친구들의 눈물을 썩 빼놓으셨다.
- ⑤ 머그컵 : 원래 주인을 못 만나 역마살이 낀채로 돌아다니는 물건들을 일컫는다.(그래서 송남영 선생님의 머그컵은 어디로 간 것인가...?)
- ⑥ 시간표 : 배규쌤에 대한 1반의 마음과 스스로를 추억하는 1반의 모습이 담긴 표를 뜻한다.





2. 다음 보기를 읽고 주어진 그림 중 가장 시끄러울 것 같은 동을 고르시오.

〈보기〉

이장님을 포함한 총 28명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지내고있다!! 아랫층 에서 공부를 하면 윗층에선 잠을 자고... 이장집에서 세월을 곱 씹으며 흥취를 즐기면 옆집에선 유튜브를 찍는...이들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일까?





✓ **멈출수 없동**

마을에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익살스러운 악동들-  
#1반 대표 패거리 #언제 #철들래?

② **노는게 젤 좋동**

1반마을의 웃음꽃을 책임지는 소녀 넷  
#노는게 #젤 좋아 #1반 #모여라

✓ **공부가 젤 쉬웠동**

비난은 다 시끌벅적 하던데...?

쉬는시간에도 식지 않는 학업 열정!! 이대로라면 S대논 뭐 ... ㅎㅎ  
#나는 #오늘도 #연필을 #잡는 dr...

④ **아부지짱이동**

"아부지 보이소~~!" 마을 이장님 댁 딸들이 뭉쳤다?  
#배아장님댁 #딸만 #셋 #효녀들

⑤ **또잣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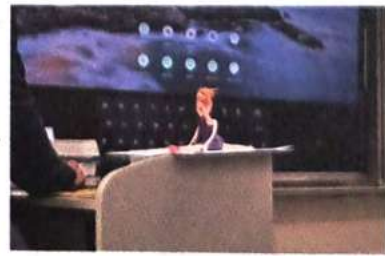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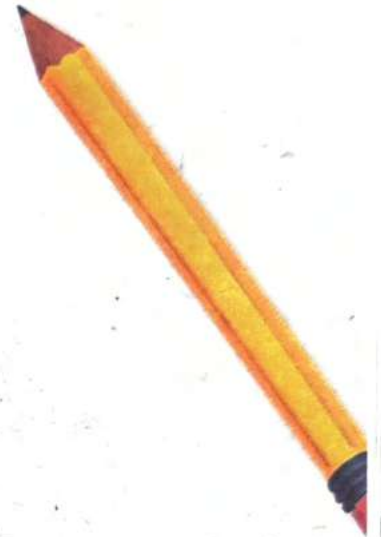
"또 자???" 얼굴만 대면 바로 딤슬립에 빠지는 잠보들!  
#잠의 #유혹 #왜 나는 #너를 #만나서~

⑥ **특급연연동**

유튜버라고..들어봤나..? 마을 내 유명 연예인들 싸인은 미리미리~  
#엔킴의 #연연연 #좋아요와 #구독은 #♡

⑦ **나는 나의길을 가겠동**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잠 #공부 #노트북 #개인업무에 #충실한 #그들





제 7교시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 2학년 2반 영역

성명

송남영

수험번호

2

0

1

9

0

2

0

2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래평가원



다음은 친구가 몰래 해주는 202 한 줄 소개이다. 다음 중 2반의 요정을 찾으시오.

170 → 근영: 돋보이는 그녀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건 그녀의 열정과 그녀의 다채로운 아코티언 필통

180 → 나현: 은은한 기품 속에 품어나오는 허술미의 여인

188 → 가은: 눈을 떠도 자고 있고... 그 와중에 이빨은 빛나는 그녀 - 2반 2빨 요정 김가은

190 → 민지: 귀여운 강아지와 디즈니를 좋아하는 우리 민지는 공주님입니다♥

200 → 지우: 우익! 재채기 소리 무엇..?

210 → 주희: 졸 때가 제일 무서운(?) 여자

220 → 서연: 코딩에 기계 조립까지 2반의 공대 여신 신서연

230 → 다은: [동글동글] 경사면에 내버려두면 굴러갈 듯함

240 → 석영: 엄마 같은 푸근함. 귀속속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없으면 곤란한 광물

250 → 하린: 조용하지만 조곤조곤 말 다하는 뒤뚱뒤뚱 펭귄

260 → 다소: 맨날 급식 안 먹는다면 먹는 꿀꿀이 다소♥

270 → 세인: 정세인은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이번에 3000만 돌파했다 하네요. 이 친구는 바로- 썸

280 → 현희: 드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누비며 달리는 노루.

290 → 휘수: 정휘수 친구. 하늘고 대표 모델. 하늘고 대표 걸크러쉬. 하늘고 대표 19(???)

300 → 인서: 2반의 푸근함을 맡고 있는 I-COM 여왕

310 → 성윤: 난 항상 주머니에 거울을 들고 다녀, 요건 몰랐지?

320 → 민준: 시험 3주 남았다고 해도 드라마 보는 할 말 다 하는 대표 귀요미

330 → 채영: 조심하세요. 보이는 건 다 물어요. 책꾸들은 면학실 책상도 물고 스탠딩 책상을 물어서 들어올리기까지 합니다.

340 → 현국: 이 친구는 일단 king입니다. 국영수는 기본 물리, 화학 다 알아요. 1등급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공부라는 것을 지배했죠. 공부를 넘어서서 KING

350 → 수민: 손수민은... 골목길에 서 있는 어눌한 전봇대 같다.

360 → 중욱: 자기애가 엄청난 재밌는 친구예요.

370 → 성준: 수많은 곤충들을 닮았는데 그 중 가장 닮은 건 단언컨대 진지충이다.

380 → 동교: 세계 최초 변치 않는 밤톨이이자 풍부한 감수성에 텐션 미쳤고 본명보다 중국 이름이 더 친숙한 전교 회장 '출마' 형 발라더

390 → 준석: 참 똥망진 친구

400 → 재현: 수학 빠면 모질이에다 감수성이 0.1%

410 → 해민: 돋보적인 개성으로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문학 소년이자, 하늘고 퇴폐문학계의 개척자

420 → 경호: 하늘고 최강 모델

430 → 상하: 상하이 가서 상하의 입고 축구할 것 같다.

이빨요정처럼 요정은  
김민지 다른거 아닌가요...



2. 자료는 2019년 인천 ㅎ 고등학교에서 조사한 '두둥! 2학년 2반의 앙케이트 조사'이다. 자료를 읽고 가장 웃긴 것을 고르시오.

① 술 마시면 개가 될 것 같은 사람은? ㅋㅋㅋㅋㅋㅋㅋㅋ

1위 - 곽나현 / 2위 - 정휘수, 김채영 / 3위 - 장해민, 김가은



②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은?

1위 - 신서연 / 2위 - 김민준 / 3위 - 이재현, 이하린

③ 전생에 내시였을 것 같은 사람은?

1위 - 오준석 / 2위 - 김현국 / 3위 - 오동교, 김민준

④ 기숙사에서 거울 보고 자아도취할 것 같은 사람은?

1위 - 경성윤 / 2위 - 이재현 / 3위 - 신중욱

⑤ 대학 가도 연애 못 할 것 같은 사람은?

1위 - 장해민 / 2위 - 김채영 / 3위 - 김민준, 손수민

⑥ 동창회 때 안 올 것 같은 사람은?

1위 - 최경호 / 2위 - 황상하 / 3위 - 엄성준

⑦ 대학 가서 클럽 많이 갈 것 같은 사람은?

1위 - 정휘수 / 2위 - 박지우 / 3위 - 김가은, 신중욱, 윤석영



⑧ 무인도에서도 잘 살 것 같은 사람은?

1위 - 김가은 / 2위 - 임다소 / 3위 - 장해민

⑨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것 같은 사람은?

1위 - 연다운 / 2위 - 김채영 / 3위 - 황상하

⑩ 가장 퇴폐적인 생활을 할 것 같은 사람은?

1위 - 이재현 / 2위 - 신중욱 / 3위 - 정휘수, 장해민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 2학년 3반 영역

성명	최성태	수험번호	2	0	1	9	0	2	0	3
----	-----	------	---	---	---	---	---	---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래평가원





김수아



김윤서



임수린

1. <보기>는 위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에 제시된 미술 사조와 관련 있는 대회의 명칭을 고르시오.

<보기>

2학년의 고달픈 현실을 반영하듯 파편적인 형식과 애매한 이목구비를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름끼치도록 자세히 묘사하는 표현 방식은 하이퍼 리얼리즘을 계승한 요소라 볼 수 있으며 그림은 전통적으로 전지에 그려진다. 이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크기의 그림과 함께 기쁨도 같이 선물함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림의 대상은 항상 생일자로 하는 것이 다른 미술 사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 ① 3반 그리기 대회
- ② 생일자 그리기 대회
- ③ 노트북 그리기 대회
- ④ 하늘나래 대회
- ⑤ 꾸안꾸 대회





2. 다음 중 **꾸안꾸 스타일**을 제대로 뽐냈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꾸안꾸 안 꾸안꾸...? ㅋㅋㅋㅋㅋ

- ① A: 나 오늘 회색 후리스에 회색 바지 입었어! 게다가 앞머리도 다 넘겨버렸어.
- ② B: 나 서진이한테 헤어 스타일링 받았어! 정말 손재주가 좋더라.
- ③ C: 나 오늘 짝짝패션 시도해봤어! 회색 양말까지 신고 회색 슬리퍼도 신었어.
- ④ D: 나 회색 체육복 반바지 입고 흰색 롱슬리브 입었어! 펄럭이는 상의와 하의 멋지지 않니?
- ⑤ E: 나 준원의 모범생 사복 패션을 제대로 구현했어! 십자가 목걸이까지 했다고.



**최소민 : 소민이의 빨래 DAY 패션**

= 세탁해서 입을 게 1도 없는 날 입는 오합지졸 패션  
 <회색 후리스 + 회색 바지 + 앞머리 X>

**이서진 : 깜찍한 똥머리부터 머리핀이 탐나는 헤어스타일링 까지! 손재주 좋은 서진 미용실의 데일리 헤어 스타일링**

**김한아 : 짝짝 패션 (소민이의 빨래 DAY 패션 심화 버전)**

= 벌칙으로 쓰기 좋으며 우리 반 마니또 벌칙으로도 제안한 바로 그 패션. 진짜 생쥐가 될 수 있다. <회색 후리스 + 회색 맨투맨 + 회색 바지(8기까지만 갖고 있는 핫아이템) + 회색 양말>

**김준원 : 준원의 모범생 사복 패션**

**1. 롱슬리브**

흔하지 않음 (특히 레어템인 회색 체육복 반바지 + 흰색 롱슬리브 조합 추천)

**2.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스쳐보면 체육복 반바지랑 다를 게 없음 (비쌀수록 멋있다고 한다)

**3. 추천 부속품**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하면 간지나는 아이템

= '목걸이' 혼자 간지나고 싶으면 추천! (십자가 목걸이는 싫어한다고 함. 비추천)



### 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3반 매점왕들이 추천하는 매점 꿀조합에 대한 글이다.
- ② 식혜는 팩으로 된 것을 사는 것이 좋다.
- ③ 미역국은 매운 맛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 ④ 계란을 고를 때 소금이 내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 ⑤ 치즈 스파게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컵라면의 개수는 2개이다.

#### 찜질방 날씨엔 이렇게 (임수린)

= 비락식혜 (팩에 든 식혜는 쌀 안 들어 있으니 캔으로 살 것) + 얼음컵 + 감동란 or  
 균계란 (주의사항: 훈제란은 소금 내장 X, 유사품 주의)



#### 기숙사 파티 레시피 (송다영)

= 불닭볶음면 + 짜장범벅 + 감동란 + 소세지 2개  
 (불닭 소스 1/2 + 짜장 스프에 감동란 숟가락으로 잘 부수고 소세지와 함께 먹음)



#### 불닭게티엔 이렇게 (이다영)

= 손맛미역국 - 매콤한 걸 잡아줌, 참치 - 고소함을 즐길 수 있음, 스트링치즈, 소세지,  
 각종 밥 (삼각김밥, 김밥, 그냥 밥)



#### 치즈 스파게티 (한정우)

= 치즈볶이 + 스파게티  
 (둘이 같이 조리하지 말 것. 따로 물 받아서 소스 넣은 뒤 한 곳에 몰아서 섞어 먹자)





제 4교시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 2학년 4반 영역

성명

서연희

수험번호

2

0

1

9

0

2

0

4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래평가원



## 1. 2학년 4반의 '내가 00이 된다면은'

- 고은솔 → 김연주 맛있는 것 왕창 먹고 살만 찌기 X
- 김연주 → 고은솔 롱다리로 세계일주하기 ㅎㅎ, 뛰어난 그림솜씨를 뽐내며 그리고싶은 캐릭터 다 그리기!
- 김유민A → 신동원 시험기간에 책 읽고 안 혼나기, 물리과세로 독서록 내기
- 박신민 → 김승민 전교의 여학생들과 한번씩 악수하기, 전자칠판 뒤에 USB꽃을 때 머리넣고 꽃기
- 안민영 → 전 솔 화려한 글솜씨로 인소계의 유명 인사되기☆
- 오영은 → 나윤성 동규와 하루쯤은 묵언수행을 실시한다.
- 유소희 → 조하현 머리카락 만지면서 공부하기
- 이희영 → 하지은 웃음찾기대회 열어서 1등하기(지은이 미소 ♡)
- 임다숨 → 권혁제 벌점받는거 신경 안쓰고 불법행위 하기
- 전가을 → 김유민A 하늘고 2학년4반을 위한 역사인강짜기
- 전 솔 → 김도원 간지 실험복입고 간지 화학식 꼬적이면서 간지 화학실험하기(알케 특권)
- 조하현 → 오영은 자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깨닫고 공부는 좀 덜하기
- 천혜선 → 이동규 를 열심히 연습해서 혁제랑 윤성이랑 규화 이길거임 ㅋ.
- 하지은 → 최홍서 덩크슛을 넣는다
- 한지민 → 유소희 매일 1분도 안낭비하고 스탠딩에서 공부하기
- 권혁제 → 한지민 라크로스를 열심히 해볼 것이다.
- 김도원 → 전가을 이제껏 보지못한 최강의 꼴끼를 보여줄 것이다.
- 김승민 → 이병하 면학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할 것이다.(물리 1등급을 위해서)
- 나윤성 → 박도현 상상에 맡기겠다 ㅎㅎ...
- 박도현 → 이희영 희영이의 착한 이미지가 하루 안에 없어질거 같다.
- 신동원 → 박신민 그냥 평범하게 살 것이다.
- 이규화 → 안민영 진짜 이규화라서 못해본 일들을 맘놓고 한다.
- 이동규 → 임세화 현재 세화의 완벽한 머리에 엄청난 외모와 매력이 추가될 것이다!! 신의경지
- 이병하 → 황보은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하늘고 게임대회를 열 것이다.
- 임세화 → 천혜선 혜선의 전재산을 탕진할 것이다.
- 정경석 → 이규화 잘생긴 얼굴로 인☆에서 인싸가 될 것이다.
- 최홍서 → 정경석 선생님들의 인식을 다 뒤집을 것이다.
- 황보은 → 임다숨 남자애를 팔씨름으로 가볍게 이길 것이다.



## 2. 2학년 4반 친구들의 동식물 도감을 읽고 동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고은솔 → 유소희(고양이) 그냥 인간 고양이임. 집사 부러먹기 ㅎㅎ♡♡

김연주 → 임세화(호랑이) 목청이 좋다 어흥!

김유민A → 하지은(고래) 고래얼굴 본사람? · \_ · 천사같이 웃는 얼굴이 최고야 >3<♡

박신민 → 전가을(아낌없이 주는 나무) 친구들한테 뭐든지 잘 나눠준다 기부왕인줄...

안민영 → 김승민(비송) 머리가 복슬복슬하다.

✓오영은 → 박신민(백합) 아주 하얗고 우아하며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유소희 → 고은솔(새) 눈매가 날카롭다.

이희영 → 최홍서(하늘다람쥐) 날아다니는 것처럼 빠르게 돌아다닌다.

임다솜 → 천혜선(표범) 멋지기도한데 나한테 너무 사납다 휴 촌데레

전가을 → 박도현(나무늘보) 말도 천천히 하고 집중할 때 움직임이 없어 나무늘보 같다.

전 솔 → 조하현(투명드래곤) 운동이며 공부며... 못하는게 없는 겁나 짱짱 센 투명☆드래곤☆...

조하현 → 임다솜(고양이) 굉장히 귀여운 생명체로 애교가 넘친다.

천혜선 → 김도원(제주도 미어캣) 도원이는 미어캣을 닮았고 제주도민이니까 ㅎㅎ 제주도 미어캣임.

하지은 → 권혁제(공인척하는 여우) 평소에는 곰 같지만 자기 일은 잘 챙긴다!!

한지민 → 이희영(쿠오카) 연주가 좋아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동물인데 연주가 희영이를 좋아하니까 '이희영 = 쿠오카'

권혁제 → 김연주(개) 잘먹는다

김도원 → 이동규(광어) 귀~~~~!!

김승민 → 황보은(나무늘보) 천천히 모든 것을 다 해낸다.

나윤성 → 정경석(나무늘보) 조용하면서 잠을 좋아한다.

박도현 → 나윤성(모기) 득이없다.

신동원 → 안민영(강아지) 항상 활기차고 웃는 것이 강아지 같다.

이규화 → 이병하(고양이) 너무 귀엽고 남자답다.

이동규 → 한지민(카멜레온) 초딩일 땐 완전 초딩, 진지할 땐 무서울 정도의 진지함 등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

이병하 → 신동원(마른판다) 항상 면학실에서 편안하게 숙취하며 웃는 모습이 판다와 닮았다.

임세화 → 김유민(펭귄) 전체적으로 펭귄같이 생기고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정경석 → 전 솔(유니콘) 상상력(글쓰기)도 풍부하고, 특별하다.

최홍서 → 오영은(앵무새) 활기차다. 잘 웃는다. 말을 잘한다.

황보은 → 이규화(하이에나) 가끔씩 면학실에서 볼 수 있는 큰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다.



3. 다음은 4반이 제주에서 남긴 추억에 대한 사진 설명이다. 이 중 가장 라임이 멋진 문장을 고르시오.

다 라임 있는데, 고르기 어려워 ㅠ ㅠ ㅋ ㅋ

① 4탕처럼 달콤한 4반이들의

② 제주도 수학여행 4진!

③ 지금처럼 4우지 말고

④ 4이 좋게 지내자

⑤ 힘들어도 4기하지 않도록

⑥ 서로를 4근하게 감사주며

⑦ 잘 4아보자

⑧ 우리 우정 4에버

2-4 in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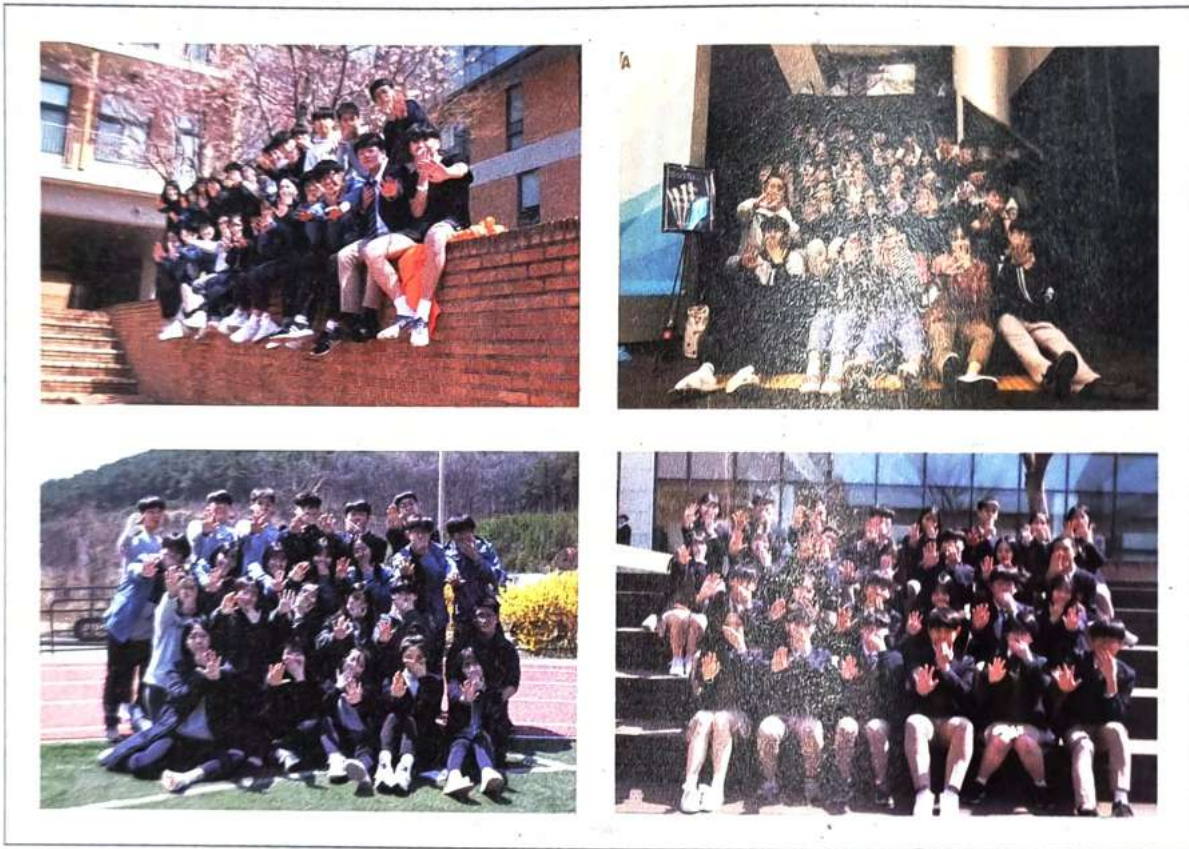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 2학년 5반 영역

성명	황혜경	수험번호	2	0	1	9	0	2	0	5
----	-----	------	---	---	---	---	---	---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라평가원



1. 다음은 5반에서 그려진 전자칠판 초상화이다. 주어진 보기를 읽고 '화가 3'이 그린 그림을 고르시오.

<보기>

- 초상화 화가 Top -

화가1. 단지 그림만이 아닌, 생명체를 만들어내다. '강민지'

1. 제일 좋아하는 작품 : 검정 바탕에 윤지 그린 것
2. 전자칠판 초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화가2. 적절함, 그 속에서 찾은 색다름. '구진모'

1. 제일 좋아하는 작품 : 초점 없는 눈과 김장 현장의 열정이 모순적 조화를 이룬 kimchimin
2. 전자칠판 초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 적절한 재현과 적절한 변형이 중요한 고급 기술입니다.

화가3. Just 복붙과 팝아트는 단 한 곳 차이 '박예나'

1. 제일 좋아하는 작품 : 제 첫 솔로 데뷔작, 이호준의 '나는 가수다'입니다.
2. 전자칠판 초상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 그저 타오르는 예술혼을 제 손이 도울 뿐인거죠.



① 블랙 종이(김윤지)

블랙 종이는 검정 바탕화면에 뚫힌 표정의 김윤지를 그렸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화가 강민지의 대표작이며 이후 김윤지X강민지의 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한 화제의 작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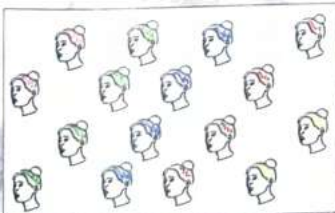
② Kimchimin(양지민)

5반 전자칠판 초상화의 시조와도 같은 존재인 Kimchimin. 가히 '원본과의 통일성, 그 속의 적절한 변형'을 외치는 구진모 화가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작품이다.



③ 나는 가수다(이호준)

화가 박예나는 그의 날갯짓에 불과한 한순간을 거대한 비행으로 만들어냈다. 작은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주고파 사진 위에 숨결을 불어넣은 그 순간, 박예나는 신인 화가로, 이호준은 엄청난 가수로 성장해있었다.



④ 팝민지(강민지)

화가 강민지의 잠적 기간, 겸손한 화가 강민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화가 구진모와 박예나(아마도 합작이었다.)는 파파라치의 제공으로 얻어낸 값진 사진을 팝아트로 재탄생 시킨다.



⑤ 4색 결펜(이한걸)

4색 결펜은 화가 구진모의 작품으로, 다양한 초상화 중 유일하게 '원본이 잘 나와서' 제작하게 된 작품이다. 원본은 1학기 스페셜데이, 엽떡과 치킨을 먹는 모습이었으며, 마치 먹방을 찍는 '하정우'를 연상시키는 이한걸의 모습에 모든 학우가 손뼉을 치며 작품 제작에 적극 지원했다.





2 아래 사진들은 2019년 하늘고에서 방영된 '응답하라 2002'에 나온 사진들이다.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은 것을 고르시오.

와 다 지금이랑 판박이네.



강민지

민지? 어렸을 때부터 기린이었구나?



권수민

오 이때부터 멜빵에 베레모... 패션... 대박이다!!



김설지

헐 머리 긴 모습 낮설어...!



김예린

지금이랑 표정이 똑같달ㅋㅋㅋ어릴 때도 단호하다ㅋㅋㅋ



김윤지

볼살이 지금이랑 똑같은. 찐빵 같아 ㅋㅋ



목소연

뭐 하고 있길래 표정이 다이아믹해ㅋㅋㅋ



박예나

아니 왜 저러고 있는거야ㅋㅋㅋ어렸을 때부터 역동적ㅋㅋㅋ남달랐네ㅋㅋㅋ



박원경

누구야? 남잔데? 아닌가?



송혜린

아긴데... 커피 마시는 건가???



신예원

헐 어떡해 너무 똑같다.



안규원

(확대 전) 누구야?  
(확대 후) 안규원!!



양지민

(양을 가리키며)이게 양지민인 거고,  
(양지민 가리키며)이게 양이야...!



유경민

자세가 거의 회장님이시네.





이명륜

이명륜ㅋㅋㅋ 딱 알아봄ㅋㅋ  
지금이랑 똑같음ㅋㅋㅋㅋ



이유빈

엄청 닮았다. 첫돌?



구진모

와 미쳐따 구진모 ㅠㅠㅠ  
지안모 ㅠㅠㅠ



김종학

아 ㅋㅋㅋㅋ 강 순박한  
시골사람같아...ㅋㅋㅋㅋ



김형찬

와... 누구냐 어릴 때부터 머리  
넘기는 모습이 남다르네...



나상준

상준이 훨씬 환하게 웃는다  
ㅋㅋㅋㅋ



노감민

누군지 모르겠어...  
대체 누구야??



박건용

박건용ㅋㅋㅋㅋㅋㅋ  
너... 아티스트였구나?



박민준

저 때부터 수집광  
이었나...



송한솔

와 진짜 깜짝아 누구냐  
아역 배우인 줄?



이한결

한결아^^  
ㅋㅋㅋㅋㅋㅋ 옆에  
한나야??



이호준

호준아 수학여행 갈 때  
만이라도... 머리 하고...  
안경 벗자 제발



정세민

표정 왜 저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의식의  
흐름이야?



정예준

머리 저 때부터 뽀뽀  
ㅋㅋㅋㅋ 전형적인  
우랑아 같아ㅋㅋㅋㅋ



제 6교시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 2학년 6반 영역

성명

최상규

수험번호

2

0

1

9

0

2

0

6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래평가원



## 1. 학급별 한마디 '6반이 6반에게'



강선우 : 206 1년 동안 고맙고 즐거웠어!

강유진 : 1년 동안 재미있었어~ 모두 원하는 삶 살면서 커서도 웃으며 만나자!

고유진 : 마지막까지 주접떨진 않을게. 우리 쿨해지자.

김기수 : 1년 동안 다들 수고 많았어! 3학년 돼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 하자!

김민영 : 뭘 봐

김수민 : 애들아 여태까지 내 장난 받아줘서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받아줘!

김유민 : 올해 생각보다 재밌었고, 상규 쌤 감사합니다!

박유하 : 애들아 우리 대학가자~♥

박지윤 : 난 술 좋아해, 같이 마시자. 안주필수!!

송다울 : 1년 동안 잘 지내고 항상 유쾌해서 즐거웠어. 다음해에도 잘 지내자.

송연수 : 나 동창회 안 나갈 거다~

송진호 : 나름 반장이니까 주접 좀 떨게. 사랑해

윤준영 : 2학년 6반 1년 동안 재밌었고 남은 1년 잘 보내자.

이현진 : 2학년 6반 1년 동안 수고했고, 내년에 고3이다 ㅎㅎ

전준아 : 애들아 1년 동안 고마웠어. 약 1년 후 대학여신이 되어 돌아올게.

홍지수 : 1년 동안 고마웠고 3학년도 화이팅 파이팅 같이 졸업하자 ㅎㅎ

강경래 : 치킨만 좋아해서 미안! 다음 생엔 떡볶이도 좋아하는 남자로 태어날게!

김정환 : 한 해 동안 2학년 6반이어서 웃을 일 만 가득 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웠어!

문형민 : 1년 동안 고생했어.

박주용 : 1년 동안 수고했고 고마웠다.

박주훈 : 급식 먹고 4층 안 올라와도 교실 갈 수 있어 좋다.

송제우 :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들과 함께해서 행복 했어ㅠㅠ 고마워 애들아 평생 우정하자!!

안지민 : 1년 동안 수고했어.

이서준 : 1년 동안 고마웠어.

장성길 : 누가 뭐래도 롯데 자이언츠는 한국 최고 아니 우주 최고의 야구팀이다★

장우빈 :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가벼운 사이여서 좋았어.

정인수 : 6반들아 1년 동안 재밌었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조민서 : 축구 많이 못해서 아쉬웠지만, 5년 만에 남녀 합반이라 특별했던 것 같아.



2. 다음은 6반을 설명할 수 있는 6가지의 사건 이다.. 다음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 ㉡ - ㉢ - ㉣ - ㉤ - ㉥

1 - 2 - 3 - 4 - 5 - 6

생각해보니까 체육대회가 앞부분인데...  
왜 이런 실수를 한거지?

㉠ 식구



- 6반의 학급 목표인 '식구가 되어 주는 반'
- 6반에서는 매주 식구들과 두 번 이상 점심을 먹으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잔반 1등 간식



- 먹는 거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6반!  
오늘도 어김없이 무잔반 1등을 해 간식을 먹습니다!



㉢ 체육대회



- 모두의 열정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날!  
6반은 응원전 1등으로 상금을 타서 그 돈으로 또 무언가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있네요!





㉔ 만 원의 행복



- 먹고, 먹고, 또 먹는 6반은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명분 삼아 또 먹습니다...(이날 단체 사진은 한 장도 못 건졌다고...)

- 만 원으로도 행복한 6반 ^^



㉕ 캠핑



- 무더운 여름, 여름엔 캠핑이랍시고 또 먹으러 간 6반은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성에 찰까요?



㉖ 수학여행



- 제주도로 먹으러 간 6반! 어김없이 친구들과 함께 먹고, 먹으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 2학년 7반 영역

성명	김지연	수험번호	2	0	1	9	0	2	0	7
----	-----	------	---	---	---	---	---	---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래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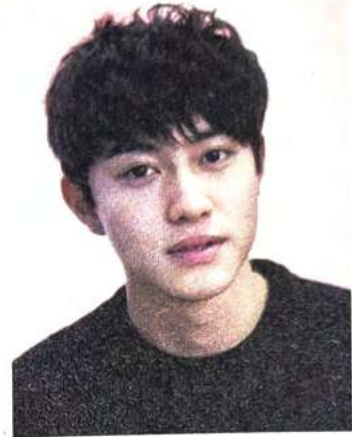
1. 다음은 7반의 님은꼴을 나열한 자료이다. 아래에 빈칸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1) 패트와매트 - 임해욱



(2) 잔디인형 - 박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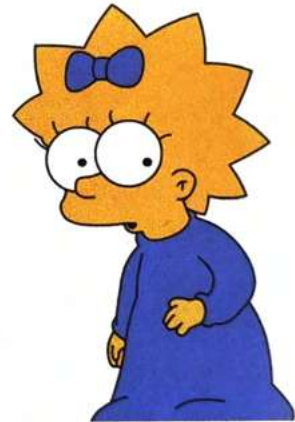
(3) 곽동연 - 김도원



(4) 돌하르방 - 장성찬



(5) 이준 - 김예준



(6) 리사 심슨 - (가)



(7) 장우혁 - (나)

(가)	(나)	(가)	(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채은 - 장현우		<input type="checkbox"/> 조가원 - 조현근	
<input type="checkbox"/> 조가원 - 장현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정미 - 장현우	
<input type="checkbox"/> 서정미 - 정현희			



## 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조현근」

- 김명지 그때였다. 내가 그에게 사랑에 빠진 순간이었다...
- 김예은 2019년 2월 2-7의 반배정을 받아 모두가 처음 만난 날... 처음이라는 설렘이 늦겨울의 냉기를 잊게 해주었다.
- 남유진 그는 날씨가 추웠는지 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담겨있었다.
- 박지은 그의 이름은 조현근,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남자
- 서미소 학급 급훈에 시달리던 그는...결혼도 “재빠르게!!” 해버렸다.
- 서정미 결혼식 당일, 그날도 그는 패딩을 입고 그가 좋아하는 망고를 먹으며 예식장에 재빠르게 도착했다.
- 유채은 모두가 들떠있는 지금, 축가는 아이즈원의 ‘내꺼야’ ... 불변의 센터임!
- 윤정연 그의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서도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장성찬.
- 윤지원 성찬이는 그 와중에 즐고 있었다. 그걸 본 지연쌤은 성찬이의 볼을 꼬집었다!
- 장유선 결혼식을 2배속으로 진행해서 그런지 현근이의 결혼생활도 빨리 끝났다.
- 정현희A 그때, 현근이의 뱃속에는 소중한 생명이 있었고, 빨리빨리 커서 어느덧 돌잔치 날이 되었다.
- 조가원 분주한 돌잔치 날, 사람들은 모두 드레스코드를 패스트패션에 맞추어 입고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 조하영 지금까지 꿈이었다.
- 최윤서 지나치게 고요한 기숙사 방 안,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18분이었다!
- 홍예령 근데 갑자기 두통한 무언가가 현근이를 낚아챘다. ‘어맛..이건 뭐지?’ 현근이가 설레이며 옆을 딱 바라본 순간!
- 김기찬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옷이 손에 걸린 거였다. 아침운동을 하러갔다.
- 김도원 슬리퍼를 신고 나가다가 걸렸다. 신발 갈아신으려 다시 돌아가던 중이었다.
- 김예준 이것도 꿈이었다.
- 김재민 팽이가 돌고 있었다.
- 박건우 팽이를 잡아서 던졌는데, 맞은 사람은 바로 교장선생님이었다.
- 송석현 떨어진 팽이가 또 돌고 있었다... 꿈이다...
- 오대한 그는 두 번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벗어나려 했지만 무의미한 노력일 뿐이었으므로 그는 곧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 이용현 그러나 갑자기 그의 눈에 한 명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건 ‘임해욱’의 얼굴이었다.
- 임해욱 너무나 멋진 해욱이를 닮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현근이는 방법을 찾으려 성찬이에게 상담을 하러 갔다.
- 장성찬 역시나 성찬이는 다리를 뻗고 코로 신비한 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 장현우 신비한 소리를 들은 현근이는 꿈에서 깨어났다.
- 조현근 그리고 시간은 7시 50분!

-2학년 7반, 「조현근」

- ① 결국 현근이는 7시 18분에 일어났다.
- ② 현근이의 결혼식 축가 센터는 성찬이가 차지했다. 장성찬... 그는 인싸 그 자체... ☆
- ③ 현근이가 그토록 재빠름을 추구한 이유는 학급 교훈 때문이다.
- ④ 현근이는 너무나 멋진 해욱이를 닮는 바람을 이룰 수 없었다.
- ⑤ 현근이가 자신이 꿈속에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팽이가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다음 사진들을 7반의 추억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3월 - 가



(2) 4월 - 나



(3) 5월 - 다



(4) 7월 - 라



(5) 10월 - 마

- |         |         |
|---------|---------|
| ① 가나다마라 | ② 가나라다마 |
| ③ 가나다라마 | ④ 나가다라마 |
| ⑤ 나다라가마 |         |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2학년 8반 영역

성명	이지혜	수험번호	2	0	1	9	0	2	0	8
----	-----	------	---	---	---	---	---	---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래평가원



1. 다음 닭은 꿀 콘테스트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않은 사람을 고르시오.

〈명예의 전당〉



김은진-장문복



박지원-모다피



이소현-포비



신원민-하회탈



신진-시드



윤민석-홍진경

이름	닭은꿀	이름	닭은꿀	이름	닭은꿀
김동윤	토마토	변석원	식빵맨	지상혁	모아이석상
김성민	또치	신원민	하회탈	채희준	신진
남동균	슈퍼마리오	신진	시드	정원식	도라에몽
박세호	브로콜리	윤민석	홍진경	김윤서	짱구 극장판 원숭이
박정현	뿌로로	정지호	밤톨		

① 박지원

② 서한나

③ 이소현

④ 신원민

⑤ 신진 *신진이 명예의 전당이라니!!!!!!*



2. 다음은 은진이가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과 은실이의 댓글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 하늘고 불주먹 김은진 ☜

8반이 조선에 다녀왔다는 게 사실이야? 우리 반에 조선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8반의 불주먹 나 김두팔... 아니 나 김은진 뿐인데 대체 누가 왕이라는 거지?

김은실 : 저잣거리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은 \_\_\_\_\_ 이구나.



고하연  
복주머니



김은진  
대비마마



박지원  
무수리



서한나  
녹두장군 전봉나



심유리  
좋은 가문의 세자빈



윤수민  
할 연습 때 세워 놓는  
허수아비 과녁



이민진  
역적의 딸이자  
소현 공주의 죽마고우



이소현  
공주



이형경  
중전, 신진의 아내



임우진  
항아



정재영  
<8선왕조실록>의 작가



최무른  
최상궁





무사



빵과 함께 수입한 토마토



한량



당시 열심히 광합성하는 남세균



저잣거리 미식가 1



암행어사



서양에서 들여온 빵



하회탈



왕



장승로 살다가 구운  
가래떡으로 환생



세자 짝사랑 중인 호지



나무꾼  
(feat. 그의 선녀를 찾습니다)



저잣거리에서 팽과리 치는 광대



저잣거리 미식가 2



저잣거리 빈대떡 킬러

- ① 박세호, 채희준, 김윤서
- ③ 임우진, 정지호, 채희준
- ⑤ 최푸른, 정원식, 김윤서

- ② 김은진, 임우진, 박세호
- ④ 이민진, 채희준, 정원식



2020학년도 8기능력시험 문제지

# 2학년 9반 영역

성명	선생님	수험번호	2	0	1	9	0	2	0	9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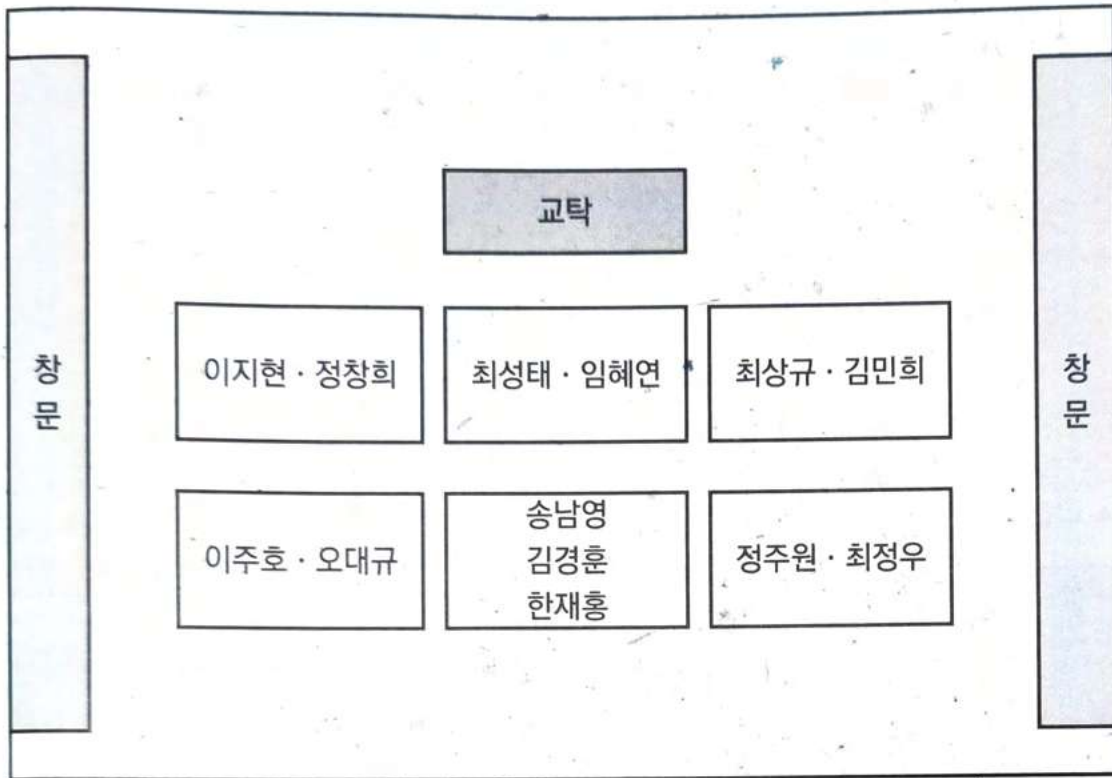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하늘나래평가원



## 1. 우리반 자리 배치표



- 정주원 모든 먹을 것을 다 수집하는 스타일
- 최성태 수업 듣는 것도 열정적으로! 항상 이 친구 때문에 수업이 늦게 끝나는 편...
- 임혜연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강철멘탈.
- 이주호 인생은 마이웨이. 나는 나의 길을 걸겠다.
- 최정우 추운 겨울에 교실 문이 열려있는게 신경 쓰여서 애들한테 문 좀 닫고 다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눈치 보여서 그냥 자기가 닫는 타입.
- 이지현 창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웃기게 하고 싶은데
- 정창희 쉬는 시간에도 책 읽는 문학소녀.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 오대규 수업시간에 대통령 공약 생각 중... 3년내내 진로희망 대통령.
- 최상규 수업시간 중 분위기메이커, 옆 짝꿍과의 대화가 멈추지 않는다. 상규는 민희한테 김민희 무식하다고 구박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하는데... 성적은 항상 민희가 훨씬 좋은... 그런 사이.
- 송남영 남영이와 재홍이는 서로를 좋아하는데... 경훈이는 남영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 경훈이가 불편했던 남영이와 재홍이는 중국어로 대화하고... 경훈이는 또 그걸 보고 남영이가 재홍이와 자신에 대한 연애상담을 하는 줄 알고... 맨날 그렇게 지낸다...



## 2. 우리반 생기부

교과	과목	1 학 기			2 학 기		
		단위수	성취도	식차/제적수	단위수	성취도	식차/제적수
실업가정	가정	2	수	12(4)/239	2	수	13(.) / 237
과학	생물과학	4	수	34(2)/498	4	수	20(3)/499
사회	생물사회	4	수	49(4)/498	4	수	12(2)/499
수학	생물수학	4	수	2(4)/498	4	수	1(.) / 499

▲ 임혜연 : 성적 좋다... 독보적 수학1등... 그녀는 태생부터 수학 천재였다고 한다.

12. 총평 의견	
학년	내 용
1	동작하고 성실하며 미더움을 주며 무엇보다 꾸준한 학구적인 모습이 아름답다
2	정확하고 사려깊으며 성취욕구가 강함
3	긍정적이고 예의 바른 생활 태도로 매사에 노력하며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한 학생임

▲ 김민희 : 공부하는 모습도 아름다운 그녀 민희쌤의 매력에 cheers... ☆

12. 총평 의견	
학년	내 용
1	정확하고 단정하며 학구적이며 학업성적이 양호함
2	성실하고 정의를 따르며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며 생활태도가 바름.
3	의지가 강하고 항상 긍정적이며 학업성적도 우수함.

▲ 최정우 : 학교생활도 힘하고 쿨하게. 강한 의지는 덤.

12. 총평 의견	
학년	내 용
1	세심하고 온순하며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교육관계가 원만하며 특히 중국어분야에 관심이 많아 중국어수업교시시험을 취득하는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임.
2	정직하고 명랑 쾌활하며 교육관계가 원만하고 배려 겸손적이고 부지런함.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성취적.
학년	내 용
1	도가 매우 정직하고 배려심이 풍부하며 단정함.
2	1학기 학급 부회장을 맡으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원리가 잘 이해되고 친화적, 친구들 간에도 협조적이어서 인기가 높다. 또한 중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고, 중국어 회화 능력도 우수함.

▲ 한재홍

고등학교 때부터 눈에 띈 그의 중국어 실력...  
니슈팔러마?

6. 행동 특 성	
학년	내 용
1	근면하고 두뇌가 명석하며 집중과 끈기 있음 (가)
2	우뇌가 발달하고 손재주가 요법적임 (가)
3	조용하며 단정하며 모범적임 (가)

▲ 최상규

고3때 180을 찍어버린 그의 피지컬은 예전부터 완성형. 두뇌의 명석함은 여전하지만, 근면은... 어디갔나요?

12. 총평 의견	
학년	내 용
1	가정생활과 학업생활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학업에서 보여준 특이사항으로, 실용영어, 생활영어, 가정영어 등 가정 교육 프로그램 이수 (2000년 2월 1일), 제2회 학생회 정기 총회 봉사장 수상 (2000년 11월 2일), 학업 완장으로서의 충실수행하고, 학업은 물론, 생활도 훌륭하며, 가정생활도 훌륭하고, 장려되어서 생활이 충실, 갈수록의 호재가 있음.
2	학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또한, 생활도 훌륭하며, 장려되어서 생활이 충실, 갈수록의 호재가 있음.
3	정직하고 모범적이며, 사교적이며, 배려심이 풍부하며, 모범적이며, 장려되어서 생활이 충실, 갈수록의 호재가 있음.

▲ 최성태

고등학교때는..... 지금은..... 대화거부?

행 동 특 성	
대의바르고 사교성이 풍부함	
교우 관계 원만하고 생활에 충실함	
조용하며 침착하고 모범적임	

▲ 김경훈:

고3 수험생활은 저스틴도 조용하게만든다...



3. 우리 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지현

스물셋 지현이... 군대 갔다 오고  
동방신기 노래 좀 불렀...구나



정창희

문학 소년 아니라 소녀  
창희. (두발규정이 밍다...)



송남영

대학가면 나처럼  
놀 수 있다!



최성태

성태 요정 인증샷



최상규

3초전 사진



김경훈

감출 수 없는 피곤함...ㅜㅜ



이주호

님들, 저 귀엽나염☆?



오대규

제22대 대통령 후보  
포스터







# Haneulstagram



3학년 1반



#하늘고에서 #지내면서 #이거 #못해봐서 #아쉽다







#하늘고에서 #지내면서 #이거 #못해봐서 #아쉽다

- 권용호 다이어트
- 김민준 2학년 학술제...
- 김재영 진실만을 말하기
- 김재욱 부모님께 안부전화...
- 김진현 안경 쓰고 당당히 다니기
- 김태응 수학여행 가기
- 류태하 친구들로부터 공부 질문 받아보기
- 박나민 한 번이라도 친구 웃겨보기
- 박태우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
- 박현근 축구 SH컵에서 득점왕
- 박현서 더 노력하지 못해 아쉽다
- 안현태 손 씻기
- 유승원 일요일 아침 먹기
- 윤성재 다이어트
- 이민재 무단외박
- 이성혁 재돌이 한 그릇 똑딱!
- 이율민 급식 남기기
- 이종원 무단외출
- 장재연 이도현 배 터뜨리기
- 정건훈 양치
- 정지훈 전체조회 때 단상 위에 올라가기
- 조국호 율민이와 결혼♡
- 최승완 2-1, 3-1 친구들과 룸메이트와의 파티
- 최태웅 굿모닝 체크 1등
- 하승윤 할 거 다 했다.
- 황인건 친구들을 위한 배려





3학년 2반



#우리반 #교실에 #있는것중 #내가 #가장 #애용하는것







#우리반 #교실에 #있는것중 #내가 #가장 #애용하는것

- 곽한이 박세은!~ 먹을게 많음~♡
- 김나림 쓸쓸이 인형~ 잘 때 조음 ~♡
- 김다운 신서영. 매점에서 소세지 먹을 때 데리고 가면 안 심심해서 좋음.~♡
- 김민주 쌀쌀이 인형~ 잘 때 조음~♡
- 김소정 매직. 그림그림
- 김주은 매일같이 품에 끼고 땡긴 올라프 담요 ~♡
- 김현지 암석이 베고자기 딱 좋음~♡
- 나윤서 담요 베개로도 쓰고 이불로도 씬~♡
- 명성운 윤을리 털, 하루 온종일 가지고 놀 수있음.
- 박세은 쓸쓸이 인형~ 잘 때 좋음~♡
- 박채원 내 담요! 하늘고 모포 아님;
- 손예지 김주은의 음흉한 눈빛(기괴해서 눈 마주치면 바로 잠깸) 넘 좋음~♡
- 신서영 김현지랑 나윤서. 최고의 버그마스터~♡
- 신은섭 이채연 손,잡으면 시원해서 딱 좋음~♡
- 오승연 손예지. 팔씨름으로 허세부릴수 있음(미안한데 윤무영이 끝찌거든? from.예지)
- 윤무영 교실에 있던 빨간색 색연필~. 그림이 잘 그려짐~♡
- 윤을리 책상 전면에 있는 가림막, 다른 애들것보다 내려가 있어서 발 올리기 딱좋음!!~♡(feat. 발냄새)
- 이다영 A4박스 ㅋㅋㅋ 만능 다용도 박스라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짐도 넣고 간식도 넣고 잡동사니도 넣고~ 노트북 거치대(?)로도 좋음.
- 이여원 벽시계 수업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됨
- 이채연 손예지 웅동이!~♡
- 임효령 암석이, 강 다 좋음X
- 장인아 스탠딩 책상, 졸릴 때 최고!
- 정지윤 멀티탭, 다같이 노트북하기 좋음^^~♡
- 조승혜 책상 오른쪽에 낙서하거나 메모하기 좋음...
- 조효리 김다운 아이스티, 이 집 맛집임~♡
- 추지원 자리 바로옆, 현주쌤이 주신 선반... 좋음...ㅋㅋㅋ~♡
- 함주현 내 푸 담요





# Haneulstagram



3학년 3반



#고3이 #되면서 #알게된 #나의 #새로운 #모습







#고3이 #되면서 #알게된 #나의 #새로운 #모습

- 곽나영 김새는 아재개그, 김빠진 콜라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권채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더라...
- 김도희 석가모니처럼, 나도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김세희 은은하고 꾸준하게 많이 먹는다.
- 김수현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 김지나 다양한 별점 수집에 따른 누적별점 168점과 3번의 퇴사, 마피아 42 10000판과 롤 1500판을 금년에 한 게 놀라움.
- 김한비 러 삼푸를 사용하게 되었다. (생각보다 크게 바뀐게 없다.)
- 박세은 라면에 닭강정까지 먹고 3분 안에 뒷정리하는게 가능하다는 것.
- 박신애 대담하게 외부음식 시켜먹기ㅋㅋㅋ
- 박주이 학년 바뀐다고, 특히 고3 된다고 별로 달라지는게 없음을 깨달았다.
- 백다울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힘들어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 서예진 서예진이 이렇게 느린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
- 송다혜 찾게 되었다. 대학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 신혜원 아픔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
- 안수연 갈수록 산책이 좋아진다. 개가 된 기분이다!
- 안예진 계슈탈트 붕괴가 자소서 쓰면서 또 일어날 줄은 몰랐지..
- 엄유선 고기중독자임을 (특히 가금류) 알게 되었다.
- 우하영 마빡을 까고 다녀도 이제 아무도 안 놀란다... 씩씩...
- 유주희 왔더... 힘들 때 혼자서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 윤정연 다 끝났다. 두 번 다시 보내고 싶지 않은 시간이다.(재수 존경)
- 이유빈 한 번도 크게 아팠던 적 없던 나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걸 느꼈다.
- 이지혜 잔머리를 굴린다고 넘을 수 있는 1년이 아니라는 것.
- 전최희 하루에도 수백 번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 정의현 자는 시간이 3학년이 된다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졸더라...ㅠ
- 조예은 살다살다 일주일에 떡볶이를 이렇게 많이 먹는 날이 올줄이야... ㅎㅎㅎ
- 최인아 앙앙...아빠랑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울었다. ㅠ
- 황유나 해가 뜰 때까지 교실에서 밤을 새우며 불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학년 4반



#정글에서 #가장 #잘살아남을것 #같은 #생존력 #甲은?







#정글에서 #가장 #잘살아남을것 #같은 #생존력 #甲은?

- 김유민 오하빈, 어디서든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하빙♡)
- 김제이 인희, 아무거나 잘 먹는다. (♡)
- 박지연 오하빈, 아주 내추럴하고 유쾌한 친구이다.♡
- 성주연 윤연수, 식물 전문가라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 신다영 정민, 나한테 자기는 너 같은거 없어도 잘 살아갈 수있다고 해따ㅠ
- 오하빈 나, 요가매트만 있다면 어디든...요가매트♡♡
- 유채연 정글이고 자시고 난 지금 몹시 배고프다. 곱창,연어,치즈,스팸,간장게장,모듬초밥,킬바사 소세지...아가들아 보고싶다. 새끼돼지라고 해도 난 다 먹을거다.ㅋ
- 유태경 유진우, 아마존랩과 찰떡인걸 보니 태생이 정글과 가까운거 같다.
- 이인희 유진우, 정글체험 가이드로 취직할 것 같다.
- 이희원 신다영, 지나가던 원숭이를 붙잡고도 재미는 얘기 하라고 할 소녀다^^ (그만 좀...제발)
- 장혜림 유채연, 배고프면 애벌레랑 귀뚜라미도 산 채로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채어나 사랑해♡)
- 정 민 오하빈, 정글에 떨어져도 곱창을 먹겠다고 집에 갈 것이다.
- 김남준 유진우, 정글에서도 적응해서 거기서 잘 살 것 같음.
- 김병찬 경훈쌤, 생존을 초월해서 정글에서 보드 타면서 노래 부를 것 같다.
- 김지호 문준원, 정글에서도 위화감 없는 비주얼이다.(APZ)
- 문준원 나, 정글에서도 위화감 없는 비주얼이다.
- 박지호 봉한성, 원숭이랑 같이 춤 출 것 같다.
- 봉한성 한동엽, 컴퓨터만 있으면 비행기 해킹해서 탈출할 것 같다.
- 서주연 유진우, 혼자 떨어져도 월슨같은 친구를 만들어 잘 지낼 것 같다.
- 유진우 서주연, 꼬꼬리와 함께 작곡하며 살 것 같다.
- 이형진 나, 근데 성경책은 가져갈 수있는거죠?
- 전철우 ♡여자친구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 정규채 이형진, 북극곰(형진이)의 생태계 교란! 앞발 후리기로 정글에서 서열 1위 달성!  
(형진아, 사랑해♡♡)
- 최우진 박지호, 정글친구들을 꼬셔서 잘 살 것 같다.
- 한동엽 나. 어차피 찾으러 올 사람도 없다. 이미 적응 완료.





# Haneulstagram



3학년 5반



#1년간 #가장 #스펙타클 #했던 #일은?

권선영 청년다방 가고싶어서 공휴일에 학교 밖까지 나왔는데 쫓보 2명이 무섭다고 굳이 다시 들어간 일. 너무 웃기고 어이없었음.

김성은 떡볶이 먹고싶어서 무단외출한거 (쫓보 2명 탈주)

김시아 매일매일

김유진 떡볶이 먹으려고 무단외출

김은아 권선영, 김성은, 김유진, 이현채, 정윤아, 김민후, 양재혁, 이민재, 김준수와 함께 주기적으로 외부음식 시켜먹은 거







#1년간 #가장 #스펙타클 #했던 #일은?

- 왕아현 연장면학때 노래방 갔다 걸린거 (근데 봐주심♥)
- 이서연 수능을 코 앞에 두고 독감에 걸려버린 일
- 이유진 남들에게 하지 못 할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안고 산거
- 이지은 322호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 신나게 놀다가 생활관 선생님께 걸린거.
- 이현채 면학시간에 베란다에서 치킨 먹은거
- 임우리 원시인(王) 사냥을 피해 지은, 유진이랑 도망다니는 매일매일 (배고플 때 사나워짐.)
- 정윤아 애들이 말한 졸보가 나인거.
- 허예진 바깥세상의 음식이 먹고싶어서 아주 당당히 병원 가는 척 쿨럭대며 나갔다가 돌아오고 걸리지 않았다!
- 김민후 뭐... 나같은 경우는 매사에 성실하고 올바른 자세로 임하는 모범생 스타일이라서 딱히 스펙타클하다고 할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음. 음 굳이 꼽자면 쉬는시간에 매점 갔다가 늦게 들어온일?
- 박건후 내 옆방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난거
- 박승빈 컨퍼 끝나고 택시타고 오다가 택시에 아이팟 두고 내렸었는데, 다음 컨퍼 끝나고 들어올 때 탄 택시가 우연히 같은 택시였고, 기사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셔서 아이팟을 되찾아줬을 때.
- 신윤섭 병원 외출 나가서 방송으로 이름 세 번 부를 동안 햄버거 먹고 경위서 쓴 일
- 양재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본거 (+배달음식, LOL '물약풀이소년')
- 윤지웅 너무 많지만 굳이 하나 고르자면 200호에서 친구 5이랑 치킨 먹는데 생활관 쌤이 들어왔을 때
- 이도엽 주석쌤과의 하룻밤 (Best of best 짜릿해!)
- 이민재 면학 때 배드민턴 치다가 생활관 쌤한테 걸렸는데 도망간거.
- 이한국 배달음식
- 장형운 친구1과 친구2가 챔스 결승 본다고 새벽에 생활관에서 탈주한 거.
- 제일규 면학시간에 이민재랑 하준수랑 춤추다가 혼났는데, 혼날 때 너무 웃어서 생활관에서 더 혼난거
- 지수한 강당에서 트리플악셀 돌다 다리 부러진거 (쌤은 아직도 계단에서 넘어진줄 앓.) 대학교 댄스동아리 가자!!)
- 최준명 병원외출 가서 고기먹다가 조기성쌤이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심장 떨어질 뻔함.
- 하준수 불 꺼진채 잠겨있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도서관 창유리에 갑자기 사람 (이민재) 이 나타났을 때





# Haneulstagram



3학년 6반



#고등학교 #시절중 #가장 #잊을수 #없는것, #혹은 #그사람

- 김소정 '신김치 없이는 못산다! 에너지 드링크 대신 신김치를 먹자는 예원이의 창의력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 김시연 한동안 학교 구석구석에서 깜찍한 울동과 함께 '이빠이빠'를 부르던 소정이의 모습 (소정曰 솔직히 송형준, 손동표보다 내가 더 귀엽다!)
- 김혜은 "김혜은, 나 10분만 있다가 깨워줘." 라고 해서 깨워주면 "김혜은, 나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잘게." 라고 말하던 baby시연의 모습 ♡♡♡
- 나해운 조그만한 몸으로 납작 엎드려 쿨쿨 자서 면학실을 도는 주석쌤의 매의 눈을 피한 혜은이의 귀여운 피지컬ㅎㅎ
- 노승지 수행평가 전에 청심환 먹는 '세상 풀보 눈물장인 나해운' (306baby 원탑임.)







#고등학교 #시절중 #가장 #잊을수 #없는것, #혹은 #그사람

- 심주영 연장 다 끝날 때까지 곤히 자다가 갈때되니까 자기는 비연장 하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승지의 다급한 뒷모습
- 안수빈 '나 오늘부터 매점 안가.' 라고 선언한지 채 4시간도 안 지나서 라면을 들고오던 우리 주영이ㅎㅎ (+10kg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냥 마음놓고 드세요)
- 안주영 수업 있는 줄도 모르고, 면학실에서 혼자 자습하다 뒤늦게 깨닫고 교실 앞까지 왔다가 대곤쌤이 무섭다며 가볍게 수업 짤고 다시 돌아가던 수빈이의 뒷모습 ♡
- 이지윤 습식 사우나 같은 여름날, 반바지 입고 양쪽 다리에 쿨링패치 두 개씩 붙이고 나타난 주영이 신세계-☆ 그래서 양말은? ㅎㅎ
- 임소민 영어와 국어는 틀리는 거 자체가 수치인 지윤이. 국어 모의고사 EO는 30분 자고 시작, 영어듣기 때는 귀마개 끼고 보는 지윤!♡
- 장소연 '유치원은 사람만 가나^^♡'미니 (소민's강아지)도 유치원을 보내는 임소민의 정체는?
- 최민정 '윤사 어렵다던데...'라는 말 한마디에 선택과목을 바꿔버린 소영이의 갈대같은 마음.
- 한예민 매점에서 매일 생일선물 사는 것처럼 과자를 사고 젓가락으로 과자를 헤치우는 민정의 젓가락질 ("그래도 난 살 안찼음!")
- 한예원 병든 닭처럼 수업시간에 맨날 졸고 밥 먹지도 않고 졸리다고 자는 깜찍한 예민이의 뒷태♡
- 강동열 항상 수학만 파는 우리학교 최고의 수학 빠돌이 원이. (문제는 수학만 팸.)
- 고정원 과거의 체력을 믿고 서툰 완주를 비웃다 중도포기한 동열이의 근자감이 인상깊었다.
- 김범수 수능 30여일 전까지 수능완성 국어를 안 사다가 민희쌤한테 시원하게 맞는 정원의 모습이 잊혀 지지 않는다.
- 김순호 그녀와 헤어진 그날 밤. 평평 울며 슬퍼하던 범수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다른 여자와 페메를 했다고...)
- 김태명 자신이 애들사이에서 인기 많은거 알고 있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 한다는 순호의서슴없는 발언 (순호 曰 "솔직히 내가 고백하면 안 받아줄 여자 없다.")
- 노 설 쓰레기장처럼 책이 쌓인 면학실 책상 위에서 하루종일 탭으로 웹툰을 보던 우리 명태의 모습 (미니쌤은 태명이 열심히 공부하는 줄로 알고 있다는)
- 안현준 3등급 이하는 사람이 아니라던 노설의 당당한 한마디가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 이성수 분리수거를 하자고 해놓고는 정작 분리수거 할 시간에 보이지 않았던 현준이는 못 잊을 것이다. (그래서 나 혼자 다 버림.)
- 이호성 언제나 급식실로 열심히 달려가던 성수가 그림다!
- 전진택 호성이의 노래를 매일 듣고싶다 ^^
- 정준석 항상 잠만 자던 그의 모습!
- 조병교 노트북 화면을 0.01초에 3~4개씩 획획 바꾸던 준석이의 손놀림 (바꾸기 전엔 무슨 화면이...?)
- 조상현 온몸의 모든 털을 한번씩 밀었던 병교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곳마저도... 물론 머리카락이요 ㅎㅎ)
- 한규원 상현이가 교실에 두고간 지갑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먼저 발견했더라면...)





3학년 7반



#내친구가 #써준 #미래의 #내모습







#내친구가 #써준 #미래의 #내모습

- 김민지 우연히 만난 손흥민과의 운명적인 결혼을 꿈꾸며...
- 김윤아 리한나의 뒤를 잇는 팝스타
- 김채연 반년동안 주우재 손 크기, 윤판판 목소리의 남자를 기다리는 중
- 남민정 가리비 먹방 1인자 bj (다른 음식도 먹어요)
- 박예원 장풍 쓰는 무림 고수
- 배서연 먼 길을 홀로 걸어온 철학 소녀
- 송수인 저스트 라이크 수인. 전 인류의 Role model
- 송현지 결국 하게 된 키즈 모델! (키즈 중엔 제일 큼^^)
- 이하늘 혼자서 옴로 인생 즐기다 애인 500명..!
- 정한나 하염없이 옴로 인생 즐기다가 아프리카 bj로 전향♥
- 조미성 눈이 먼 사람이 한 돌이 아니었다고 한다. ○○대학교 여신 조미성, 그녀를 본 순간
- 지민선 친숙한 그녀의 이름 지민선. 그녀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가 아는 맛집 사장님이 되었다
- 최 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X
- 강태영 의사...가 필요하다
- 권우인 결혼 제일 빨리할 친구 (22살)
- 김유민 혼자 아인슈타인의 위상을 뛰어넘은 뒤, 노벨상을 받고 '유민역학'을 물리학계에 정립한다
- 김태준 식케이의 오른팔
- 박찬혁 필요한 무언가를 발명!!
- 송인규 참된 신랑감
- 유원석 축축한 눈가로 여자의 마음을 녹이는 남자
- 이민수 의지와 집념으로 이루어낸 피부미남
- 이은규 금으로 건축물을 만드는 세계적인 건축가 flex
- 임재성 오지게 부자인 카다시안네랑 결혼해서 세기의 엉덩이 커플 탄생!
- 전찬웅 만천번째 여자친구와 결혼
- 조주호 원래 있던 거 재밌었는데... 왜 지웠어..? 먹고 싸는 원숭아... 원거리에서 봐도 그는 3-7 얼굴마담이었다.
- 최원열 이대로 본인의 꿈을 이루고 최재웅의 노예가 된 삶ㄸ
- 최재웅 상상하던 대로 기장의 꿈을 이룬 후 최원열의 노예가 된 삶ㄸ





3학년 8반



#하늘고를 #다니면서 #이런... #건강해졌다!







#하늘고를 #다니면서 #이런... #건강해졌다!

- 김다인 현영쌤과 배드민턴 내기했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김도연 영계백숙 오오오오~ 족발당수 오오오오~ 여진아! 부탁해!
- 김시현 쌤께서 끓여주신 라면 먹고 이런... 건강해졌다!
- 김재원 한해동안 8반 친구들과 현영쌤의 사랑을 먹고 이런; 건강해졌다♥
- 박재연 해가 바뀌고 혜정이의 빛나는 이마를 매일 만졌더니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강해졌다!
- 신혜정 동을 한 바가지 썼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윤가영 안 건강해졌다. 슬프다.
- 이소은 강하늘 강하늘 강하늘!
- 이시원 사랑스러운 소은이랑 맨날 싸웠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정민주 탈을 하도 많이 했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조성아 써프라이즈^^!! 밥을 잘 챙겨먹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이런... 건강해졌다!
- 진하늘 요란하게 면학실에서 춤을 쳤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차시윤 가도가도 끝없는 아침운동에 이런... 건강해졌다!
- 최여진 족발 씹고 뜯고 이런, 건강해졌다!
- 김기림 같잖은 친구(박성근)와 함께 했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김상현 은근 장염에 걸렸더니 수척해지고 이런... 건강해졌다!
- 김승구 친가 가족분들, 외가 가족분들 다들 응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 이렇게 잘 컸습니다.
- 김재현 구수한 방귀를 면학실에서 은밀하게 꺾었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김준희 들썩들썩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꼬야 이런 나를 봐 건강해졌자나!! ^3^
- 김태웅 아침체크를 위해 매일 아침 운동장 전력질주를 했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박성근 잘생긴 내 얼굴을 아침마다 보았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이도현 지렁이 좋아하는 성근이와 매일 놀다보니 이런... 건강해졌다!
- 임지환 내일 걱정도 하지 않고 놀다보니 이런... 건강해졌다!
- 정성훈 고민 끝에 수학 30번 5분 컷 했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최정우 마지막에는 휠체어를 탔지만 카바디를 했더니... 이런... 건강해졌다!
- 최진혁 웬(What) the fxxk! I became heaaaaalhtyyyy!! Hurraaaaay!! 🎉🎉🎉
- 한규완 어라? 앞글자만 읽어보니 이런 건강해졌다... 후후...



# *NKling*





# 하늘고 파이널 매거진

Haneul Academy Final Mazine





# 하늘 복면가왕 참가자, 가면 벗으니 선생님?



Q 복면가왕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별 생각 없이 음악 선생님의 요청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회에서 우승하면 가수로 데뷔할까 잠깐 고민도 했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정동진 학생'이라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A 아, 올해도 나와 비슷한 크기의 생명체가 존재하는구나, 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동진아,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결혼.

Q 떨어졌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A 대회 전날, 아내와 누운 자리에서, 나 내일 우승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했는데, 아내가 그런 쓸 데 없는 소리 그만 하고 자라면서 돌아눕더군요. 그 모습이 생각나서 그냥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우승은 무슨. 저는 교사가 천직인 것 같아요.

Q '안아줘'라는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라서요. 근데 떨어졌어요. 첫 판에. 처참하게. 가수는 무슨. 저는 교사가 천직인 것 같아요.

Q 복면가왕 참가 이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A 자꾸 날 보고 웃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조심해라.

Q 내년에도 이런 대회가 있으면 또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A 대회는 사실 무언가 의향을 갖고 참가해본 적이 없어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올해의 부끄러움이 내년이 되면 과연 사라질까 의문입니다.

김지나, 이민아, 지모경 기자



## What is skin picking disorder?



Have you ever tried to squeeze your pimple or blackhead? Although you have not squeezed it, you must have felt temptation to touch it. However, if you squeeze or scratch until your skin hurts or swells up badly, you may have 'skin picking disorder'.

According to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excoriation disorder is a kind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Patients try to touch, scratch, or bite their skin. They try to relive their anxiety and nervousness through skin picking. While the exact cause of this disease is unknown at this point, it is presumed that many factors such as stress, negative thoughts and skin disorder may be the causes of this symptom

There are many kinds of treating methods. First, we can treat it with medication such as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In additi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an be helpful. With this therapy, patients can figure out their disease by experimental study. Above all thing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recognize your symptom by oneself.

최현진 기자





# Google docs in Haneul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이 조별 과제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구글 문서 도구, 즉 'Google Docs'일 것이다. Google Docs는 Google의 웹 기반 서비스로, 워드 프로세서 기능 외에도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와 사진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Google Docs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문서를 공유 및 편집을 할 수 있으며, 수정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내용이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Google Docs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익명의 동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기존 Google Docs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문서를 사용할 수 있어 우측 상단에 사용자를 표시하는데, 문서가 공개적으로 공유되었거나 Google 계정을 가지지 않은 사용자에게 공유된 경우에 사용자가 '익명의 동물'이라고 표시된다. Google Docs는 2014년, 기존에 '익명의 사용자'로 표현되던 부분을 '익명의 동물'로 바꾸었으며, 현재 가마우지, 냥고양이, 크라켄, 잭카로프, 줄무늬 다람쥐, 추파카브라 등 다양한 동물이 있으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동물까지 포함하여 약 60종의 동물이 사용되고 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사소한 변화일 수 있으나, 기존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던 '익명의 사용자'가 동물이라는 친근한 소재로 바뀌면서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하고, 다양한 동물의 종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아직 Google Docs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메신저를 통해 문서 공유 링크를 열 경우, 일부 서비스에서 피싱, 바이러스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링크를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가 문서를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익명의 동물이 표시된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문서의 경우 이러한 점은 정보의 유출을 의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보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Google Docs는 현재의 장점에 보안성까지 갖춘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정현희 기자



## 조선시대의 화장은 어땠을까?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똑같은 것 같다. 심지어 화장법도 꽤나 비슷한 편.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선시대 화장품에 대해 화장 순서대로 알아보자. 화장을 하려면 우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하얗고 고운 피부를 위해 세안할 때 조두를 문질러서 사용했다.

조선시대에서는 가느다랗고 반달 모양의 눈썹이 미인의 조건이었다. 그래서 굴참나무, 밤나무 같이 단단한 나무의 숲을 이용해서 눈썹을 그렸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입술과 볼을 발그레하게 만들어 줄 연지가 필요하다. 연지는 홍화 꽃잎을 찢어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태운 꽃잎을 물에 재워 그 즙을 걸러내어 굳힌 것을 사용 했다. 홍화에는 황색 색소와 적색 색소 함유되어 있어, 빨간색과 노란색을 주로 볼에 발랐던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는 안성맞춤인 화장품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화장 방법을 집에서 따라해보며 조선시대 미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김유민 기자



# Refugees In Libya



Libya has had a number of refugees through 2018 Italy's rejection of refugees, civil war, and diplomatic dispute for a long time. As foreign countries refuse accepting refugees, they are undergoing many difficulties.

Currently, 5,000 to 6,000 refugees and migrants are detained arbitrarily at the detention center. Not only in battlefields but also in other areas hundreds of people are threatened in violence, death, and countless hazards. Many countries refuse accepting refugees because it causes lack of resources for welfare and conflict due to religious differences, and bigger chances of terrorism and secondary damage.

Today, many countries are discussing refugee-related policies. Italy and France are showing positive response to the new refugee system. Also countries that refuse accepting refugees are assigned to a financial penalty. We should discuss about ways to solve problems happening in accepting refugees and create policies that can boost economic growth through refugee acceptance.

김지나 기자





## 왜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시작 했을까?



2019년, 대한민국은 "NO, BOYCOTT JAPAN"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을 진행하였다. 불매운동은 과거에 있었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일본 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었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항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불매운동은 SNS를 통해서 더 크게 확산하고 있다. 일본의 브랜드를 대체할 국내 브랜드를 추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는 등 불매운동은 점점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매운동은 자신의 가치관을 고려한 자발적인 행동이므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하지만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이유와 불매운동이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태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희, 김윤지 기자





# See Behind Walls

## 2019 외국어 동아리 페스타



### See Behind Walls, 2019 Foreign Language Club Festa

On Nov. 2nd, the "2019 Foreign Language Club Festa" was held by various foreign language clubs of Incheon city at Gachon University Medical Campus Nursing College to set the stage for diversified cultural and language experiences. Incheon Haneul Academy's English newspaper club, "INKling", was one of them. It prepared a booth for experiences and special stage events, including musical stages based on the movies and Japanese-language plays. In addition, INKling prepared a presentation and a video about its 1-year project, 'The YeongJongdo Project'. Also, it prepared pamphlets which introduce various attractions in YeongJongdo and the location of Incheon Haneul Academy. The orchestra club, Cielo's, music performance uplifted atmosphere of the venue, too.



The booth provided hands-on experiences of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round the world such as Thanksgiving and Halloween in the U.S. Also, there was the quiz contest about YeongJongdo like where Incheon Haneul Academy is located.

As it is an era of globalization, I hope many educational events to be held to let students experience various cultures in one place.

최현진 기자



# Hangeul Proclamation Day



Reminders the Meaning of 573th Hangeul Proclamation Day

Hangeul Proclamation Day is one of the five national holidays in South Korea and on October 9th. It celebrates the proclamation of Hangeul, which is Korean alphabets.

Hunminjeongeum was promulgated in 1446. King Sejong made Hangeul because Chinese character was too difficult for ordinary citizens. Hangeul is a very scientific alphabet. Its consonants and vowels represent the shape of tongue when the sound is pronounced.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Japan

tried to obliterate Hangeul. Accordingly, in 1926, the Korean Language Society established October 9th as Hangeul Day. Seventy-four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but the remnants of Japanese language remain, and foreign languages are also overflowing. People who do not have their own means of expression end up losing their cultural sovereignty. Celebrating the 573th Hangeul Day, we should remember that safeguarding cultural sovereignty is a daily task for all of us.

김규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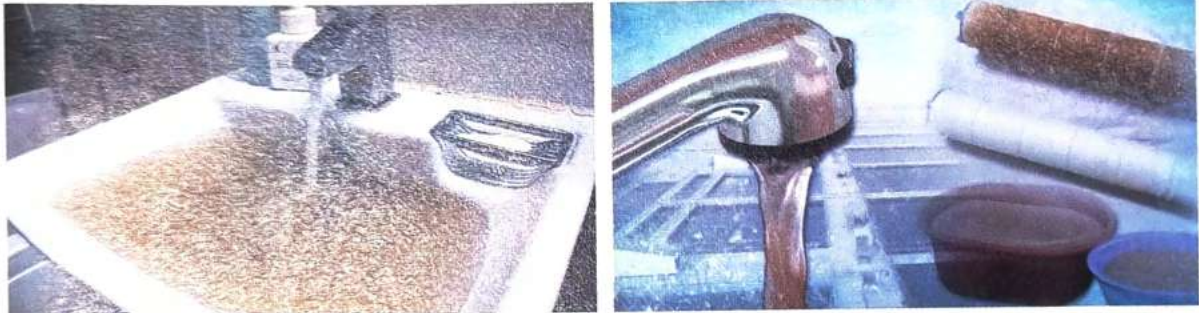


# 인재(人災)



지난 6월 인천 서구 및 영종 지역에 붉은 수돗물 공급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인천시 중구청은 학생용 생수 500ml를 공급했다.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는 하루에 생수 두 병이 지급됐다.

일명 '붉은 수돗물 사태'는 약 두 달 동안 지속되며 많은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수십일 간 학생들을 포함한 인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해당 사태는 초동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친 '인재'였다.



초기에는 인천 서구 한 지역 뿐이었지만 시일이 지나자 영종도나 심지어는 강화도까지 피해 구역이 넓어졌다. 시간이 흘러 사태가 발생한 지 3주째에 접어들었을 당시에 인천시는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마치지 못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그제서야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촌정수장을 시찰하였다. 무리하게 물 공급 방향을 바꿔 수도관에 이물질이 유입됐지만 이물질 탐지 기계(탁도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19년 9월 24일, 탁도계의 오작동이 사실 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에 의해 고의로 꺼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의 탁도를 정하는 탁도계를 꺼버린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역할을 잘 이행하지 못한 소수의 행동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윤지, 정현희 기자



# 하늘고의 급식 대란!!!



10314 최현진, 108 백지민

지금까지 이런 급식은 없었다. 이곳은 학교인가, 레스토랑인가?! 오늘은 2019년 한 해 가장 맛있었던 메뉴 Top 4를 선정해 소개하려고 한다.

There has been no lunch like this! Is this a school or a restaurant? Today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top 4 menus in Haneul.



## Top 1. 감바스알하이요



부드러운 빵과 통통한 새우의 조화, 감바스를 학교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늘고의 소소한 행복이다. 향긋한 빠에야와 짭조름한 베이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알찬 식사이다.

Enjoying harmonious Gambas that has soft bread and chubby shrimps is a small pleasure. This is a substantial meal you can have flavour Paella and bitsalty bacons.



## Top 2. 타워햄박스테이크



타워 햄박 스테이크: 치아바타, 스테이크, 해쉬브라운, 파인애플 4층 탑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과 환상적인 맛! 학교 급식은 이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Tower Hamburger Steak : The 4 story tower made by Chiabata, Hash Brown, Steak, Pineapple makes a perfect combination and a fantastic taste! This is what we call a school lunch.

## Top 3. 뚝배기



하늘고의 또 다른 매력은 뚝배기이다. 햄이 가득한 부대찌개와 쫄면 떡은 최고의 밥도둑이다.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한 끼이다. Another charm of Haneul Academy is an earthen pot. Budaejjigae which was full of sausages and chewy rice cakes are arousing appetite. It is a meal that warms wi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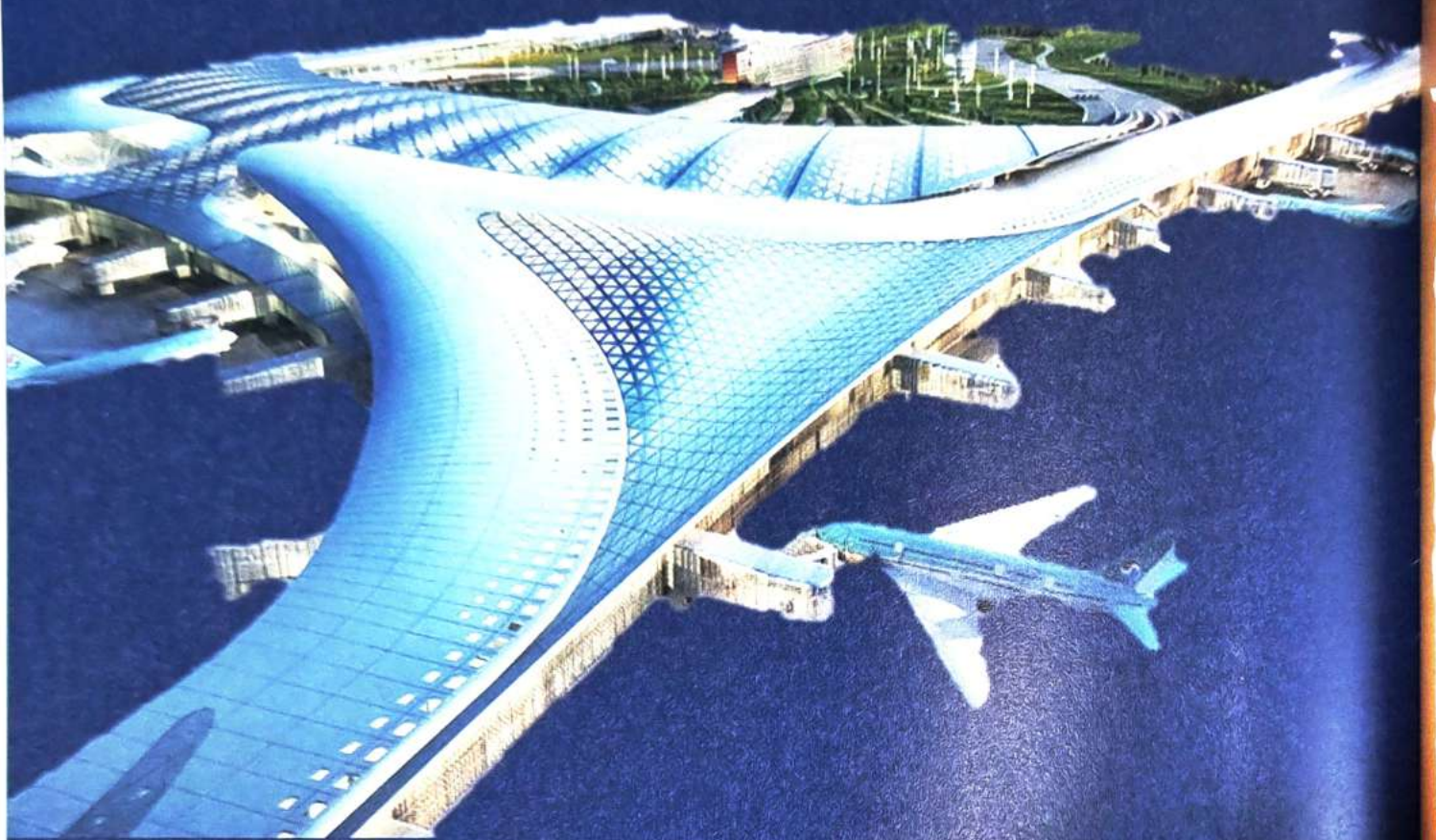
## Top 4. 미역국



하늘고 하면 미역국. 미역국이 나오는 날이면 학생들의 감탄이 급식실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 마치 오늘이 내 생일인 것처럼 마음을 사르르 녹여 줄 것이다.

Haneul is for seaweed soup! Everytime seaweed soup comes out for our school meal, you can hear the admiration of the students. It makes your heart warm and feels as if it's your birthday.





## Travel, Yeong Jong!

Yeongjong Island is a Korean island with an international airport that connects the world. Also it is a beautiful island with gorgeous nature. Now let's find out interesting things about Yeongjong Island.





Edited by students of Haneul Academy,  
High school  
in Yeongjong Island



## Wangsan Beach



At Wangsan Beach, you can camp out in tents at any sandy beach, and it's good to enjoy a beach with seafoods.

## Eulwasngni Beach



You can rent a boat and go out to sea and you can eat seafood dishes at restaurants named "Hwanghae" and "Mi Ane"





## Masian Beach



If you look around here, it's fun to see sea creatures. And you can shellfish, crabs, crayfish, etc.

## Paradise Hotel



The Paradise Hotel has a total of 711 rooms and is located about 10 minutes walk from the Airport Station.

## Hyatt Hotel



The Hyatt Hotel has a total of 1,024 rooms and is located about 15 minutes walk from Airport's Exit 2.

## Incheon Air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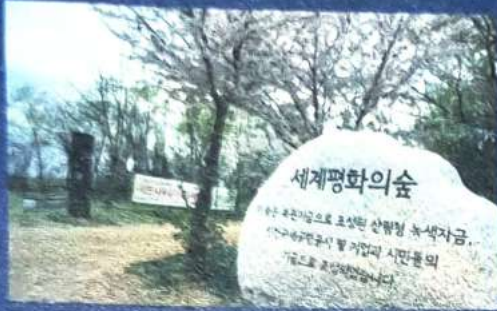


It was selected as the top airport during 12 years. By using this place, you'll be able to start it perfectly.





## The forest of Worldpeace



It informs diversity of Korean culture and beauty of nature. There are walking course and sunset path.

## SeaSide Park



Nice family course harmonized with nature. There is Railbike, camping, cafeteria and a bicycle rental office.

## Guep Dock



The ship that can go to the island such as wolmi-do is operated. You can have raw fish with nice view, too.





# Haneul Korea Fashion

## 하늘고 패션왕

Interview

권현영 한채린

### 약간 변화를 주고 싶은 날

'목티+후드티+바람막이+체육복 바지'

'목티+체육복 세트'

### 따뜻하면서도 발랄해 보이는 코디를 원하는 날

'목티+멘투맨+후리스+체육복 바지'

'바람막이+후리스+생활복 바지'







**01** '목티+후드티+바람막이+체육복 바지'

이 패션의 포인트는 후드티와 목티를 매칭하여 약간의 도도함과 귀여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약간 변화를 주고 싶은 날, 따뜻하면서도 발랄해 보이는 코디를 원하는 날, 이 코디를 적극 추천한다.

The point of this fashion is to match hoodies with polo neck, adding a little bit of guidance and cuteness. I highly recommend this cody on a day when you want to make some changes, a day when you want a warm, yet bubbly cody.



**02** '목티+체육복 세트'

안에 목티를 추가함으로 인해 조금은 백수 같은 이미지를 벗어났다. 이는 찌들었을 때, 체육이 들었을 때 주로 사용되는 코디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크하면서도 편한 느낌을 풍긴다.

Beyond the image by adding a polo neck in a little unemployed. This is the gym, which has set, usually used when Cody. In a way, a little bit of chic and comfortable feelings.





**03** '목티+맨투맨+후리스+체육복 바지'

하늘고 학생들이 가장 무난하게 입는 착장이며, 평범한 하루에 따뜻함을 더해준다. 겨울철 하패왕으로 가는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겠다.

Sky High School students wear the most casual, adding warmth to a normal day. It's a must-see course for Hafa Wang in winter



**04** '바람막이+후리스+생활복 바지'

롱패딩을 입기엔 덥고 안 입기엔 추울 때 이 패션을 선호한다. 이번 겨울 수많은 하늘고 학생들이 하고 다녔던 코디로 11월달의 추위에서 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

We prefer this fashion when it is hot and cold to wear long padding. This winter it is the fashion that many haneul students have been wearing to protect them from the cold of November.





## 권현영 인터뷰

**Q.** 언제부터 형광 양말을 신게 되셨나요?

**A.** 제가 원래 유니클로 흰 양말만 신었거든요. 그런데 하늘고 오면서부터 형광 양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Q.** 자신이 생각하는 형광 양말과 어울리는 코디가 있나요?

**A.** 일단 체육복 바지를 최대한 내려서 양말 안에다가 넣어서 입고 위에는 뭘 입어도 괜찮지만 맨투맨에 검정 목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Q.** 형광 양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A.** 여기서는 다들 똑 같은 옷에 비슷한 양말을 신잖아요. 하지만 형광 양말을 신으면 다르기도 하고 사복을 입는데 안 걸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형광 양말 ▶



## 한채린 인터뷰

**Q.** 형광 양말 말고도 색깔 양말을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시겠어요?

**A.** 일단 양말 서랍에 흰 양말이 없어요. 제 방에 놀러온 친구들이 빨래 건조대를 보고 “누가 봐도 한채린 방이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Q.** 1학년에서 형광 양말에 첫 도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주위의 반응이 어땠나요?

**A.**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눈이 아프다였어요. 스포츠 하는 날 형광 핑크 양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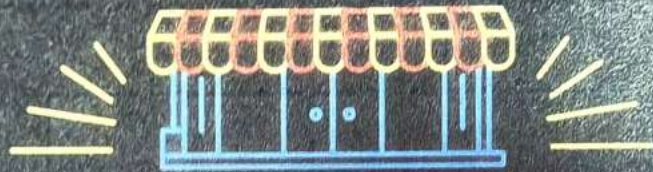
신고 갔는데, 태권도 도복에 양말이 반사 되는 거예요. 가희쌤한테 태권도 할 때는 다신 신고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웃음)

**Q.** 앞으로 양말 세계에 대해서 더 도전하고 싶은 게 있나요?

**A.** 지금까지진 도전한 것이 무지개, 알록달록한 색깔, 풍경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양말인데 다른 그림들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Since ✂ 2011



# 하늘고등학교 4대 핫 Hot Place 플레이스





1

## 5층 테라스



관측소의 전망대 5층 테라스! 상쾌한 공기와 노을 지는 하늘이 매력적인 공간이죠! 매일매일 하늘 색깔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끔은 분홍색이나 보라색 하늘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로 지친 여러분, 5층 테라스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The terrace on the fifth floor of the observatory in Haneul Academy! The fresh air and sunset sky is an attractive place! Did you know that the color of the sky is different every day? Sometimes you can even see pink or purple skies. Why don't you, study-weary, sit on the terrace bench on the fifth floor for a while?



2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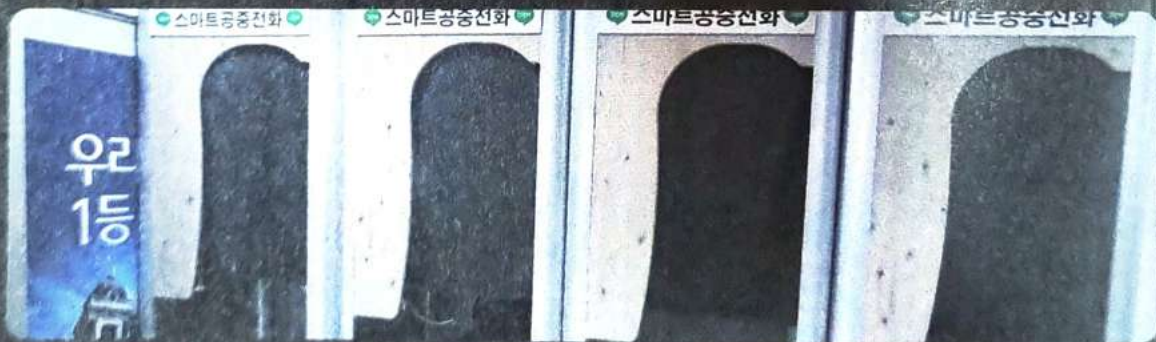


하늘고 TOP 1 201로 떠나볼까요? 면학 시간에 항상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201! 하늘고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친구들과 학구열을 불태울 수 있는 공간이죠! 모두들 201로 고고~

Let's go to TOP 1 201! Students are always crowded in 201 during study hours! It's the only place you can use a laptop in Incheon Haneul Academy, where you can burn desire to learn with your friends! Everyone, go to 201~

3

그린비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린비!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지만, 시험기간 때는 모두들 찾게 되죠, 군대도 간접 체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더 애뜻해지기도 하는 순간이죠! 울지마 바보야~ ♪

그린비, the only means of keeping in touch with the outside! It may be strange at first, but during the test everyone waits for it. You can experience the military indirectly and it is also a moment to be more affectionate with your parents!





4

## 매점



하늘고만의 최대 강점이라 할 수 있는 매점! 밖에 있는 편의점만큼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되고 있죠. 겨울철에 먹는 호빵 불막창 닭강정도 맛볼 수 있고 하늘고 학생들만의 레시피도 있는데요! 종 치자마자 뛰어가야 되는 거 다들 뭔지 알죠?

A school store(7-ELEVEN) is one of the best points in Haneul Academy! There are as many items on sale as outside. You can also taste 호빵 불막창 닭강정 and there is a special recipe for Haneul Academy students! You all know what it's like to run as soon as bell rings right? Haneul Academy student who never misses your health?



# STAFF

Haneul Connector 최상규 Manager

Haneul Connector 장유리 Editor

Haneul Connector 최푸른 Editor

Haneul Connector 강예빈 Editor

Haneul Connector 김정환 Photographer

Haneul Connector 최정은 Photographer

Haneul Connector 남한나 Photographer

Haneul Connector 윤승환 Photographer

---

권현영 이승연

김태원 박서현

박지영 김가은

김규리 김한아

구진모 임다솜

이희영 박예나

윤동건 고유진

홍지수 임해욱

안홍상 지상혁

박주훈 김창은

유소희 배정인

고유진 이승현

경성윤 엄채영

김설지 사수현

정채윤 박윤서

권도경 이동규





vol. 7  
하늘나라

우리는 모두 빛나는 별이다

발행일 2020년 01월 31일 발행

펴낸이 김일형

펴낸곳 인천하늘고등학교

지도교사 최상규

편집부 하늘커넥터

디자인 한국학술정보(주) 북토리W2P사업부 디자인팀

이 책은 ■ BOOKTORY 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늘나라는 인천하늘고등학교가 매년 1회 발행하는 교지입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